SSN 2508-3139



성무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발간

OCTOBER 2026 VOL.55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R.O.K Airforce Alumni Association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

교훈 |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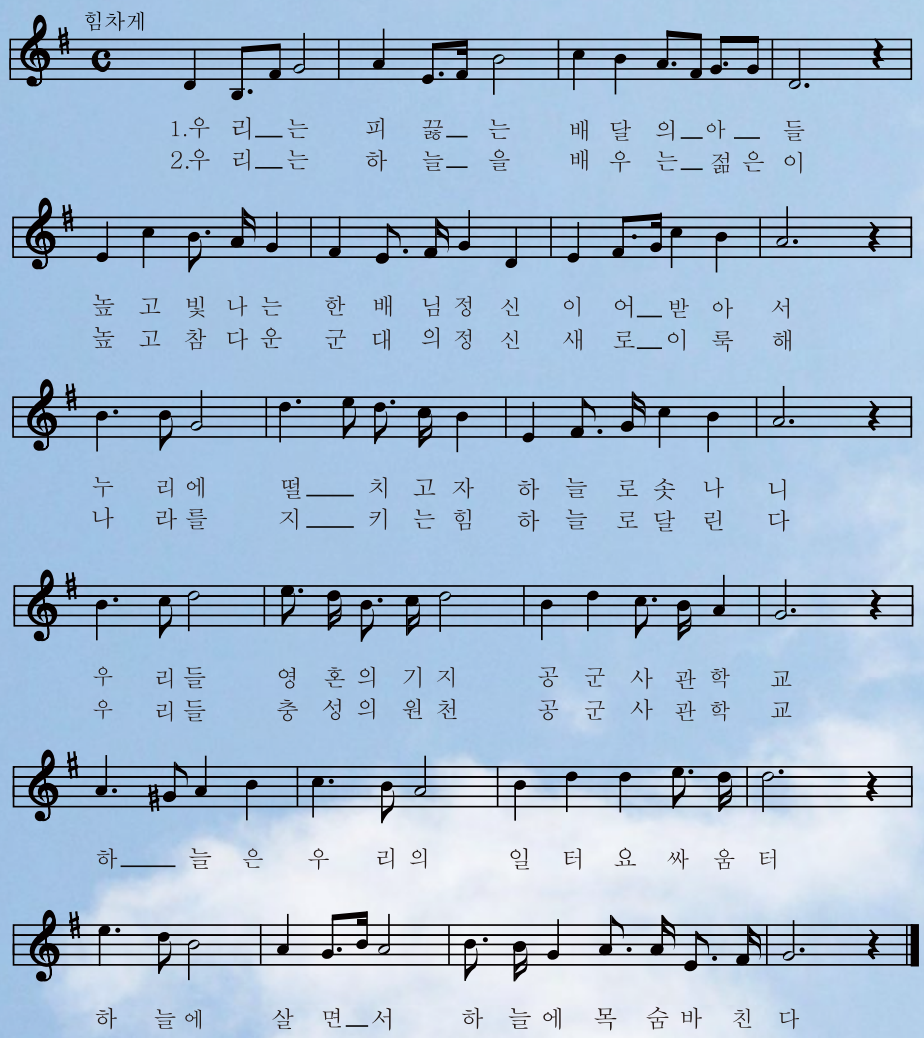
공사십훈 |

1.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2. 청렴결백(淸廉潔白)하라.
3.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4.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5.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6.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7.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8.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9.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10.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교가 음원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 작곡 김성태



www.seouladex.com

Seoul ADEX 202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in 성남



2027. 10. 19.(화) ~ 24.(일)
서울공항

- 일반관람일 : 10. 23.(토) ~ 24.(일)
- 전문관람일 : 10. 19.(화) ~ 22.(금)

주최 |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육군 대한민국공군 방위사업청 KASA 우주항공청 성남시

대한민국 하늘을 넘어 세계의 하늘까지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국방/공공 종합훈련체계 개발 전문기업

한길씨앤씨주식회사

비전과 추진전략



한길과 함께하는 성무인

신용인(33)	나시중(30)	김종수(34)	최재훈(34)	김태재(34)	송태섭(35)
서창수(35)	정하봉(36)	김주영(37)	이준혁(37)	서해원(37)	최종원(37)
안병규(38)	김종성(40)	윤형모(41)	권영경(41)	김창림(42)	강경식(46)

본사/시스템통합사업본부(서울)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2, 904(대륭테크노타운 5차)
(T) 02-3143-2486 (F) 02-3143-2488 http://www.hangilcnc.com

공장(서울)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2, 708(대륭테크노타운 5차)
(T) 02-3143-2486 (F) 02-3143-2488 http://www.hangilcnc.com

M&S사업본부(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613호(관평동, 한신에스메카) (T) 070-7167-5355 (F) 042-825-2489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사천)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한국항공우주산업㈜ 內 (T) 055-852-0267 (F) 02-3143-2488

주요 사업영역

한길씨앤씨㈜는 26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국방/공공분야 종합 훈련체계 개발 전문기업으로서 공군 전투기와 훈련기, 해군 초계기와 구축함/잠수함, 육군 헬기 등 주요 국방무기체계에 대한 CBT, VR/AR 솔루션, TIMS,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납품하며, 대한민국 국방 훈련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

주요 생산품

정비훈련체계 : T/FA-50, (K)F-16, F-15K, KF-21, KUH, UAV, KT-1 등


T/A-50


KF-16


F-15K




KT-1 / Cessna


KUH


UAV


KF-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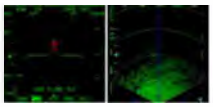
비행/정비훈련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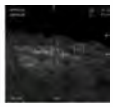


비행/정비훈련관리체계(TIMS)

항공전자 및 임베디드 SW


탑재형 훈련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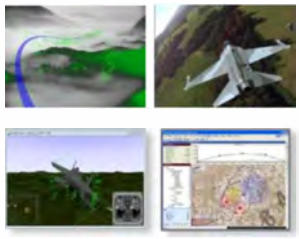

레이더모의


TGP/AGM-65

시뮬레이터 및 영상장비


고정익 및 회전익 시뮬레이터

L-V-C 연동


LVC 연동 및 통합

VR / AR / MR / AI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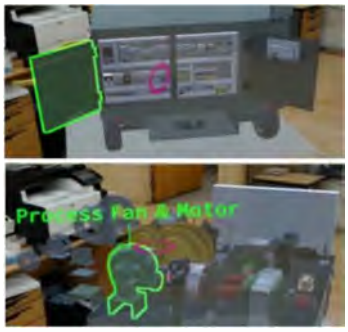
100인 이상 원격/다중 접속



조종석/항전장비 정밀 조작



증강현실 엔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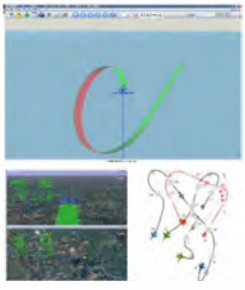
T-50B 블랙이글 비행체험



VR 기반 손상통제훈련



AI기반 모의비행훈련체계



잠수함 승조원 VR 훈련체계



contents





01 프롤로그:

010 성무55호 인사말
013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운영중점
014 모교 소식
034 공군 소식
045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활동
062 공사발전기금 현황

02 특별기고: 새로운 도약과 비상

064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071 파괴하고 섞어라
077 전환의 시대
084 국가 존립의 물리적 보루
089 국경을 넘어 단련되다





03 특별기획 I
정책운영 인터뷰 및 제언

098 KF-21, 전투기 세대교체를 넘어
107 AI, 공군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119 자주국방과 K-방산
128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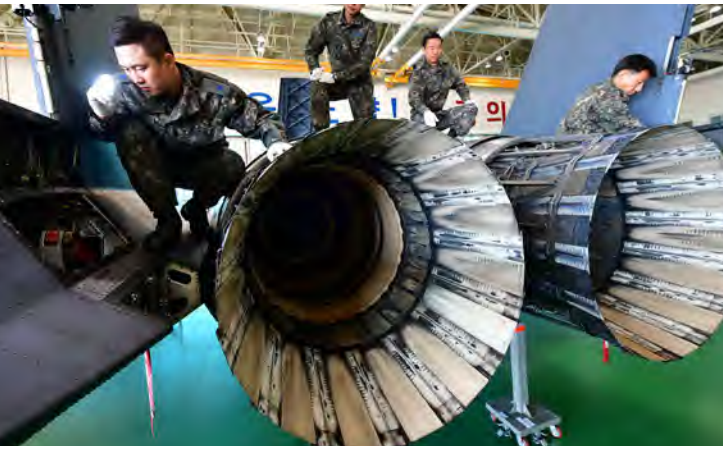
04 특별기획 II
전장환경과 과학기술

132 공군, 그리고 미래 다영역 작전
138 AI 시대 전장의 게임체인저 드론
145 하늘의 방패가 멈춰 세운 거인의 진격
152 2026년 중동전쟁을 바라보며
159 자주국방의 날개를 펼치다

05 울림, 공감
자랑스런 성무인

170 공군과 함께한 26년
177 변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
184 행복사다리를 함께 올라가요
191 스페인 이민생활
194 아버지의 길, 나의 하늘
199 보라매공원 성무탑과 헌시

contents





06 동문마당
임관너머

204 공사 24기 '웅비'의 졸업
210 전우회 장학재단 설립 회고
213 보라매의 요람
218 공군인의 건강 & 전투력 지킴이

문학유람

222 보라매_시
224 비상출격_시
226 창공_시
228 하얀 계절 붉은 마음
231 하늘사랑
234 이수회
236 신의 침묵
239 세상에 공짜는 없다
242 공사도라지 모음
252 나의 친구,스티브 잡스

07 총동창회 활동

256 제33차 총동창회 운영 현황
258 총동창회 평생회비 납부 안내
260 총동창회 발전기금 안내
261 성무안보연구소 탐방
265 성무장학사업 안내
268 성무안보연구소 발전기금 안내
269 편집 후기 & 표지 소개

01

프롤로그

성무 55호 인사말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운영 중점

모교 소식

공군 소식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활동

공사 발전 기금 현황



존경하는
1만여 성무인 여러분!

제33차 연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 **황성진**

산야가 오색 단풍으로 물들고 제법 차가워진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먼저 우리 총동창회를 오늘날 반듯한 열매를 맺는 기름진 터전으로 가꾸어 주신 선배 동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 총동창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3차 연도 총동창회가 막바지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결실 중 하나로 『성무지』 제55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임원진 모두는 이번 성무지에 동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삶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연초부터 전반적인 구상과 원고 모집,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편집 봉사로 헌신해 주신 제33차 연도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을 가득 담아 주옥같은 원고를 보내주신 투고 동문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동문 간의 따뜻한 소통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1949년 창설 이래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해 온 우리 총동창회는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이한 모교의 눈부신 발전과 발걸음을 함께해 왔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의 모교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항공우주군을 선도하는 으뜸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그 위상을 날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역시 국방의 한 축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힘'으로서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성무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계신



동문 여러분의 성취는 우리 모두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이러한 기틀 위에서 “하늘사랑 77년, 더 나은 미래”를 목표로 임기를 시작한 제33기 비호회 임원진은 올 한 해 가치 있는 성과들을 축적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연초 이사회에서 확정한 사업계획을 자문위원님들의 고견과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차질 없이 완수하였습니다. 동문 간의 친목 증진과 결속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성무안보연구소의 위상 제고와 동창회의 미래를 위한 재원 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총동창회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하여 계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총동창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교·공군·동창회가 더불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무인에게 있어 모교는 정체성의 뿌리이자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고, 공군은 자부심 넘치는 일터이며, 총동창회는 언제든 돌아가야 할 마음의 둥지이자 삶의 품격입니다. 이 셋은 평생 우리의 결속을 담보하는 ‘삼위일체’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모교와 공군의 성장이 총동창회의 자긍심이 되고, 총동창회의 융성이 모교와 공군의 발전을 다시 견인하는 동반

자관계가 공고해질 때, 비로소 현역과 예비역 동문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미래가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 성무안보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소는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위상을 날로 높여가고 있으며, 다수의 대외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현재 다소 취약한 조직 체계를 더욱 보강하고 외연을 확장하여 국가 안보 정책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로 도약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정적인 재정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발적 기부금과 특정 기수 위주의 재원 조달 방식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재원 확보가 매우 유동적이며, 총동창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연회비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동창회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미래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자구 노력인 만큼, 성무인의 자부심과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총동창회장으로서 동문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억을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올 겨울의 길목에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하나 되는 성무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무인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제33차 연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 성진

제33차 연도 운영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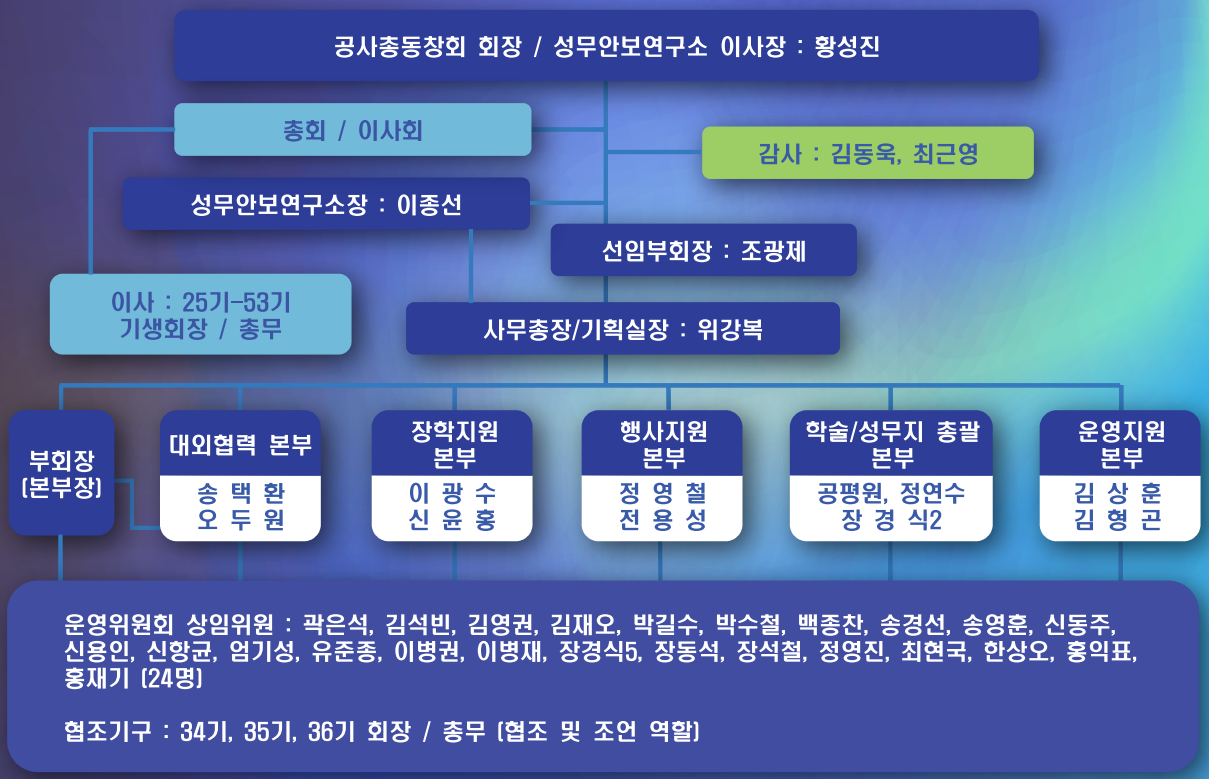
하늘 사랑 77년!
더 나은 미래!

1 더불어 함께하며, 능동적 참여 유도

2 성무정신 계승 및 가치 제고

3 공군사랑 실천 및 국가안보 기여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운영조직도



모교소식

윌로우스 비행가 양성소 후손 견학

2025.8.12

공군사관학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윌로우스 비행가 양성소' 애국지사 후손들을 초청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기념관 및 212대대 견학을 실시했다.

윌로우스 비행가 양성소는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주 동포사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운 한인 비행사 양성 학교이다.





육군3사관학교 4학년 합동교육

2025.9.2/9.4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 대상 합동성 강화교육을 위해 9월 2일(화), 4일(목) 양일간 육군3사관학교 61기 312명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 합동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사 생도 우주 안보 특강

2025.9.10

공군사관학교는 안중근홀에서 생도들의 우주 안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군사전략학과 엄정식교수가 '지금은 우주시대, 우주 안보를 알아야 찐 우주공군!'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사관생도 성무철인경기

2025.10.28

공군사관학교는 10월 28일(화) 사관생도의 강인한 체력과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성무철인경기를 실시했다.

성무철인경기는 수영 1km, 완전군장구보 5km, 마라톤 10km 등 3종목을 소화하는 극한의 체력단련 경기이다.





2025년 성무제 개막식

2025.10.29

공군사관학교장은 10월 29일(수) 성무제 개막식을 주관하였다.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에서 태권도 공연을 하며 성무제 개최를 축하하였다.





제13회 International Week

2025.10.27 ~ 11.1

공군사관학교는 우방국 생도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인터내셔널 주간을 개최하였다.





알리오페라단과 공군사관학교가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 개최

2025.10.27 ~ 11.1

공군사관학교는 장병 및 생도들의 문화예술 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알리오페라단은 전문 성악가와 장애인, 어린이가 무대에 올라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들려주며 나눔과 화합을 전하는 음악 단체이다.





2025년 미래 항공우주 학술대회 개최

2025.12.4

공군사관학교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교내 안중근홀에서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미래 항공우주력의 진화'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관생도의 연구 역량 강화와 활성화 그리고 항공우주력을 선도하기 위해 열린 금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KAI 등이 참여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원칙이 기록으로

2025.12.9

공군사관학교 212비행교육대대는 9일 “무사고 비행기록 2만 시간을 달성해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대의 무사고 기록은 8일 문찬식(소령) 212비행교육대장과 이용호 비행 교수가 국산 입문훈련기 KT-100으로 비행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착륙하면서 달성됐다. 대대가 달성한 무사고 2만 시간은 KT-100 기종으로 386만㎞를 운항한 것이며, 지구를 약 96바퀴 돈 것과 같은 거리다.

이상오(중령) 212비행교육대대장은 “2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학생·교관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처음부터 올바르게’라는 대대의 모토처럼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전비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2차 교육진흥재단 이사회

2025.12.10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성일환 이사장은 2025-2차 이사회에서 김영민 신임 이사장 및 선출직 이사를 선임하였고 2026년도 예산편성 및 기부원금 사용을 승인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제78기 입학 설명회

2025.12.17

공군사관학교는 제78기 사관생도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군 및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입학설명회를 실시 후 사관생도 성무의식을 관람했다.



제58대 공군사관학교 교장 취임식

2026.1.14

공군사관학교 안중근 홀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58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취임하는 교장 김진오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학교 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78기 성무기초훈련 등록일 행사

2026.1.30

안중근 홀에서 제78기 예비 사관생도의 성무기초훈련 등록일 행사가 거행되었다. 등록일 행사에는 훈련에 입과하는 예비생도와 학부모 및 친지들에게 성무기초훈련을 소개하고 공군과 공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74기 졸업 및 임관 축하 리셉션

2026.2.12

공사 생도식당에서 당당한 공군 정예 장교로 임관을 앞둔 제74기 사관생도의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하고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리셉션을 거행하였다.





제74기
통합 임관식

2026.2.20

지난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육해공군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했다.

주목할 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은 역사상 최초다.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 임관식을 함께 치른 사례는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군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가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제74기 졸업식

2026.2.25

교내 성무연병장에서 손석락 참모총장이 주관한 가운데 제74기 생도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176명(남 163명, 여 13명)의 사관생도는 2022년 입학해 4년 동안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교육, 학위 교육을 이수해 군사학사와 함께 전공별로 각각 문학사·이학사·공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4년간 함께 교육받은 외국군 수탁생도 6명도 같이 졸업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석현 소위가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은 허은재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조영인 소위가 받았다.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 제복을 입게 된 김선혁·송유준 소위, 밀리테크 챌린지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정연제·김진현 소위도 화제를 모았다.







제78기 사관생도 입학식

2026.2.28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을 수료한 제78기 사관생도 212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생도들은 입학선서를 함으로써 공군사관학교에 정식으로 입학 되었다.

이번 행사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와 가족들을 위해 소셜라이브 생중계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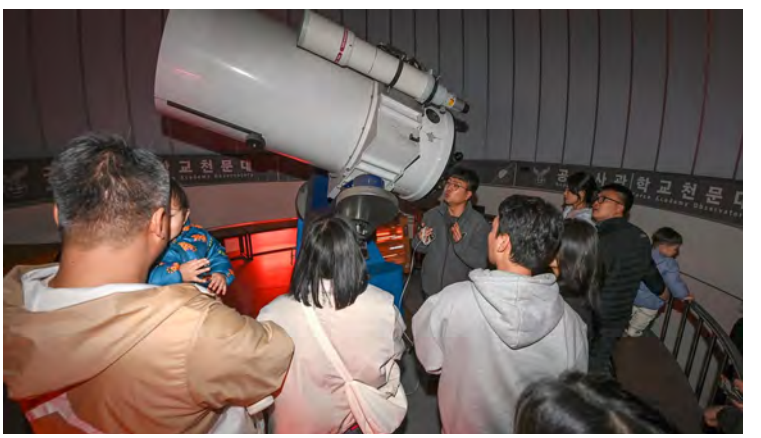




천문대 개기월식 관측회

2026.3.3

공군사관학교는 한반도 지역 개기월식 진행 예정에 따라 공사 장병 및 민간 견학 희망자들에게 공사 천문대를 개방하고 관측의 날을 운영하였다.



26-1차 항공우주 포럼

2026.3.31

공군사관학교는 '국방 및 공군 AI의 현재와 미래'의 주제로 국방안보 관련 최신 기술 및 정책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식교류를 활성화하고, 사관생도 교육 환류, 군 정책 및 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항공우주 포럼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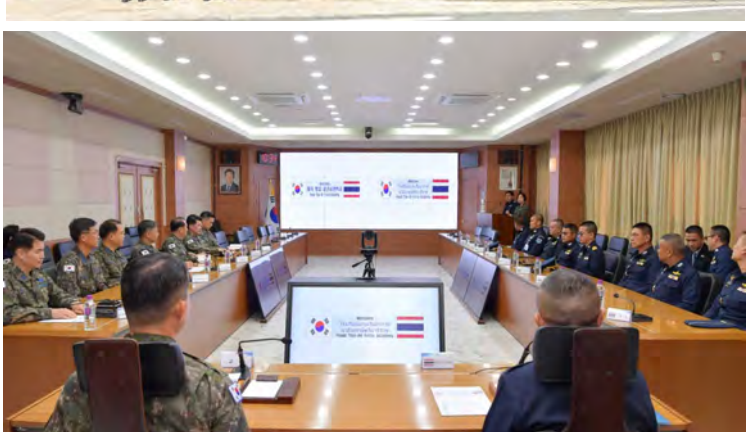


태국 항법훈련단 부대 방문

2026.4.8

한국과 태국 공군사관학교 간의 상호 교류 및 군사 우호 증진을 위해 태국공군 사관학교 항법훈련단이 방문해서 우리 사관학교의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하였다.





제24기 동문 공사 발전기금 전달식 및 작품 전시회

2026.4.14

공사 제24기 동문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공사발전기금을 전달하고,제 24기 동문들의 출품 작품을 학술정보원에서 4.14.부터 4.18.까지 전시하였다.





2026 -1차 교육진흥재단 이사회

2026.4.22

공군사관학교는 2026-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예산 결산, 추경(안) 및 기부 원금 사용 승인, 선출직 이사 연임 등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받았다.



2026년 어버이날 행사

2026.5.5

공군사관학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공사 학부모회에서 사관학교 발전기금을 4천만원 기부하였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사관생도 가족들은 생도생활과 공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순조회 영원한 빛 추모 참배 행사

2026.5.6

공군사관학교는 순직조종사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순직 조종사 부인회의 참배 행사를 진행하였다.





성무군사훈련

2026.5.6 ~ 5.30

공군사관학교는 5월 4주간 성무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학년은 수중·지상생환훈련과 패러글라이딩, 항공체력단련을, 2학년은 유격훈련과 해양생환훈련을, 3학년은 공중생환훈련을, 4학년은 해외항법훈련을 실시하였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팀 방문

2026.5.12

국방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팀 부이사관 김종덕 등 6명이 방문하여 공군사관학교장 김진오소장을 접견하고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황 및 교육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미 공사 우주안보동아리 공군사관학교 방문

2026.5.18

미국 공군사관학교 생도로 구성된 우주안보동아리 'i5 Space' 멤버가 상호 교류 및 군사 우호 증진을 위해 방한하여 우리 생도들과 우주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2학년 생도 안보의식 함양 훈련

2026.5.26 ~ 5. 28

공군사관학교는 2학년 생도들이 2박 3일간 조국 수호 의지 고취 및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안보의식 함양 훈련을 실시하였다.



2026년 사관생도 무용기 대회

2026.6.1 ~ 6.2

공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에게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고, 중대별 단체정신과 팀워크 함양을 위해 2일간 무도, 구기, 육상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무용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2026년 성무 철인경기

2026.6.4

공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의 강인한 체력과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성무 철인경기를 실시하였다.





성무의식 시행

2026.6.5

공군사관생도의 패기와 명예의식을 표현하고, 사관학교 전통을 유지하며 생도의 단합심 고취를 위한 성무의식을 성무연병장에서 실시하였다.





6·25 참전 유공자 초청행사

2026.6.5

공군사관학교는 6·25 참전 유공자를 초청하여 공사 기념관 관람과 생도의식 관람을 마치고 오찬을 하면서 담화를 나누었다.





현충일 기념 영원한 빛 추모비 참배

2026.6.6

제71주년 현충일을 맞아 공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 그리고 신분별 단체장들은 교내 '영원한 빛'추모비를 참배하였다.

'영원한 빛'추모비는 6.25 전쟁 중 조국 영공을 수호하다가 하늘에서 산화한 조종사와 훈련 중 순직한 공중근무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0년 건립됐다.







26-2차 항공우주 포럼

2026.6.9

공군사관학교는 '국방 및 공군 AI의 현재와 미래'의 주제로 2차 항공우주 포럼을 실시했다.

국방안보 관련 최신 기술 및 정책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지식교류 활성화 방안, 사관생도 교육 환류 및 군 정책과 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항공우주 포럼을 실시하였다.





제58·59대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

2026.6.11

공군사관학교는 정예공군 장교가 될 사관생도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군인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군사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 안중근홀(1985년 12월 완공)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58대 학교장 이임과 제59대 학교장 취임식을 실시하였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소통간담회

2026.6.15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공군사관학교를 찾아서 미래전장을 지배할 정예 장교 양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관학교 발전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수, 훈육관 및 사관생도들과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학년 생도 해양생환 훈련

2026.7.27 ~ 7.31

제77기 생도들이 7.27.~7.31.(5일간) 미사일방어사령부 방공전투훈련장 운영대대 해안에서 해양생환훈련을 통해 해상에서의 생존능력을 연마했다. 학교장은 7.28.(화)에 해양생환훈련 현장을 순시하면서 77기 생도들을 격려했다.





1,3학년 안보의식 함양 훈련

2026.7.27 ~ 7.29

제78기 1학년 생도들은 7월 27일 부터 29일 까지 3일간, 제76기 3학년 생도들은 7월 27일 부터 7월 30일 까지 4일간 조국 수호 의지 고취 및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안보의식 함양훈련을 실시했다.







공군소식

2025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2025.10.21

공군은 10월 21일(화),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2025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글로벌 전략경쟁시대, 항공우주력 발전방향과 K-방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모리타 타케히로 일본 항공막료장 등의 국내·외 주요 인사와 대한민국 공군, 우주항공청,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항공우주분야 민·관·군·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 참석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홀수 해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와 연계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24회를 맞는다.





공군참모총장, 취임 후 첫 지휘비행 KF-21 탑승

2025.11.5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11월 5일(수)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비행은 공군에서 운영하게 될 KF-21에 참모총장이 직접 탑승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KF-21의 우수성을 알리고 K-방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손 총장은 이번 시험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해외 군사외교 현장에서도 KF-21의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 기술적 경쟁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F-4E, F-15K 등 공군의 주력 기종들을 조종하며 2,900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다. F-15K 초기 도입 및 전력화 요원으로 활약했으며, 비행단장으로서 F-35A 전력화를 이끈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조종사와 지휘관으로 활약하며 K-방산 홍보에 앞장서기도 했다.





쌍매훈련 (Buddy Squadron) 실시

2026.1.21 ~ 1.24

한미 공군은 1월 21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공군 원주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서 양국공군은 근접항공지원, 해상전투초계 임무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굳건한 韓美 연합방위태세를 다졌다.

사진은 한미 공군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Buddy Squadron)'에 참가한 한미 항공기들이 지난 22일 훈련을 위해 공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선정시 상식

2026.1.26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1월 26일(월)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군 발전에 기여하고 공군의 위상을 드높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시상식을 주관했다.

시상은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등 4개 부문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사진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시 가장 먼저 진입한 김해기지 소방중대가 '헌신'부문에 선정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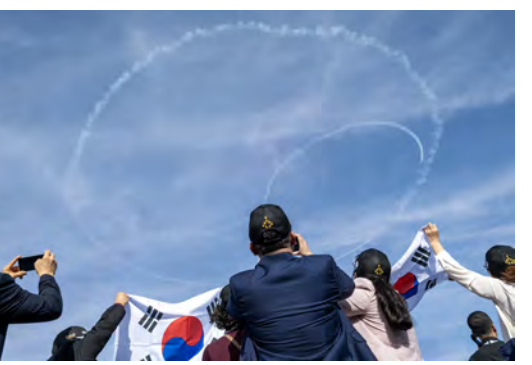
블랙이글스 사우디 WDS 2026 에어쇼

2026.2.8 ~ 2.12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2월 8일(일) 부터 2월 12일(목)까지 사우디아리비아 리야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사우디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수준 높은 에어쇼를 선보이며 사우디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블랙이글스는 이번 WDS에 참가하기 위해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오만 등을 거쳐 사우디에 도착했다. 오키나와에서는 한국 공군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급유를 받았고, 인도에서는 총 3번의 급유를 받았을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다.

블랙이글스가 중동지역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일(월) 블랙이글스의 사우디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T-50B 항공기에 물줄기를 뿌리는 '워터 살루트(Water Salute)' 세리모니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과 행사 둘째 날인 2월 9일(월) 행사장을 찾은 한인 교민들이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에 화답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제2MCRC 성능개량체계 전력화 행사

2026.2.12

공군은 2월 12일(목), 대구기지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미래전장 대비 강화된 감시·지휘통제 능력을 갖춘 제2중앙방공통제소(이하 MCRC) 성능개량체계 전력화 행사를 거행하였다.

공군은 '21년부터 '26년까지 1,930여 억원을 투입해 공군작전의 핵심 중 하나인 제2MCRC의 시스템 개선을 수행해 왔다. MCRC는 공군의 핵심 지휘통제체계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공중감시, 항적식별, 무기운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WDS 2026 참가 블랙이글스 한국 복귀

2026.2.24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WDS 2026)' 참가를 마치고 24일(화) 한국으로 복귀하였다.

한국 복귀 길인 지난 18일(수), 한·태 공군 간 우정비행을 마치고, 한국 블랙이글스와 태국 공군 T-50TH의 조종사들이 양국 국기를 나눠 들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과 제53특수비행전대장 노남선 대령이(왼쪽)이 태국 공군 티라윳 끄아사굴(Teerayut Kausakul) 제41비행단장(대령)에게 기념액자를 전달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 (MUAV) 양산 1호기 출고식

2026.4.8

공군은 4월 8일 부산 대한항공테크센터에서 방위사업청장,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2전력기획처장 등 주요 인사 및 방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의 전략 표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MUAV)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출고된 전략급 무인항공기(MUAV)는 적의 전략 표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전력으로,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양산된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양산 1호기 출고를 통해 공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정보 수집과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5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2026.5.26

공군은 5월 26일(화)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5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임관하는 333명(女 78명)의 신임 공군장교들은 지난 2월 23일(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군인화·간부화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며 장교로서 갖춰야 할 체력과 정신력, 리더십 및 전투수행능력을 함양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2026 공군 정기음악회

2026.6.11

공군은 6월 11일(목)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6 공군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1950년대 당시 공군군악대를 대표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전했던 공군 스윙밴드 '후라이보이(Fly Boy)'가 활동 중단 69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후라이보이'는 공군군악대 현역과 예비역 연주자 30여 명으로 재구성한 밴드다.





2026년 소링 이글 (Soaring Eagle) 훈련

2025.6.12 ~ 6.19

공군은 6월 12일(금)부터 19일(금)까지 청주기지에서 '26년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했다.

소링 이글 훈련은 전·평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공군의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적 공중종합훈련이다.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 중 가장 큰 이 훈련은 지난 2008년 시작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F-16, KF-16, FA-50, F-5 전투기를 비롯해 KA-1 공중통제공격기,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50여 대의 항공전력과 21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훈련은 적의 공중·지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공중전력 간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공군-인하대-항공우주산학융합원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2026.6.22

공군참모총장은 6월 22일(월) 공군본부에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항공우주·방산 분야 군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체결식에 앞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 등과 환담하며 각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737 항공통제기 공중급유 훈련 실시

2026.7.10

공군은 7월 10일(금) E-737 항공통제기 공중급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4월 20일(월)부터 시작한 이번 훈련을 통해 E-737 조종사 4명이 공중급유 자격을 획득했다.

E-737 항공통제기 최초 공중급유 자격획득 훈련을 마쳐, 장시간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항공통제 임무 수행 기반 마련했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E-737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의 공중위협을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아군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공군의 핵심 전력이다.





2026 피치블랙 (Pitch Black), 연합공중작전 수행

2026.7.17 ~ 8.7

공군은 7월 17일(금)부터 8월 7일(금)까지 호주 다윈(Darwin)기지에서 열린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에서 각국 공군과 함께 다양한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하였다.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였다. 우리 공군은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00여 명이 참가해 현지 적응훈련을 마친 뒤 지난 7월 27일(월)부터 본훈련에 돌입했다. 훈련에서는 KF-16 전투기 6대를 운용하며 항공차단(AI: Air Interdiction), 방어제공(DCA: Defensive Counter Air) 등 다양한 연합편대군 임무가 진행됐다.



한국-호주 77대대 우정비행 실시

2026.7.20

공군은 호주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인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가한 우리 조종사들이 7월 20일(월) 호주 77대대 조종사들과 우정비행을 실시했다.

호주는 1950년 7월 2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6·25전쟁 참전을 결정했으며, 호주 공군 77비행대대는 1950년 7월 2일부터 정전 때까지 F-51과 Meteor-8 전투기로 15,071소티를 출격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했다.



한-프 연합공중훈련 실시

2026.9.17

공군은 9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청주기지에서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23년 양국 항공전력 간 첫 훈련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연합훈련으로 우리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항공전력을 활용한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에 우리 공군에서는 F-35A, F-15K, KF-16, FA-50 전투기와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프랑스 항공우주군에서는 라팔(Rafale) 전투기 2대와 A-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MRTT: Multi Role Tanker Transport) 1대가 참가했다.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페가스(PEGASE) 26' 훈련의 일환으로 일부 전력을 한국에 전개했다.





KF-21 001호기 도입행사

2026.9.22

공군은 9.22.(화) 오후 예천기지에서 KF-21 양산 1호기 도입 행사를 거행했다. KF-21 001호기는 이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공군에 인도됐다.

공군의 KF-21 첫 조종사들 중 한 명인 한재석 소령이 'KF-21 양산 1호기 인수·인도서'에 서명하며 공군은 첫 KF-21 양산기를 공식 도입하게 됐다. 이어 최초 운용기지인 예천기지로 향한 KF-21 001호기는 국산 항공기들의 공중 환영을 받으며 함께 비행했다.

역사적인 KF-21 001호기 도입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을 천명한 지 25년 6개월,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9개월 만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24년 6월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한 지 2년 3개월 만에 KF-21 001호기를 공군에 인도했다.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활동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출범

2025.12.18

2025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제33차 연도 총동창회가 회원들의 인준을 받고 출범하였으며, 황성진 신임 회장이 선임되었다. 제33차 연도 총동창회는 제32차로부터 총동창회기를 넘겨받고 “하늘사랑 77년! 더 나은 미래!”를 목표로 2026년도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공군전우회장 예방

2026.1.7

총동창회 회장단은 공군전우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전우회장 및 임원에게 취임 인사와 함께 공군전우회와 공사총동창회 및 공군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전우회장은 “작년에 임관 50주년을 맞이했던 23기가 ‘공사총동창회 발전 기금 기부’의 기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두 단체와 공군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자"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1. 13(화).에 공군전우회 회장께서 제32차 연도 공사총동창회 회장단의 업적을 치하하고 노고를 격려하며, 제33차 연도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역대 회장단의 업적을 잘 이어받아서 공사총동창회가 더욱더 발전하여 공군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을 당부했다.





청운보육원 후원방문

2026.1.28

총동창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어려운 여건의 이웃을 돕기 위해 동작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의 청운보육원'을 방문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우며 수고하는 직원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공사총동창회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공군참모총장 예방

2026.1.29

총동창회 황성진 회장과 임원진은 1.29.(목) 오전 공군호텔에서 손석락 참모총장을 예방하고 총동창회가 성무안보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통해 공군 정책을 뒷받침하고, 항공우주력과 공군을 발전시키고 AI를 활용, 공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논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예방

2026.2.9

총동창회 황성진 회장은 청주에 있는 모교를 방문하여 '영원한 빛' 추모탑에서 순직하신 공중근무자 영령들에게 추모를 하였고, 공사 교장 김진오 소장(공사 42기)을 예방하면서 우수한 후배 양성에 진력하는 교장과 교수진 및 훈육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항공우주력을 활용하고 운용하여 국가안보를 지켜야만 하는 공군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환담하였다.



제74기 졸업생도 특강

2026.2.9

총동창회장은 제74기 생도에게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하고, 특강을 통해 우리의 안보 현실, 군인의 길, 장교의 3가지 덕목,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장교단의 역할 등을 주제로 군 생활과 책을 통해 체득한, 값지고 풍성한 강연 내용을 전하였고, 이어서 사무총장이 총동창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졸업과 동시에 총동창회원으로서 평생 회비 납부를 당부하였다.



사관학교 발전 후원회 예방 및 만찬

2026.2.10. / 5. 12

2월 10일, 총동창회장과 임원진은 청주에서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이범욱 회장(학사 57기)을 비롯한 회원 14명, 공군사관학교 지휘관 및 참모 6명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교 발전을 위해 23년간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외국 수탁생들을 세심하게 지원해 온 발전후원회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공군사관학교와 사관생도들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을 당부하였다.

5월 12일에는 공사총동창회장과 임원진이 공군사관학교 교장 및 참모,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원들과 함께 공사 체력단련장에서 친선 운동을 가진 뒤 만찬을 함께하였다. 참석자들은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갖는 한편, 공군사관학교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74기 졸업식, 총동창회장상 수여

2026.2.25

총동창회 황성진회장은 제74기 졸업식에 참석하여 학업성적 및 생도 생활에 모범이 되고 5등으로 졸업하여 한미연합사령관상을 수상한 홍휘 소위에게 총동창회장상을 수여하고 기념 메달을 걸어주며, 칭찬하고 건승을 기원하였다.





제33차 연도 정기 이사회

2026. 2. 26

총동창회는 이사회를 통해 제33차 연도 사업계획,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받았다 "하늘사랑 77년! 더 나은 미래!"를 목표로 '더불어 함께하며, 능동적 참여 유도', '성무정신 계승 및 가치 제고', '공군사랑 실천 및 국가안보 기여' 등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운영 중점을 보고하였다.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2026. 3. 17

총동창회는 제24대 참모총장 이광학 제11대 회장 등 역대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운영중점, 사업계획, 예산확보 계획을 보고하였다.

자문위원단은 총동창회관 건립 필요성, 공사 및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분리해서 납부하는 분위기 조성, 총동창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비역 이사기수 간담회

2026.4.1

총동창회 예비역 이사기수 간담회는 수원기지 체력단련장 및 골프하우스에서 공사 25기부터 42기까지 회장단 25명이 골프운동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연회비 납부 필요성,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 참석 및 적극적 대안 제시하기로 결정, 총동창회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계룡지회 개소식 관련 설명 등 다양한 토론과 함께 친목을 다지고, 선후배 간 정겨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계룡지회 개소식

2026.4.8

총동창회는 개교 77주년을 맞이하여 계룡지역 예비역 동문님들을 모시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계룡지회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계룡지회는 개소식 후 창립(2026. 4. 8.) 모임으로 오찬 및 토론을 거쳐서 계룡지회 회장 김경규(공 27), 부회장 조상용(공 33), 총무 김학준(공 34)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운영 방안을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네트워크 형성, 회원 및 공군 운영업소 소개와 이용 장려, 정보 교류 및 공군 발전 지원, 계룡지역 봉사활동으로 4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오찬 후 ‘카페 비아제 브런치(공 43, 박상현)’에서 계룡지회장의 찬조로 차를 마시면서 계룡지회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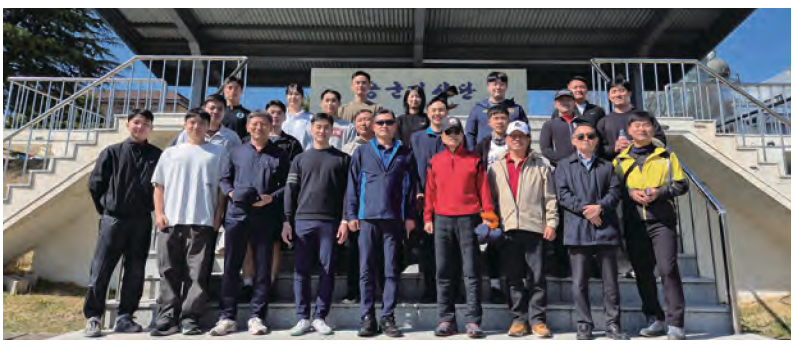


현역 기수 간담회

2026.4.8

총동창회 현역 기수(공 40~74기) 간담회는 50여명이 참석하여 계룡대 기상단 연병장에서 모여서 두계천 일대를 함께 걸으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감나무집에서 만찬과 함께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통해 연회비 납부 필요성,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 참석 결정, 총동창회 발전기금 모금, 계룡지회 개소식 관련 설명 등 다양한 토론과 함께 친목을 다지고, 선후배 간 정겨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공군전우회장 취임 축하 예방

2026.4.15

총동창회 임원진이 공군전우회 박종헌 회장을 예방하여 공군, 공군사관학교, 전우회 및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황성진 총동창회장은 “박종헌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공군전우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군 예비역으로서 공군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에 매진 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였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

2026.4.17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4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기호·유용원 의원실 및 ‘예비역장교연합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황성진 회장은 사관학교 존재의 본질, 장교양성교육의 효율성, 미래 탁월한 군사지도자 양성이란 대전제와 교육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각 군 총장 책임 하 군별 소요와 특성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제기된 문제점들은 교과과정의 개선, 교육 내용의 보완, 정책적 수단의 개발을 통해 해소하고, 사관학교의 통합 문제는 우리 군의 당면 과제 해소, 미래전에 부합한 군제 설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임관기념행사

2026.4.18

공사총동창회가 주관하는 2026년도 임관기념행사(50 · 40 · 30 · 20 · 10주년)가 행사의 주인공인 임관 50주년을 맞는 24기 웅비회를 비롯한 34기 한울회, 44기 다물회, 54기 천우회, 64기 하나린 동문들과 가족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황성진 총동창회장은 "개교 77주년을 맞은 공군사관학교는 항공우주군을 선도하는 정예 장교 양성의 산실로 위상을 더욱 높여가고 있으며, 공군 역시 전영역작전 수행의 핵심군으로서 우리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세계적인 공군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문들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며 총동창회를 대표해 모든 동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친선 테니스대회

2026.5.12

총동창회 테니스 행사가 우천으로 대방공원 테니스장, 공군항공우주안전단 테니스장, 태성대아파트 테니스장에서 분산되어 개최되었다.

24기~45기에 이르는 총 54명의 동문들께서 함께 어울려 조금 덥게 느껴지는 날씨에 땀 흘리며 운동을 하고 선.후배 간 정겨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육사초청, 3군 사관학교 동문 친선 테니스 대회

2026.5.16

육사 총동창회에서 초청한 3군 사관학교 동문 친선 테니스대회가 육사 갈매리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공사 26명, 육사 52명, 해사 21명, 총 99명의 서로 다른 동문과 함께 어울려서 조금 더운 날씨에도 땀 흘리며 친목을 다지고, 정겨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운동을 통해 서로 이해하였고, 특히 같은 해에 임관한 기수 간의 화합하는 모습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환하게 비추었다. 행사를 주관한 육사 총동창회의 노고에 감사한다.





신기훈 변호사 법률자문 위촉

2026.5.22

총동창회는 총동창회 및 성무안보연구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사항을 자문받기 위해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신기훈(공사 46기) 변호사를 법률자문으로 위촉하였다.

신기훈 법률자문은 앞으로 3년간(2026.5.22.~2029.5.21.) 총동창회와 성무안보연구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기로 하였다.



봄 자전거 라이딩 행사

2026.5.23

총동창회는 동문 선· 후배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봄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개최하였고, 가을 자전거 라이딩 행사는 사관학교 폐교, 국군사관학교 창설 반대 활동으로 인해 취소하였다.

봄 라이딩은 반포한강공원에서 출발하여 아라한강갑문 인증센터를 경유하여 보라매 공원 성무탑까지 47Km, 3시간에 이르는 구간에서 실시하였으며, 성무인의 추억과 공군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성무탑을 목표 지점으로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국립현충원 합동참배

2026.6.5

공사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제71회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공군전우회, 학사장교회, 전공상유공자회 등 50여명과 함께 국립현충원 충혼탑에서 헌화, 분향, 묵념 등의 순서를 통해 독립운동가, 순국선열, 참전용사 및 전몰장병 등의 넋을 기리며 합동 참배하고 공식 행사 후에는 기수별, 단체별로 각각 순직하신 동기 및 동료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추모하였다.





친선 바둑대회

2026.6.18

총동창회가 주관한 동문 바둑대회가 공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11기~39기에 이르는 참석자 44명 동문 중 32명의 바둑기사가 대회에 참가하여 친목을 다지고, 대국을 통해 따뜻한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 바둑대회는 2003년 11기 동문 회장단이 최초로 전체 동문 규모로 대회를 시작한 이래,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2021년과 2022년 제외하고 올해로 22년째 이어오고 있는 동문 모임 중 가장 역사가 긴 행사이다.

육체적인 제한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바둑은 80대 후반의 동문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할 수 있을 만큼 동문 간 기수의 벽을 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다.

대회 결과를 소개하면, 개인전 우승은 A조 박홍부(28기, 3급), B조 최재희(24기, 3급), C조 윤병학(25기, 6급), D조 최석권(17기, 7급), B조 최승관(28기/2급), C조 김종현(17기/5급), D조 이권표(34기/6급), E조 윤병학(26기/7급) 동문께서 차지하였다.

또한 금번 대회에 프로바둑기사 초대 없이 정지수(11기, 1급, 기우회장) 동문께서 심판장을 맡아 주셔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바둑대회 종료 후 만찬 시 신임 기우회장으로 28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이한호(17기, 6급) 동문님을 추대하였다.





2026년 성무장학금 지급

2026.6.22

성무장학금은 제28차 연도 총동창회에서 '성무장학사업'을 정립한 이래 올 해로 6회쪄 지급에 이르며, 군복무 중 또는 전역 후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동문의 학생 유자녀에게 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공사총동창회 (사)성무안보연구소의 장학사업이다.

성무장학금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지급하며, 장학금을 받은 동문의 가족들은 총동창회의 장학금 지원이 자녀들 학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총동창회로 진심을 담은 감사 인사를 전해오고 있다. 현재 성무장학기금은 여러 동문님들의 기부로 2억 3,000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매년 약 3,000여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2026년 성무장학금 지급

지급대상 : 총동창회원의 유자녀

구분(1인지급)	대학생(200만원)	고등학생(100만원)	중학생(70만원)	초등학생(50만원)	계
인원	9명	10명	2명	2명	23명
지급액	1,800만원	1,000만원	140만원	100만원	3,040만원

* 21년 20명, 22년 20명, 23년 28명, 24년 28명, 25년 27명 지급

제6회 안보 학술세미나

2026.7.2

공사총동창회 부설 (사)성무안보연구소(이사장: 황성진) 주관 안보학술세미나가 7.2(목), 공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방부·합참·공군·방위사업청·방산업체·대학·연구소 등 관계자 및 사관생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공군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대장, 이광학·이억수·박종헌·최차규·이왕근·정상화·이영수 (전) 참모총장, 한용섭 한국국가전략학회장, 공사 교장 박흥재 중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연구소 측은 "공군이 AI 시대로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그 자체보다 현장 경험과 산·학·연의 전문성을 융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에는 비행단 작전요원, 연구기관, 방산업체 관계자부터 공사 생도들까지 함께 참석하였다.





3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궐기대회

2026.7.8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고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육·해·공사 총동창회 공동주관으로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본관 야외계단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사총동창회는 3가지 방안을 주장했다.

첫째는 사관학교 통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장교 처우 개선과 교육과정 현대화 등 시급한 정책적 조치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 둘째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미래의 군제, 장교 양성의 수월성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하고 치밀한 숙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셋째는 각 군이 오랜 세월 쌓아온 고유한 문화와 정신은 합동 전장을 구현하는 강력한 무형의 힘이다. '하늘에 살고 하늘에 목숨 바치는' 공군 특유의 DNA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주입할 수 없으며, 한 번 무너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공과 안보를 책임질 미래 장교 양성을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차 자문위원 간담회

2026.7.16

7. 16. 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공사총동창회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임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총동창회 걷기행사

2026.9.15.

모교의 옛 교정인 보라매공원에서 '2026년 총동창회 걷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화창하고 청명한 기상 조건 아래서 7기~37기에 이르는 270여명의 동문들께서 행사에 참여하여 모교를 사랑하며 옛 추억을 되살려 정을 나누면서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관학교 폐교 저지 서명 운동과 원하시는 동문들에게는 인터뷰도 하는 등 9.19.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공사 모자를 나눠 주었으며 모두의 뜻을 모으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번 걷기 행사는 오찬을 예년처럼 도시락과 홍어무침을 안하고 보라매법당 보살님들께서 비빔밥과 육회,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하셔서 잔반을 줄이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행사가 되었다.



사관학교 폐교 저지 범국민 국민연대 총궐기대회

2026.9.19

2026년 9월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최된 “사관학교 폐교 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는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이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언론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만 한 번 언급하고 다른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번 대회의 구체적인 결과는 국군사관학교 창설(3군 사관학교 폐교, 통합) 계획을 ‘졸속 통합’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대통령께 사관학교 폐교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 반대 결의를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또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관생도 학부모, 예비역 단체, 국민의 힘 국회의원, 시민단체, 창원시 진해구 및 서울 노원구 지역 시민 등 1만여 명이 집결하였으며, 대회 종료 후 2천여 명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후에 항의 서한을 현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Samyang Comtech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반드시 지켜냅니다.”

진정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삼양컴텍의 기술은 ‘방호’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차, 장갑차, 소형전술차, 헬기 등 지상 및 항공장비 장갑부터
극한 환경 속의 우주항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설계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냅니다.

Global No.1 방탄 · 방호솔루션 전문기업, 삼양컴텍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16, 8층(서초동, 파크빌딩)
T. 02-3488-5552 E. infodesk@samyangct.com
www.samyangct.com

삼양컴텍
SAMYANG COMPOSITE TECHNOLOGY

1983년 창립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사랑으로」 부영 –

부영은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고교·대학교 교육시설 건립 기증



아·태지역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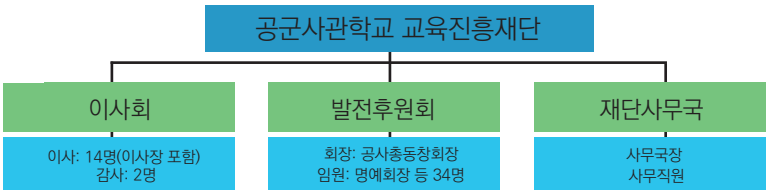
부영그룹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현황

재단 명칭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재단 설립 : 1996. 6월)

설립 목적 공군사관학교 생도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진흥사업에 기여함

조직 편성



발전기금 기부 및 집행현황

기부현황(출연자별: 2026.9.27. 기준)			집행현황(누적: 2026.9.27. 기준)		
구분	금액(억원)	금액(억원)	구분	세부내용	금액(억원)
동문	66.77	• 학교 동문 2,177명 • 76개 단체 (1~74기 동기회)	생도 학술· 문화·체육활동	• 해외항법훈련 • 안보현장 견학(역사탐방) • 외국 사관학교 견학 및 내교	43.03
비동문	69.71	• 삼양화학공업(주): 14.31억원 • 삼성테크윈(주):10.1억원 • (주)부영: 6억원 • 대우중공업: 5억원 • 공사학부모회:4.56억원 • KAI(주): 2.1억원 • 공사발전후원회:2.03억원 • (재)한국해양전략연구소: 1.6억원 • 보잉KOR: 1.26억원 • 장지량: 1.05억원	생도 국내·외 교육 훈련 및 교류	• 각종 대외학술대회 참가 • 교내 학술 및 경진대회 • 융합캡스톤 교육연구 • 우수생도 격려 및 성무제 지원	14.98
			교수/훈육관 학술연구 활동	• 교수학술교류 및 세미나 • 국외연수 지원 • 훈육관 리더십 워크샵 등	2.48
			학교발전 지원	• 생도 생활관,체육시설 등 환경 개선 • 생도교육 유공자 격려 등	9.83
계	136.48	총 2,332여 명/161개 단체	합계		70.32

교육진흥재단 안내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afaf.or.kr
- 출연 문의 :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무국
  (전화) 043-290-6120, 6123

※세제 혜택

- 소득세법 제34조 개인 기부금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금액에서 공제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정

02

특별기고

새로운 도약과 비상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 정용석

파괴하고 섞어라 | 오충원

전환의 시대 | 김정민

국가 존립의 물리적 보루 | 남경현

국경을 넘어 단련되다 | 안드레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학위교육·생활교육·군사훈련으로 키우는 미래 공군 리더

공사 교무기획실장 | 대령
정용석

공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 이후 정예장교를 양성해 온 요람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장교의 모습이 변화할 때마다 교육 역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의 전쟁 양상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무인체계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우주자산은 감시·정찰과 통신 분야에서 전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래 공군 장교에게는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조직을 하나로 이끄는 리더십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공군은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비전2050을 수립하였으며, 공군사관학교 역시 이를 교육 분야에서 구체화한 공사 비전2050을 바탕으로 미래형 장교 양성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정예 우주공군의 시작, 초일류 공군사관학교'라는 비전 역시 미래전장을 주도할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교육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거나 군사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군사적 역량은 물론, 올바른 국가관과 군인정신, 인성과 리더십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위교육, 생활교육, 군사훈련이라는 세 가지 교육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교육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미래 공군 리더를 길러내고 있다.

어떤 인재를 기르는가?

공군사관학교는 학교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 교육과 훈련, 인성함양을 통해 군인의 의무·명예·충성의 가치를 신념화한 정예장교를 양성하며, 군과 국가와 사회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탁월한 리더를 육성한다.”

이 임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공군을 이끌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군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조종사와 방공, 정보, 정비,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군사관학교는 '첨단기술 기반 미래전장을 주도할 군사전문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리더', '국내외 주요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를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학위교육과 생활교육, 군사훈련 전반에서 미래 장교에게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공사 비전 2050 역시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사람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은 더욱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다.

학위교육 I
미래전장을 이해하는 전문성

학위교육은 미래 공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학문적 소양과 군사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공군사관학교는 일반학문과 군사학을 함께 이수하는 양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졸업생은 군사학 학위와 함께 문학사·이학사·공학사 가운데 하나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다. 이를 통해 군사전문가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 일반학 전공, 군사학 교육으로 구성되며, 인문학적 소양과 군사전문성을 균형 있게 함양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여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데이터 활용, 항공우주 분야 등 융합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미래 공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경쟁력이며, 공군사관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공군사관학교를 대표하는 교육 가운데 하나인 항공우주특성화 교육은 이러한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은 기초이론, 체험형 실습, 임무형 훈련, 심화학습의 4단

계 과정으로 운영된다. 생도들은 항공공학과 우주공학의 기초를 학습한 뒤 드론과 큐브위성을 직접 제작하고 운용하며, 무인기 임무훈련과 인공위성 운용절차를 경험하게 된다. 전공생도는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기와 초소형위성의 설계와 제작까지 수행하며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히고 있다.

이처럼 학위교육은 단순한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미래전장을 이해하고 첨단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AI와 우주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공군 장교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며, 공군사관학교는 미래 항공우주군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생활교육 I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의 완성

학위교육이 장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이라면 생활교육은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품성, 리더십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장교는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리더인 만큼 구성원을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군사관학교는 기숙형 교육환경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생활 속에서 이러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생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교육에서는 군인의 기본자세와 품성,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대장과 훈육관뿐 아니라 선배와 동기, 후배가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저학년에서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배우고,







고학년에서는 조직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함양하도록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최근 공군사관학교는 KAFA LETS(Korea Air Force Academy 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System)를 기반으로 학위교육, 생활교육, 군사훈련을 연계한 통합 리더십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관생도의 성장단계에 맞춘 리더십과 팔로워십 교육을 통해 미래 공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전반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생활교육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장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와 원활한 의사소통, 협업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리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결국 생활교육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군사훈련 | 실전에서 발휘되는 군사적 역량

군사훈련은 장교에게 요구되는 기본 군사소양과 전투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다. 강인한 정신력과 전투체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기르고, 초급장교로서 필요한 지휘능력을 단계적으로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공군사관학교는 학년별 성무군사훈련을 통해 생존능력과 전투수행능력, 지휘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군인의 기본자세와 생존기술을 익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투수행능력과 부대 지휘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이 심화된다. 이를 통해 사관생도들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기본훈련평가는 제식과 화생방, 응급처치, 전술 등 군사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의 군사역량에서 부대 지휘능력으로 교육목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매

학기 실시되는 체력평가와 사격 등 실기평가는 장교에게 요구되는 기초체력과 임무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미래전의 양상이 변화하고 첨단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군사훈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인정신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부하를 책임지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지휘능력은 미래 공군 장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이며, 군사훈련은 이러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핵심 과정이다.

맺음말

공군사관학교의 학위교육, 생활교육, 군사훈련은 각각 전문성과 인성, 군사적 역량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담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미래전장을 주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다. 세 가지 교육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관생도의 전문성과 품성, 리더십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며 미래 공군 리더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의 안보환경은 AI와 우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공군사관학교는 공사 비전2050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장교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AI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교육혁신은 교육과 연구, 학습지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AI 기본소양 교육 강화와 교수학습 혁신, 데이터 기반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관생도들이 미래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활용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공군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정신과 투철한 국가관, 책임감과 인성, 그리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미래에도 공군 장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이다. 첨단기술은 이러한 가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공군사관학교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사관생도의 4년은 학위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생활교육을 통해 리더십과 인성을 함양하며, 군사훈련훈련을 통해 군인의 사명과 책임을 체득하는 시간이다.

앞으로도 공군사관학교는 세 가지 교육축을 바탕으로 미래전장에 필요한 전문성과 창의성, 군인다운 품성,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을 두루 갖춘 미래 항공우주군의 리더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파괴하고 섞어라

창의와 혁신, 그리고 미래 전장의 문법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 준장
오충원

1970년대 초, 버클리대학교의 한 강의실. 창업을 꿈꾸는 젊은 일본인 유학생이 백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발명하겠다고. 그러나 백지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열망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고, 의지는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책상 한쪽의 낱말 카드 묶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물의 이름이 하나씩 적힌 300여 장의 카드. 그는 거기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일 무작위로 세 장을 뽑아, 그 셋을 억지로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겠다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50여 개의 아이디어 중 대부분은 공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뽑힌 세 장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음성 신시사이저 ―사전―액정화면

얼핏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소리를 내는 기계와, 언어를 정리한 책과, 화면에 글자를 표시하는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 그 상상의 끝에서 그는 버클리 공과대학의 포레스트 모더(Forrest Moder) 교수를 찾아갔고, 함께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전자회사 샤프(Sharp)는 그 시제품에 1억 엔을 지불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사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손정의. 훗날 소프트뱅크를 일으킨 그의 출발점은 거창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세 가지를 억지로 붙여보는, 그 단순하고 무모한 습관이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 안성은 씨는 저서 『믹스(Mix)』에서 손정의의 성





공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 충돌하는 순간, 뇌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찾아 나선다고 그는 말합니다. 창의성이란 결국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며, 혁신은 서로 다른 분야와 개념과 기술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탄생한다고.

이 통찰을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뒷받침합니다. 구텐베르크는 동전 주조기와 포도주 압착기를 바라보다가 인쇄기를 떠올렸습니다. 각각은 이미 오래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섞는 상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합이 낳은 활판 인쇄술은 지식을 소수의 손에서 해방했고, 인류 문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하나로 합쳐 '아이스크림은 여름것'이라는 상식을 무너뜨렸고, 비수기였던 12월을 연중 최고 매출의 달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섞이는 순간, 세상에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평소에 그 교차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 앞에 한 전략가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존 보이드(John Boyd). 냉전 시대 미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이자 전략가. 그는 「파괴와 창조(Destruction and Creation)」라는 짧은 논문에서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굳어지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해부했습니다. 보이드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모델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고. 경험이 쌓일수록 '이것은 이런 것'이라는 확신이 굳어지고, 그 확신이 어느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이 된다고. 우리는 더 많이 알수록, 오히려 더 좁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첫 번째 단계는 역설적이었습니다. '파괴하라.'

기존의 개념 체계를 의도적으로 분해하여, 그 구성요소들을 낱낱이 꺼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스키는 스키여야 한다는 전제를, 탱크 궤도는 탱크에 달려야 한다는 당연함을, 보트 엔진은 수상에서만 쓴다는 상식을 — 그것들을 일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파괴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전혀 다른 방식의 재결합이 가능해집니다. 보이드는 이 순환을 귀납적 해체와 연역적 재창조라고 불렀습니다.

손정의의 낱말 카드는 바로 그 파괴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장치였습니다. 무작위로 뽑힌 세 장은 뇌가 익숙한 카테고리 안에 안주하는 것을 방



냉전시대 미 공군 조종사 & 전략가 **'존 보이드'**

해했고, 강제로 경계를 허물어 낯선 결합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드는 자신의 개념을 설명할 때 즐겨 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눈 덮인 벌판. 흩어진 네 가지 물건 — 스키, 탱크의 무한궤도, 보트의 엔진, 자전거의 핸들바. 각각은 그 자리에서 완전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눈 위를 달리는 기동수단이 없습니다. 누군가 멈추고 생각합니다. 스키의 미끄러짐과 궤도의 추진력과 엔진의 동력과 핸들바의 방향 조종을 하나로 합친다면. 그 순간 각각의 물건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스노모빌이 탄생합니다.

보이드가 말하는 창조는 이것입니다. 개념을 그 경계에서 끌어내어 분해하고, 다른 영역의 요소들과 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는 언제나 하나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스키는 스키여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것.

여기서 우리는 안성은의 '믹스'와 보이드의 '파괴와 창조'가 결국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경영의 언어로, 하나는 전략의 언어로.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전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패러다임을 바꾼 순간들이 언제나 이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40년, 프랑스군은 세계 최강의 지상군 중 하나였습니다. 병력도, 전차도 독일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하나의 고정관념을 파괴했습니다. '전차는 보병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상식. 그들은 전차를 집중시키고, 항공기와 결합하고, 무선통신으로 실시간 지휘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격전(Blitzkrieg). 프랑스는 6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모델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격전은 이미 존재하던 기술들의 새로운 결합이었습니다. 전차도, 항공기도, 무선통신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전투 방식으로 섞은 것이 혁명이었습니다. 훗날 미군이 개발한 공지전투(AirLand Battle) 개념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군과 육군의 작전을 종심 깊숙이 통합하여, 적의 전선과 후방을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 그것 역시 경계의 파괴에서 탄생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군이 추구하는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은 그 진화의 현재 모습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모자이크 타일처럼 자유롭게 조합하여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전투력을 실시간으로 구성하는 것. 이것은 스노모빌의 논리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고정된 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분해하고 재결합하는 능력. 그것이 미래 전장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결국 '믹스'의 역사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군대가 아니라, 더 대담하게 섞은 군대가 전장의 주도권을 쥐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육군은 지상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싸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드론 한 대가 전차 종대를 무력화하고, 해커 한 명이 항공기 편대의 임무를 마비시키며, SNS에 유포된 영상 하나가 국민의 전쟁 의지를 흔드는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 포병 사격을 유도했고, 상업용 드론이 정규 전투 장비보다 더 큰 전술적 효과를 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그리고 인간의 인지와 감성까지 — 모든 것이 동시에, 서로 뒤엉켜 작동하는 복합전(Multi-Domain Operations)의 시대입니다. 무기 체계가 첨단화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문법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 앞에서 보이드의 경고는 더욱 날카롭게 울립니다. 적이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싸

워줄 것이라는 기대, 위협은 예측 가능한 방향에서 올 것이라는 가정 — 그 낡은 정신 모델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마지노선을 쌓은 프랑스처럼.

그렇다면 오늘의 군인에게 '파괴와 믹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 자신의 영역 너머를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지상군 장교가 사이버 위협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해군 장교가 우주 기반 감시체계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공군 조종사가 전자기 스펙트럼 전투의 언어를 익히는 것. 이것은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역을 해체하고 다른 영역과 결합할 준비를 갖추는, 창조를 위한 파괴입니다. 손정의가 낱말 카드로 스스로를 낯선 영역으로 밀어 넣었듯, 우리도 익숙한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꺼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과 군사의 경계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타링크(Starlink)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군 위성통신을 대체했고, 상업용 드론은 군용 정찰 장비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기술이 전장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포도주 압착기에서 인쇄기를 본 것처럼, 민간의 기술에서 전장의 가능성을 읽는 시각 — 그것이 미래 전장의 결정적 역량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를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이 임무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관성, 이 무기는 이 용도로만 쓴다는 경계, 이 군종은 저 군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구분. 이런 전제들이 정신 모델을 굳어지게





만들고, 결국 새로운 위협 앞에서 우리를 느리게 만듭니다. 창조는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파괴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꼭 이래야 하는가.

다시 그 눈 덮인 벌판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노모빌을 만든 것은, 스키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키의 경계를 허물고, 그것의 '미끄러짐'이라는 속성을 전혀 다른 것들과 결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격전을 만든 것은, 전차를 더 많이 가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차는 보병 지원 수단'이라는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항공기·통신과 섞은 군대였습니다. 전자사전을 만든 것은, 사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세 장의 낱말 카드를 억지로 섞어본 젊은이였습니다. 미래의 전장도 같은 원리로 열릴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군대가 아니라, 가장 대담하게 파괴하고 가장 창의적으로 섞는 군대가 주도권을 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익숙한 경계 앞에서 '왜 꼭 이래야 하는가'를 묻는 군인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아직 결합되지 않은 파편들이 놓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파괴하십시오. 그리고 용감하게 섞으십시오. 그 교차점에서,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전장의 문법이 탄생할 것입니다.

전환의 시대, 독일 연방군에서 다시 배운 장교의 역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는 독일군의 교육 현장을 경험하며

제11전투비행단 | 중위
김정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사흘 뒤인 2022년 2월 27일, 당시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연방의회 연설에서 이를 유럽 역사의 '시대적 전환(Zeitenwende)'이라고 규정했다. 독일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제한을 없앴으며,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Sondervermögen)을 조성해 무기체계와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간 유지해 오던 군축 기조에서 벗어나 유럽 내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국방비 지출국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숫자로 드러나는 국방비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초의 국가안보전략(2023년)과 군사전략(2026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 의회는 2025년 말,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단된 징병제의 부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자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진행된 독일 공군 장교학교 위탁교육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정책 문서나 뉴스 속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부대와 교육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공군사관학교의 교육과 독일 연방군(이하 '독일군')의 기초군사훈련 및 장교후보생 과정을 모두 거치며, 두 나라의 교육체계를 단순한 우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안보환경과 군사문화의 산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군의 변화가 조직 개편과 장비 현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식, 장교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역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독일에서 직접 보



고 경험한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1.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냉전의 종식 이후 독일군은 해외파병과 위기관리 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전면전과 영토방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독일은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직과 교육훈련 체계도 전투준비태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독일군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kriegstüchtig)' 군대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다영역 작전에 대응하고자 기존에는 지원부대 수준이었던 독일군의 사이버정보군(Cyber- und Informationsraum, CIR)이 육·해·공군과 동등한 네 번째 군종으로 격상됐으며, 군수·보급·의료 등 그동안 각 군에 산재해 있던 지원 업무가 통합지원사령부(Unterstützungsbereich)라는 단일 사령부 산하로 통합되며 작전 부대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전투 준비와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경험한 교육과정 또한 그러한 기조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기초군사훈련에서는 개인 장비의 변화가 인상 깊었다. 신형 방탄 헬멧과 방탄복(플레이트 캐리어)이 필자를 포함한 모든 훈련병들에게 신품으로 지급됐고, 전투 임무 시에 착용 가능한 컴뱃 셔츠 등의 전투 피복류가 충분한 수량으로 보급되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독일군이 전투원 개개인의 장비부터 변화시키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장교학교 과정에서는 기존에는 실시되지 않던 FPV 드론 조종 교육과 드론 재머 등을 활용한 대(對)드론 전술 훈련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기지방호 교육과 유사한 지휘실습 훈련에서도 단시간에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상황에 가깝게 72시간 동안 시나리오가 진행되며 후보생들의 분대 지휘 능력이 평가됐다.

교육 내용과 더불어 평상시에 교관들로부터 후보생들에게 자주 제시된 질문은 "징병제가 부활한 경우 어떻게 휘하 병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였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온 필자 또한 해당 질문에 대해 생도 생활 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였지만, 독일에서의 교육 기회 덕분에 고민해 볼 수 있었다.

2. 실전적 훈련은 여건에서 완성된다

기초군사훈련과 장교학교 과정에서 진행된 각종 교육과 훈련은 실전 상황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 공격을 가정하여 진지를 방어하는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언제나 공포탄을 사용해 훈련의 현장감을 높였으며, 비나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야외훈련은 계속됐다. 상담법 평가에서는 실제 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 위반 사례나 장병 간 갈등 상황을 가정해 피상담자 역할을 맡은 조교가 직접 연기했다. 교육생들은 정해진 답이 아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했다.





실전적 교육 및 훈련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충분한 수의 교관과 장비, 반복 숙달의 기회가 있었다. 교육생들은 실전에서 쓰이는 것과 동일한 무전기와 야간투시장비 등 실제 장비를 사용하며 훈련했고, 훈련 전에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장면을 미리 경험했다. 교관과 교육생의 비율이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돼 교육 중 발생한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점도 필자에게는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실전적인 훈련은 단순히 훈련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교관이 확보되고, 초과 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야 함을 깨달았다.

물론 독일과 우리나라는 안보환경과 병역제도, 실제 작전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육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한 전장 환경을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실제 장비를 충분히 사용하며 숙달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장교' 후보생

필자가 함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모두 '장교후보생'이었으며, 이들이 교육받고 생활하는 방식은 필자가 한국에서 경험한 사관생도 신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독일의 장교후보생들은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며, 휴가를 비롯한 개인 인사와 행정 업무를 직접 인트라넷을 활용해 처리했다. 각종 복지 제도와 복무 및 병영 생활에 관한 규정도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적용받았다.

교육과정 중에는 장교에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각 교육과 훈련이 장교의 임무 수행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항상 뒤따랐다. 이를 통해 교관들은 후보생들이 장차 장교가 될 사람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으며, 이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물론, 한국 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위 교육과 생활 교육, 군사훈련 모두 임관 후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거나 생도들 스스로 그 의미를 잊는 경우가 있었기에, 이러한 설명이 한국 사관학교의 교육에서도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독일군의 장교후보생들이 가장 다르다고 느낀 것은 대부분의 후보생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각종 수업과 훈련을 이끌어 나간 점이다. 단순히 교관의 수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생들이 직접 일과와 각종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격이나 글라이더 실습처럼 전문 교관에 의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수업 혹은 훈련의 경우에도, 기존에 병·부사관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후보생들은 조교나 보조 교관 역할을 맡았다.

후보생들이 준비한 교육과 일과가 끝난 뒤에는 언제나 교관의 평가에 앞서 동료 후보생들의 피드백이 먼저 이루어졌다. 동료의 시선에서 장점과 개선할 점을 듣는 과정을 통해, 교육을 준비한 사람은 자신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교육자와 부하의 입장을 돌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한 후보생들에게 직접 기획과 진행을 맡기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장교에게 필요한 주도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독일 장교학교에서는 장교를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자, 부하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양육자'이며,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자(교관)'로 설명했다. 이러한 장교상이 명확히 제시됐기 때문에 후보생들도 자신이 배우는 교육이 앞으로의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필자는 한국에서 생도로 생활하며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길 때도 있었고, 장교에게 요구되는 주도성과 적극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독일에서 후보생들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동료를 이끌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모습을 통해 장교는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또, 독일군의 교육은 교육생을 성인으로 대우하며 자율을 부여하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통제의 범위는 한국의 생도 생활보다 좁았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명확했으며, 이를 통해 자율과 권리의 보장은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다시금 배울 수 있었다.

독일에서의 교육을 통해 필자는 한국 공군사관학교의 교육과 장교의 역할을 새로운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독일에서 보고 느낀 점을 선·후배 전우들과 공유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군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준 국가와 공군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장교가 되겠다.

※ 독일 연방군 공군 장교학교 위탁교육

- 2007년 한·독 군사교육 교류협의에서 논의된 후 2010년(58기)부터 시행 중인 교육으로, 선발된 인원은 한국 사관학교에서 4년 교육을 마친 뒤 독일에 파견돼 총 17개월간 어학교육 6개월, 기초군사훈련 3개월, 장교후보생 과정 8개월을 이수한다.
- 독일 연방군은 한국과 같은 형태의 4년제 사관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며, 각 군 장교학교에서 장교후보생 교육을 실시한다.
- 독일 공군의 장교후보생은 장교학교에서의 장교후보생 과정을 수료한 후 연방군대학교 학위 과정과 병과별 전문교육 등을 거친다. 다만 병과와 양성과정에 따라 학위교육의 유무와 세부 교육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국가 존립의 물리적 보루 : 사관생도의 합리적 책무와 소명

생도 | 75기
남경현

국가는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번영, 평화의 숭고한 가치는 공동체로부터 비롯된 사회계약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 행복추구권과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는 바로 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사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는 방식에 대한 냉철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국제 사회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적 상태입니다. 장기화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유혈 사태는 거짓된 평화와 맹목적 믿음이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과 외교라는 소프트 파워(Soft-Power)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압도적인 하드 파워(Hard-Power)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셨으며,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역설했습니다. 즉, 물리적 강제력인 힘만이 국제 사회의 평화를 강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근간입니다.

과거의 전쟁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상무정신이 부재한 국가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으며 고립된 힘만으로는 외부의 거대한 힘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한반도 역시 호국 역사와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철저한 전투준비 태세와 강력한 군사력이었고 그 근간은 상무정신이었습니다. 사관생도들은 이러한 상무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해 적의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던 전략폭격부터 6.25 전쟁 당시 한반도의 영공을 수호했던 치열한 공중전에 이르기까지 현대전의 승리는 단일 국가의 독단적인 힘만으로 쟁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수행 능력을 독자적으로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이러한 물리적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로 맺어진 굳건한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우리는 극악무도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수많은 호국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유와 번영이라는 가치가 한반도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DMZ 목함 지뢰 사건과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는 적의 무기체계 고도화는 우리의 명백한 주적이 누구이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정전 중인 분단국가임



을 명확히 인식시켜 줍니다. 군은 이 국가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물리적 보루입니다. 공군을 이끌어갈 사관생도로서 제가 인식하는 조국은 맹목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제복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합리적 수호의 대상입니다.

사관생도의 책무와 사생관 : 명예와 신의 속의 생명

사관학교에서의 4년은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장교가 되기 위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입니다. 항상 가슴에 새기는 “명예와 신의 속에 살고,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사관생도 신조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생관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단체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엄격한 선후배 관계와 혹독한 군사훈련은 바로 명예와 신의를 몸소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상•하급자 간의 굳건한 신뢰가 없다면, 극한의 위기 속에서 단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상명하복의 질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명령 복종은 억압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기꺼이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는 방법이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택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무대에서의 교육과 훈련 속에서 사관생도의 확고한 사생관이 완성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다짐은 제복을 입고 지켜내야 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자신의 생존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것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정예 장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교로 임관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때로는 자신과 동료들을 사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 막중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내고 오직 임무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교의 사생관은 나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을 넘어 작전의 성공과 주변인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무거운 짐을 지닙니다. 전장에서 지휘관이 내리는 희생의 결단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무대에서 확립해야 할 사생관의 핵심은 죽음에 대한 맹목적인 영웅심이 아니라 언제든 생명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장이라는 혼란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않는 냉철함에 있습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전술적 결단을 내리고 즉각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결합 되었을 때, 비로소 헌신은 헛되지 않으며 조국 영공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임관을 앞둔 청년 사관생도들이 마주할 전장은 공중 우세를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전장이 다각화되었으며, 치명적 자율 살상 무기(LAWS)와 인공지능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무기체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타격하는 시대일수록 무력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통제는 반드시 인간인 장교의 몫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관생도는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전투원을 넘어 첨단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곧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관생도들이 강도 높은 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컴퓨터과학과, 항공공학과, 우



주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위 교육과 군사학을 치열하게 병행하며 지식과 전술적 안목을 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생도로서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에 성실히 임하며 그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로 무장한 미래 정예 공군 장교의 각오

졸업과 임관이 다가올수록 국민이 부여한 제복의 엄중함을 느낍니다. 사관생도들이 나아가야 할 공군 장교는 감정적인 애국심만으로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적의 도발 앞에서는 압도적인 화력을, 첨단 기술 앞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전문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관생도 생활 내내 마음속 깊이 새긴 공군의 핵심 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는 장차 장교로서 마주할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선후배와 동기 간의 끈끈한 신의로 팀워크를 다지고, 험난한 훈련에 맞서는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헌신과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미래 항공우주 전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전장과 명령에 대한 합리적 판단력.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남은 생도 생활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겠습니다. 이곳 공군사관학교에서 성장시킨 지성과 체력, 그리고 사생관이 조국의 영공과 우주를 지키는 가장 예리한 창이자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사관생도로서의 무거운 소명과 책무를 묵묵히 완수해 내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단련되다

필리핀 수탁생도 I 76기
안드레

내 인생의 모든 장은 무언가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필리핀을 떠났다. 몇 해 뒤에는 안락한 삶을 보냈던 카타르를 떠났다.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났고, 의학이라는 유망한 미래를 떠났으며, 마침내는 한국에서 훈련받기 위해 필리핀 통합사관학교를 떠났다. 한때 나는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고 믿었다. 이제는 지리적 국경이 가장 넘기 쉬운 국경이라는 것을 안다.

가장 큰 국경은 우리 안에 있다. 안락함과 책임감 사이, 망설임과 행함 사이, 그리고 지금의 나와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놓인 경계선. 나는 카비테주 이무스에서 태어났다. 필리핀에서 보낸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래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마침내 카타르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했다. 부모님은 한때 우리에게 줄 수 없었던 기회를 나와 누나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 힘써 일하셨다. 어머니는 임상병리사였고 아버지는 예전에 군인이었다. 지금 두 분은 모두 목회자이시다. 나는 그분들로부터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는 세 가지 가치를 배웠다. 존중, 지성,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이다.

카타르에서 자라며 나는 나 자신의 능력을 탐구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스포츠에 참여했으며, 높은 학업 성취를 유지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나에게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관찰하고, 적응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이미 국제생도로서의 삶을 준비시켜 주고 있었다. 열일곱 살에 나는 여동생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은 계속 해외에 남으셨다. 그 시기는 내 어린 시절의 다른 어떤 단계보다도 나를 더 크게 성장하게 했다.

부모님은 내 나이에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책임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집안 살림을 관리하고, 공과금을 처리하고, 여동생을 돌보는 것을 도왔으며, 학비를 감당하고, 학업 성적도 유지했다. 또한, 건물 공사의 감독도 경험했다. 나는 인부들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공사를 관리하며, 필요할 때는 직접 육체노동도 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했지만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을 것이다. 그분들은 나에게 신뢰를 주셨던 것이다. 그 신뢰는 리더십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되었다.

리더십은 계급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의 손에 맡겨지고, 실패와 태만과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된다.

생도가 되는 것은 원래 나의 꿈이 아니었다. 비행을 꿈꾸기 전, 나는 수술칼을 쥐는 꿈을 꾸었다. 나는 인간의 심장에 매료되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뛰기 시작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그 장기에.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달린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정밀함을 잃지 않는 외과의사들을 존경했다. 나는 심장흉부외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다. 그 준비 과정으로 간호학과에 입학해 뛰어난 성과를 냈고, 첫 학기 이후 대학 장학생이 되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했던 미래를 향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듯 했다.

그때 또 다른 길이 나타났다.

나는 필리핀 통합사관학교에 지원했고 첫 시도에 합격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나는 이미 간호학과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한때 내 미래를 규정했던 꿈을 뒤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나는 입대를 선택했다. 의학에 대한 내 꿈이 장교의 길로 진화했다. 외과의사는 수술실에서 생명을 맡는다. 장교 역시 종종 더 큰 불확실성 속에서 생명을 맡는다. 두 직업 모두 지성과 용기, 규율, 그리고 압박 속에서의 침착함을 요구한다. 도구는 다르지만, 책임의 무게는 그대로다. 필리핀 통합사관학교 첫 학기가 끝난 후, 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도 몇 명이 소집되어 해외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기회를 제안받았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선발 과정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

또다시 하나의 길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길이 열렸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의 가장 큰 어려움은 향수병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고,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자란 경험이 나에게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의 가장 큰 도전은 언어였다. 특히 학업에서 그러했다. 내 인생 대부분 동안 학업적 우수함은 나의 강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과목을 익히기도 전에 강의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다. 한국생도들은 어려운 개념에 곧바로 집중할 수 있었던 반면, 국제생도들은 언어 장벽을 넘은 뒤에야 그것이 가능했다.



늘 뛰어났던 사람에게,
그것은 겸허해지는 경험이었다.

사관학교는 나에게 과거의 성공에만 기반한 자신감은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자신감은 익숙한 강점들이 사라졌을 때조차 관찰하고 적응하고 배우고 다시 세울 방법을 찾아내는 데서 나타난다. 그것은 또한 나에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만해지지 않으면서 강점을 활용하고, 변명하지 않으면서 약점을 마주하는 법을. 현실은 불편하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장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그것을 개선할 용기를 지녀야 한다. 한때 나는 강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날 나는 강함이란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이라 믿는다.

판단 없는 강함은 무모함이 된다. 용기 없는 지성은 망설임이 된다. 유능한 장교는 언제 굳건히 서야 하고 언제 적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홀로 강해지지 않는다.

성무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내가 "애비님"이라 여기게 된 임다민 선배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 나를 돌봐주었다. 한국인 동기들 또한 의구심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은 사관학교 생활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대신 그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함께한 훈련과 공부, 지침, 실패, 그리고 발전을 통해 나는 리더십이 권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이들을 기억한다. 계급은 복종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인격은 신뢰를 얻어낸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는 나에게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가늠할 더 높은 기준을 주었다. 해외에서의 삶은 필리핀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약화시키





지 않았다. 오히려 거리는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군 복무가 특정 지도자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국가와 그 국민, 그리고 군복에 담긴 책임에 대한 충성이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나는 한국의 규율과 전문성,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추구하려는 결단력을 함께 가져가고 싶다. 그러나 국제 교육이 맹목적인 모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자신의 국민을 이해하고, 배운 것을 조국의 필요에 맞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필리핀 공군에서 가장 유능한 조종사이자 장교 중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학문을 넘어서는 지성을 지닌 장교, 즉 사람과 결과, 변화하는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미래의 부하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 모욕이 아니라 정직함을 받을 것이라 신뢰하기를 바란다. 두려움은 일시적인 복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존중과 신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끈다.

몇 년 전, 나는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이제 나는 더 잘 알고 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락함 대신 책임을, 변명 대신 진실을, 확실함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 보이는 것에 덜 신경 쓰고 유능해지는 것에 더 헌신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아직 내가 되고자 하는 장교에 미치지 못한다. 단련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결코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은 가장 큰 국경, 즉 내 안의 국경을 넘은 것이었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는 나에게 한국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조국이 필요로 하는 필리핀 장교가 되기 위해 도전하도록 만들었다.

ANYWHERE ··· ··· IS POSSIBLE

ANYWHERE IS POSSIBLE

THE ALL-NEW KOREAN AIR



BOARDING PASS

대한항공

KOREAN AIR


X2™ 기술.
가장 먼저 도착하고,
안전하게 복귀합니다.
혁신적인 속도, 항속거리, 기동성과 생존성으로
X2기술은 미래 임무 수행에서 헬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시코르스키의 X2 플랫폼은 K-방산의 발전과 엔지니어링, 제조,
개발 및 시험 전반에 걸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SIKORSKY
A LOCKHEED MARTIN COMPANY
©2026 Lockheed Martin Corporation. Approved for public release: distribution unlimited.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Great Possibility

대우건설

03



특별기획 I
정책운영 인터뷰 및 제언

KF-21, 전투기 세대교체를 넘어
I 편집위원회

AI, 공군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I 성무안보연구소

자주국방과 K-방산 I 김영산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안내

KF-21,
전투기 세대교체를 넘어 6세대 전투기 CCA 이끌 Transition Platform

편집위원회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소장 김성중」과의 대담



KF-21 '보라매'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산 전투기 개발 성공이라는 기술적 성취로만 볼 수 있고,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는 공군 전력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군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KF-21은 과거와 현재, 미래 항공우주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과거로 가면 2001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구상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이 독자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대담한 국가적 선택이었다.

전투기 개발은 단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넘어, 극한의 비행환경에서 항공기와 조종사, 센서와 무장이 하나의 체계전투로 작동하도록 통합하는 일이다. 비행제어, 항공전자, 레이더, 무장, 생존성, 시험평가, 양산체계가 모두 결합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 항공기술과 군 운용능력의 종합시험대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업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논란, 기술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 재정 부담, 국제



공동개발 문제로 사업은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다. “과연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은 오랫동안 따라붙었다. 그 질문 앞에서 KF-21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 현재로 오면 KF-21은 장기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공군 전력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해법이다. 미래로 가면 KF-21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차세대 전투기, CCA로 이어지는 항공우주력 발전의 기반이다.

“KF-21은 과거(Legacy)와 미래(Next Generation)를 연결하는 핵심(Key) 플랫폼”

Q

KF-21 국산 전투기 양산이 갖는 큰 의미와 성과는?

A

KF-21은 2001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구상이 장기간의 검토와 개발, 시험평가를 거쳐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계획을 천명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작전환경에 맞는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해 운용하고, 개량하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6번이 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해외 구매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해야 했고, 국내 기술 수준으로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성능 수준으로 개발해야 하는지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시기도 있었고, 좌초 위기를 가까스로 피해 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난관 극복을 통해, 이제 KF-21은 올해 9월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어 공군이 실제 운용할 전력화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발사업 하나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이제 실제 전력으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참

모부장으로서 2001년에 제시된 청사진이 25년이 지난 오늘의 KF-21로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 항공우주력의 청사진도 역시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KF-21은 과거의 도전의 결실이자, 현재의 영공방위의 전력이 될 것이며,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A

개발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나 고비가 있었다면?

전투기 개발은 사람과 기술이 함께 한계에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KF-21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큽니다. 전투기 개발은 도면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하늘에서 항공기가 설계대로 움직이는지, 항공기의 항공역학적 한계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다 등 항전시스템의 성능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며 그 과정은 언제나 긴장감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고받음각 시험은 전투기 개발시험비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시험비행에서도 항공기가 조종불능 상태에 진입했고, 가까스로 조종성을 회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항공기가 추락했다면 항공기 개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공군도 개발 과정의 한 축이었습니다.

비행시험평가 과정에서는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은 시험과목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적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위해 주말에도 쉴새 없이 개발시험비행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공중급유 지원을 통해 한 번의 출격을 통해 거의 3시간 가까운 비행시험 과목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험평가를 적기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방산업체와 연구기관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시험비행 조종사, 기술진, 정비요원, 공군 운용요원이 함께 만들어낸 전투기입니다. 이런 경험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KF-21을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과 시험평가 노하우 등은 차세대 전투기와 CCA(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개발의 기반(Transition Platform)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길을 열어냈기에,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KF-21의 적기 전력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F-4/F-5 장기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는 것입니다. 현재 관점에서 보면 KF-21은 장기운영 전투기인 F-4/F-5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는 핵심 전력입니다. 전투기 전력은 단순히 전투기 숫자만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정비사의 운용능력, 부품 확보 등을 통한 정비 여건 마련, 적정 가동률 유지, 비행기지 시설, 항공 무장 확보까지 모두 결합 되어야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발휘됩니다. 전력공백 또한 전투기의 도태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운영 전투기는 도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정비 부담이 커지고, 부품 확보가 어려워지며, 가동률과 작전 지속능력이 서서히 약화됩니다. 장기운영 전투기가 도태되는 시점에 신규 전력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심각한 전력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 전력공백은 공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공권과 공중우세의 약화는 지상군의 기동과 해군의 해상작전의 자유도 함께 제약되며, 결국 합동작전 전체의 안정성과 억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하면 항공우주력은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적 지휘부, 핵·미사일 시설, 이동식 발사대, 장사정포, 방공망 등 핵심 표적을 신속히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항공우주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입니다. 특히, KF-21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북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발사 전에 타격하는 Kill Chain의 핵심전력입니다. 기존 F-4/F-5 전력 대비 첨단 항전·센서체계를 기반으로 상황인식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핵·미사일 시설, 지휘통제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KF-21 도입에 따른 주력 전투기의 세대교체는 북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한층 배가시킬 것입니다.

"유인기와 무인기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문제"



Q

A

최근 전장에서는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 중심 항공우주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드론은 미래전의 핵심 전력입니다. 그러나 현대전은 동시에 제공권 확보와 공중우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중요성은 분명합니다. 최근 전쟁에서 드론은 감시정찰, 표적 획득, 기만, 제한적 정밀타격에서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군도 드론과 무인전력을 미래 항공우주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신속한 도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이 유인 전투기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마비시키고, 방공망을 제압하며, 전략적 중심을 타격하고, 전쟁 의지를 말살하여 최단시간내 최소희생을 통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통합된 항공우주력이 필요합니다. 유인 전투기, 스텔스기, 폭격기, 공중급유기, 항공통제기, 전자전, 정밀무장, 지휘통제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중요성을 보여준 동시에, 제공권과 공중우세의 부재가 전쟁을 장기·소모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항공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해 공중우세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혁신적인 드론 전력과 전술로 러시아를 괴롭히는데는 성공했으나, 전장을 주도할 충분한 항공우주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국 상공에서조차 공중우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양상은 포병, 드론, 참호, 방어선 중심의 소모전으로 장기화 되었습니다. 이는 공중우세가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과 해상작전의 자유, 나아가 전쟁 전체의 양상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임을 반증합니다.

이란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그리고 2025년에 있었던 미국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은 그런 점을 잘 보여줍니다. 고가치·고위험 표적을 타격하려면 장거리 침투능력, 정밀타격, 공중급유, 실시간 정보융합, 전자전, 조종사의 상황판단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美 공군이 차세대 무인·자율체계를 준비하면서도 F-15EX 같은 4세대 기반 최신 개량 전투기를 도입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계 최강의 공군도 유인 전투기를 단번에 무인기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무장 탑재량, 장거리 작전 지속능력, 네트워크 전투능력을 갖춘 유인 전투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플랫폼이 아닌 시스템(Integrated System)이 곧 경쟁력... KF-21은 미래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완벽한 테스트베드"



Q KF-21은 우리의 미래 항공우주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A

KF-21의 진가는 미래 한국형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미래 항공우주작전은 전투기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탐지 자산이 얻은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유인 전투기 조종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무인기가 위험지역에 먼저 진입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유인기와 무인기가 한 팀으로 싸우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는 당장은 우수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무장을 통합하거나 국산 무인기와 연결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국산 플랫폼입니다. 임무컴퓨터, 데이터 링크, 무장통합, AI Pilot, 무인편대기 통제능력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에 참여해 온 시험비행조종사들도 KF-21의 높은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화적 성능개량을 통해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 AI Pilot,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결합하여 미래 한국형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 가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공군은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과 운용경험을 차세대 전투기와 CCA 개발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KF-21을 운용하면서 얻는 경험은 다음 세대 항공우주력을 설계하는데 반영될 것입니다.

Q KF-21 이후의 청사진은 말씀해 주신다면?

A

2001년의 청사진이 KF-21로 현실화되고 있듯,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와 CCA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21 전력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공군은 KF-21을 기반으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와 CCA 개발로 이어지는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CA는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협업형 무인전투기입니다. 유인 전투기가 판단과 지휘의 중심을 잡고, CCA가 위험지역에서 정찰·기만·교란·타격 임무를 수행하며, AI가 임무계획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

조입니다. 조종사가 모든 위험을 직접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형 무인전투기가 위험을 분산하고 작전 반경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공군은 이러한 미래 전장 변화에 대비해 차세대 전투기와 CCA 개발 관련 기술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도 2001년의 구상이 오랜 검토와 기술개발, 시험평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차세대 전투기와 CCA 청사진도 꾸준한 기술기획과 투자, 작전개념 발전을 통해 2040~50년대 미래 항공우주력의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2001년의 선택이 오늘 KF-21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의 선택은 2040~50년대 대한민국 항공우주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AI 기반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되는 지금 이순간 미래 항공우주력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Q 기획관리참모부장으로서 보는 앞으로의 항공우주력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A 미래 항공우주력은 전투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KF-21, 차세대 전투기, CCA, 다층복합미사일방어체계, 우주전력, AI가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미래 전장은 항공,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이 연결되는 복합전장이 될 것입니다. 항공우주력도 전투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다층복합미사일방어체계, 우주 기반 감시정찰과 통신·항법 자산, AI 기반 표적식별과 의사결정 지원, 전자전과 사이버 능력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공중우세 전력뿐 아니라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정밀타격, 지휘통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적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타격하거나 요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자산도 미래 항공우주력의 기반입니다. 위성 기반 감시정찰, 통신, 항법, 기상정보는 항공우주작전의 정확성과 지속성을 높입니



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휘관과 조종사의 결심을 지원하며, 유인기와 무인기의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획관리참모부의 역할은 이런 전력들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작전개념, 전력소요, 예산, 기술기획을 장기적인 로드맵 안에서 맞춰야 합니다. 기획은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미래 안보의 시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Q KF-21은 방산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까?

A KF-21은 K-방산이 플랫폼 중심 수출을 넘어 미래형 전투체계 수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30년 이상 운영할 경우, 운영유지비는 최초 획득비용 대비 약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운영유지비는 해외도입 전투기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해외도입 전투기는 수리부속, 외주정비, 기술지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지만, KF-21은 운영유지비의 상당 부분이 국내업체로 환류되어 국내경제와 항공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은 전차, 자주포, 지대공미사일, 훈련기 등 우수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운용 신뢰성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방산 4대 강국으로 가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F-15/16)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오랜 기간 방산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플랫폼 자체도 뛰어나지만 Link-16이라는 전술데이터링크가 우수한 플랫폼을 연결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방산 경쟁은 장비 한 대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AI가 임무를 지원하고, 무인기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며, 센서와 지휘통제체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전투체계 전체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KF-21은 그 전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KF-21을 기반으로 CCA, AI Pilot, 데이터링크,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우주작전 운용개념을 함께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플랫폼 조립과 체계통합, 하드웨어 개발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AI, 데이터링크, 임무체계, 사이버보안,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훈련체계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KF-21은 국내 항공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방산 전반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공군의 DNA"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

항공우주력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공군은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948년 9월 15일, 공군이 미군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한 L-4 연락기들의 서울 상공 시위비 행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군 창군의 주역이신 최용덕 장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 강토 안에서 태극기를 그린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날았으면 하던 염원을 오늘 성취하고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태극마크를 단 비행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우리 하늘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F-21이 곧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만약 최용덕 장군님께서 이 장면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하게 됩니다. 공군의 역사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공사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첫 양산기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훨씬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전력계획,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무기체계 소요를 통해 20년, 30년 뒤의 공군을 만듭니다. 미래 공군의 청사진은 먼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머릿속과 책상 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안보에서 공군력의 역할이 큰 만큼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 공군력은 전투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와 CCA, 다층복합미사일방어체계, 우주전력, AI 기반 지휘결심체계 같은 핵심 능력들이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이 연결되는 복합전장에서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압도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세계 군사 선진국들을 빠르게 따라가는 Fast Follower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KF-21, 천궁 II와 같은 무기체계의 독자개발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가 먼저 길을 여는 First Mover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공군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정교하게 설계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AI, 공군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기획, 인력구조, 비행교육, 그리고 정비체계의 대전환

성무안보연구소

I. 도입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 역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은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을 넘어 전쟁 수행 방식과 군 조직 운영, 인력 운용, 교육훈련, 군수지원 체계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래 전장에서는 단순히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장 상황을 신속히 이해하고 최적의 결심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과 운영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는지가 전투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AI를 활용한 지휘통제 체계 고도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데이터 기반 인력구조 혁신, 지능형 비행훈련 및 군수지원 체계 구축 등 군사 전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공군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군종이다. 공군력은 첨단 기술과 복잡한 운영체계가 결합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미래 공군의 경쟁력은 항공기와 무기체계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휘통제, 인력, 교육훈련, 군수지원 체계의 혁신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운용 개념과 조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미래 공군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성무안보연구소는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공군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한 안보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공군 운영 패러다임의 전



환」을 주제로 제6회 안보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이 공군의 전략, 조직, 비행훈련, 정비 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미래 공군이 요구하는 새로운 운영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세계 주요 공군의 AI 적용 사례와 한국공군의 전략적 선택, 인공지능 시대 공군 병력구조 및 인력운용 혁신 방향, AI·MR 기반 비행훈련 체계 구현과 훈련 패러다임 변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군용 항공기 예측정비 확대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수훈 국방대학교 군사전략과 교수가 「세계 공군의 AI 적용 사례와 한국공군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AI 기반 군사혁신 사례를 분석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한국공군이 추진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조관호 공군정책자문위원은 「AI 시대, 공군 병력구조 및 인력운용 혁신 방향」을 통해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시대에 적합한 능력 기반 인력구조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강병철 성무안보연구소 부소장은 「AI·MR 기반 비행훈련 체계 구현과 훈련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AI와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미래 조종사 양성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홍철 한화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군용 항공기 예측정비 확대방안」을 통해 AI 기반 군수혁신과 항공기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AI 기술이 미래 공군의 전략·조직·교육훈련·



군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공군이 미래 안보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발표 내용

1. 세계 공군의 AI 적용 사례와 한국공군의 전략적 선택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이수훈 교수

첫 번째 발표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이 세계 주요국의 군사전략과 공군 운영 개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공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미래 전쟁의 승패는 단순한 무기체계 성능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속도와 지휘통제 능력의 우위 확보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I는 이러한 군사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이며, 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판단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이라고 설명하였다.

먼저 미국의 AI 기반 군사혁신 사례를 통해, 미국이 기존의 플랫폼 중심 전력 증강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핵심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지휘관의 관찰-판단-결심-행동(OODA Loop) 과정을 단축하는 결심중심전(Decision-Centric Warfare)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AI 기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통해 의사결정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군사력, 국가 기술력, 산업 역량, 동맹국 능력을 결합하는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과 연계되고 있으며, 미래 군사혁신에서는 민간 첨단기술과 국방 분야를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실제 AI 활용 사례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GIS Arta 시스템과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이 소개되었다. GIS Arta는 포병·드론·미사일 등 다양한 타격 수





단을 AI 기반으로 연결하여 기존 공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이며, 프로젝트 메이븐은 대량의 영상정보를 AI가 분석하여 표적 식별과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는 육·해·공·우주·사이버 영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감지-이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속하는 미래 지휘통제 체계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발표자는 AI 기반 데이터 통합과 상호운용성이 미래 전장 운영 방식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미국이 AI 기술뿐 아니라 군 구조와 전투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는 저비용·다량의 무인체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력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공군의 협동전투기(CCA)를 비롯한 다양한 자율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전장의 복잡성을 높이고, 적에게 지속적인 대응 부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군사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는 조직 개편과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과 민간 기술 생태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 기술 우위뿐 아니라 기술을 신속하게 군사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AI 기반 군사혁신 사례에서는 중국이 기계화와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 전쟁을 미래 군사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중국은 AI를 활용하여 시스템 파괴전, 다영역 정밀전, 인지전을 중심으로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네트워크화된 현대 전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적 지휘통제 체계를 마비시키는 능력과 빅데이터 기반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인지전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을 통해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DeepSeek 등 민간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지원부대 신설을 통해 AI 기반 정보 우세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다만 발표자는 중국의 AI 군사력 발전에도 일정한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첨단 AI 반도체 확보의 어려움, 핵심 소프트웨어 분야의 해외 의존성, 현대전 경험 부족 등은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석하였다. 이어 미국은 동맹과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형 AI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군민융합과 정보 우세 확보를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AI 전략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한국공군이 추진해야 할 전략적 선택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 전장에서 데이터와 AI가 전투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인 만큼, 국방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육·해·공군 및 동맹국 간 정보 공유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온톨로지와 통합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형적 킬체인 개념을 넘어 모든 센서와 타격체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킬웹(Kill Web)으로 발전해야 하며, KF-21과 협동전투기(CCA), 우주 감시체계 등을 연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AI 기반 인지전 대응체계와 안티드론 방어체계를 강화하여 미래 지능화 전장에서 정보 우세와 의사결정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미래 공군의 경쟁력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적보다 빠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결심 우위(Decision Superiority)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공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2. AI 시대, 공군 병력구조 및 인력운용 혁신 방향 | 공군정책자문위원 조관호 박사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인구절벽과 AI 기술발전으로 인해 미래 공군의 인력 운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기존의 병력 감축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 군사능력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능력 기반 인력구조 설계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미래 국방 인력정책의 핵심은 병력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AI와 유무인 복합체계가 중심이 되는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사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병력 감축을 국방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기보다 미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인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기존 국방 개혁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줄일 것인가"라는 공급 중심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앞으로는 "미래 군사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인력구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AI와 무인체계가 전력의 핵심 요소가 되는 미래 전장에서는 기



존 군 구조에 AI 기술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AI와 무인체계를 전제로 조직과 인력 운영 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부대 중심 조직에서 기능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단순히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병력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인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3년부터 개발하여 공군에 시범 적용한 능력 기반 인력구조 설계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해당 방법론은 부대별 임무수행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 조합을 탐색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장교·부사관·병 중심 인력 운용에서 벗어나 군무원, 예비군, AI 및 무인체계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군사능력을 능력 계층(Capability Layer), 임무 계층(Mission Layer), 업무 계층(Task Layer), 인력소요 계층(Manpower Layer)으로 체계화하고, 각 요소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휘관과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뿐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인력 구조 변화가 임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대대급 해군·공군부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별 인력 대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 전투부대는 간부 인력 감소 시 임무수행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AI 및 과학기술 기반 대체 능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는 군무원 활용, 비상근 예비군 운용, AI 기술 적용 등을 적절히 조합할 경우 병력 감소에 따른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 동일한 병력 감축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부대 임무와 기능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력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표자는 미래 인력구조 설계는 단순히 인원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인력 조합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군은 다른 군에 비해 AI 기반 군 구조 혁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하였다. 감시정찰, 지휘통제, 군수·정비, 정보 융합 등은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며, 향후 공군 전력 구조는 유인 플랫폼 중심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병력 구조 변화는 단순한 인원 조정이 아니라 군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미래 공군이 수행해야 할 능력과 임무를 기준으로 인력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공군 특성을 반영한 능력 평가지표를 보다 세

분화하고, 지휘관의 경험적 판단뿐 아니라 정보 처리량, 교전 시간, 장비 가동률 등 객관적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기반 인력기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공군 인력구조 설계를 위한 단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공군 능력-임무 체계를 정립하고 시범 부대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며, 중기적으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여 새로운 인력구조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평가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공군 차원의 데이터 기반 인력기획체계를 정착시키고, 미래 군사능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미래 공군 인력구조 설계의 핵심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설계와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력정책은 병력 감축 자체가 아니라 미래 군사능력의 유지와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3. AI·MR 기반 비행훈련 체계 구현과 훈련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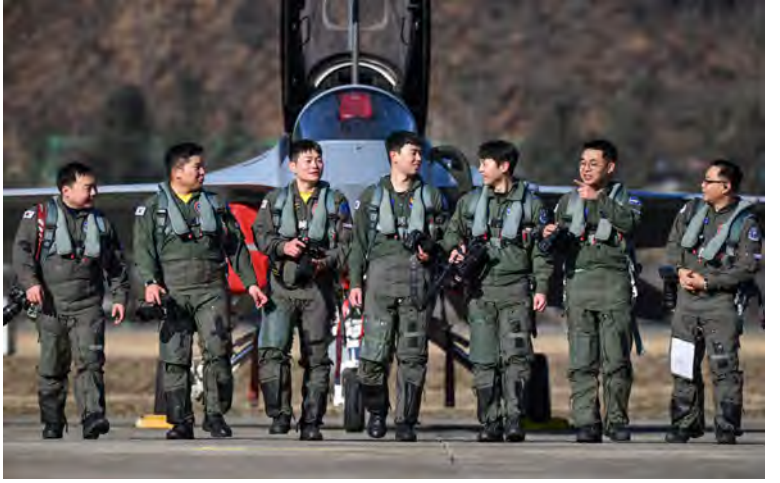
| 성무안보연구소 부소장 강병철 박사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공군 조종사 양성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기존 교관 중심의 비행훈련 체계에서 벗어나 AI와 MR(혼합현실)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비행훈련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미래 공군의 경쟁력은 우수한 조종사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양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AI 기술은 인간 교관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교육 과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종사 개개인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미래 공군이 직면하게 될 조종사 양성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2030년대 중반 이후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조종사 확보와 양성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교관 중심 일대일 교육 방식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와 고품질 교육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항공사고 분석을 통해 착륙 및 장주 비행 단계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이며, 특히 초급 조종사의 중도 탈락이 집중되는 핵심 교육 단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착륙 과정은 비행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고 평가 기준을 명확



히 설정할 수 있어 AI 기반 분석과 반복 학습 효과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고 제시하였다.

이어 국내외 AI·가상현실 기반 비행훈련 혁신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 공군의 PTN(Pilot Training Next) 프로그램은 기존 고가 시뮬레이터 중심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VR 기반 반복훈련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AI는 조종사의 시선 추적, 행동 분석, 생체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VR 기반 교육이 기존 강의식 교육 대비 학습 속도 향상, 공간인지 능력 개선, 실제 비행에 대한 자신감 향상, 첫 단독비행까지 소요 시간 단축 등 다양한 교육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국내에서도 강화학습 기반 AI 적기와 고실감 비행시뮬레이터 개발이 진행되면서 AI 기반 교육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발표의 핵심 내용으로는 AI·MR 기반 비행훈련 체계의 운영 개념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해당 체계가 단순히 새로운 교육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분석–학습이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되는 통합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훈련 단계에서는 조종간과 러더 등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물리적 조작 환경을 활용하여 조종사의 근육 기억을 형성하고, 언리얼 엔진 기반 MR 환경을 통해 활주로와 비행 상황을 고해상도로 구현하여 시선 처리와 깊이 자각(Depth Perception) 능력을 반복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조를 설명하였다.

또한 AI는 NASA 검증 비행 역학 엔진(JSBSim)을 기반으로 기류, 양력, 풍향 등 다양한 비행 환경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훈련생의 조종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AI 지능형 교관 기능을 활용하여 이상 조작 상황에서는 음성 기반 조언을 제공하고, 강풍·엔진 이상·조류 충돌 등 실제 비행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황을 안전하게 모의함으로써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발표자는 AI 기반 훈련체계가 인간 교관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 교관이 최종 통제권을 유지하는 구조를 통해 AI 활용성과 비행교육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AI·MR 기반 비행훈련 체계가 미래 공군 조종사 양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존 비행훈련이 교관의 경험과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미래 훈련체계는 훈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학습 수준과 취약 요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중심 교육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AI 기반 분석 체계는 훈련생의 조종 입력, 시선 이동, 비행 패턴, 상황 판단 과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반복 훈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실제 비행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비상 상황을 가상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조종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AI 기반 비행훈련 체계의 단계적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초기에는 이착륙 등 기초 비행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이후 기존 시뮬레이터와 연계하여 교육부대 전반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실기동(Live)–가상(Virtual)–구성(Constructive) 환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LVC 통합훈련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미래 공군의 조종사 양성 경쟁력은 단순히 새로운 교육 장비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의 훈련·분석·학습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통합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적 자원 환경에서도 정예 조종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4. AI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군용 항공기 예측정비 확대방안 | 한화연구소 이홍철 박사

네 번째 발표에서는 AI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활용한 군용 항공기 예측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공군 전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수지원 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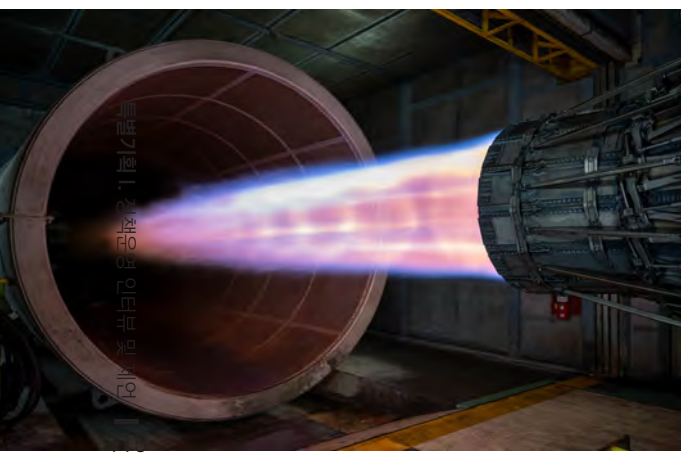
발표자는 미래 공군의 전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군수지원 체계가 함께 발전해야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AI 기반 예측 정비는 항공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정비 시점을 판단함으로써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정비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하였다.

먼저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디지털 엔지니어링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국방 군수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무기체계의 설계부터 운용, 유지보수까지 전 수명주기를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하는 핵심 요소이며, 국방 분야에서도 상태 기반 정비(CBM+)를 중심으로 무기체계의 가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 기존 정비 방식과 예측 정비 방식의 차이를 설

명하였다. 기존 주기적 정비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이지만, 예측 정비는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잠재적 결함 발생 시점과 잔여 수명을 예측하여 최적의 정비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비를 줄이고 예상하지 못한 고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성과 가동률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미 공군의 PANDA(Predictive Analytics and Decision Assistant)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반 분석을 통해 부품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공급망 운영까지 최적화함으로써 정비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현재 우리 군 정비 정보체계가 가진 한계도 제시하였다. 현행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는 장비 상태와 정비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하위 구성품 단위의 상세 이력 관리와 신뢰성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AI 기반 상태 진단과 예측 정비 적용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품별 결함 원인과 운용 환경에 대한 데이터 축적 부족으로 평균고장간격(MTBF)과 잔여 수명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간에 걸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 중인 엔진 수명주기관리 (ELMP, Engine Life Management Program)와 엔진 건전성 관리(EHM, Engine Health Management)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였다. 국내 항공 엔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비행 데이터와 정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엔진 열·응력 해석과 저주기 피로(Low Cycle Fatigue) 분석을 통해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부품 수명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단순한 이벤트 기록과 경향 분석 수준을 넘어 엔진 내부 센서를 활용한 가스경로 분석(GPA), 오일 상태 및 마모 입자 분석, 진동 모니터링, 잔여 수명 예측 알고리즘 등을 통합한 디지털 트윈 기반 Off-board PHM(Prognostics & Health Management)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내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현황도 소개하였다.

국내에서는 유도무기 및 무인기용 소형 엔진 개발을 통해 설계 및 제작 역량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6,000lb급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핵심 설계기술과 소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팬, 고압압축기, 연소기, 터빈, 가변배기노즐 등 주요 구성품 설계기술과 저피탐 설계기술



확보와 함께, 엔진의 설계·시험·운용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항공기 정비 패러다임은 기존의 사후 정비와 계획 검사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기 상태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정비를 수행하는 상태 기반(On-Condition) 예측 정비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며, 향후에는 항공기의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잔여 수명을 예측하여 최적의 정비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비 비용 절감뿐 아니라 항공기 가동률과 임무수행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미래 군수혁신의 핵심 목표라고 제시하였다.

3. 한국 공군에 주는 정책적 함의

이번 「AI, 공군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세미나는 AI 기술이 단순한 신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미래 공군의 전략, 조직, 교육훈련, 군수지원 체계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네 개 발표를 종합하면, 미래 공군 발전을 위해서는 AI를 활용한 개별 분야의 개선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미래 공군은 AI 기반 데이터 중심 전장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 전쟁에서는 무기체계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신속하게 수집·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빠르게 결심과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표준화, 육·해·공군 및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체계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플랫폼 중심 전력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센서와 지휘통제 체계, 타격체계를 연결하는 지능형 킬웹(Kill Web) 개념으로 발전하고, 유무인 복합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작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AI 시대에 적합한 공군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 공군의 인력정책은



단순한 병력 감축이 아니라, 미래 군사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능력 기반 인력구조 설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무와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력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AI와 무인체계, 군무원, 예비전력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력 활용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소요와 임무 수행 효과를 평가하는 데이터 기반 인력기획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조종사 양성체계와 교육훈련 방식 역시 AI 기반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미래 공군의 핵심 전력인 조종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관 중심 교육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AI·MR 기반 반복훈련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AI는 인간 교관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교육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LVC 통합훈련체계로 발전시켜 실전과 유사한 훈련 환경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 전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군수지원 체계 혁신이 요구된다. 미래 공군의 전력 운영 능력은 항공기 확보뿐 아니라 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AI와 디지털 트윈 기반 예측 정비 체계를 발전시키고, 항공기 및 엔진 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상태 기반 정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기 가동률을 향상시켜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전력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공군 경쟁력은 특정 기술이나 장비 하나를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AI를 중심으로 전략 개념, 조직 구조, 인력 운영, 교육훈련, 군수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종합적인 혁신 역량 확보가 핵심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AI를 활용하는 공군”을 넘어 “AI 기반으로 사고하고 운영되는 공군”으로의 전환에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한국공군은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군사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래 안보 환경에서 요구되는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과 K-방산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한 제언

전 방사청 대변인 I 30기
김영산

필자는 지난 34년간 공군(21년)과 국방부(3년), 방위사업청(10년)에서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직책 등을 재직하였다. 육·해·공군 무기체계 KF-16사업(공군86항공전자정비창,소프트웨어지원소), F-15K 1차사업, 공대공유도탄(AIM-9S/M/X,AIM-120B/C), 중·장거리공대지유도탄(AGM-65D/G, AGM-142, SLAM-ER, TAURUS), 중·장거리공대함유도탄(AGM-84G/L)사업, 홍상어 대잠미사일 사업, 지상표적 정밀타격유도무기(SPIKE)사업 등 120여개 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관리를 하여 적기 전력화시켰다. 전력지원체계(구 비무기체계) 2000여개 사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계약관리를 하여 성공적으로 적기 구매하여 각군에 제공하였다.

또한 최첨단 하이테크(High-Tec) 무기체계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미래 최첨단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위한『현대항공무장편람』및『현대항공우주무기체계』책자를 발간/배포하여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 하였다.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 전단계를 경험하고 현장 지휘하며 고뇌하고 실천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K-방산의 세계 4대강국 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범정부 “원스톱 원팀(One Stop One Team)” 지원체계 구축 필요

K-방산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신성장동력으로서 입지를 굳힌 상태이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율 80%이상 달성은 자주국방과 수출 자유도의 주춧돌이다.

현재 T-50, FA-50, KF-21 등 국산 전투기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 II, 잠수함 등 K-방산의 간판 무기체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연일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뒤에는 핵심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숨어 있다.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주국방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 국산화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은 전시 상황에서 공급망 단절 시 무기체계의 가동률 저하로 직결된다. 독자적인 부품 수급 능력을 갖춰야만 진정한 자주국방 영공·영토 방위가 가능하다.

수출 독자성 및 수출승인(E/L: Export License) 통제권(Export Control) 극복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수출 시 외국산 부품(특히 미국산 부품에 적용되는 ITAR/무기수출통제법(AECA) 등 수출허가 승인 제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3국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제약이 따른다. 우리가 온전한 수출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는 국산화가 필수적이다.

K-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기관{국방부, 방사청(ADD/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교부}과 방산업체, 국회, 산·학·연이 원스톱 원팀(One Stop One Team)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요 국산화 무기체계 수출시 우리정부는 경쟁력 있는 산업협력 방안 마련과 사업 대응을 위해 범정부 방산협력 TF를 구성·운영해야한다. 이를 통해 산업협력, 기술협력, 공급망 연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 및 제시함으로써, 단순 플랫폼 제안을 넘어 종합 패키지 수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국산화 무기체계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성실히 수행한 무기체계 국내연구개발(R&D)의 실패 및 지연을 용인하는 성실수행 인정제도에 관한 번규 제정이 필요하다.



2. 명품 무기체계 개발의 초석: TRA/MRA 제도의 법제화 필요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냉철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필자가 방위사업청에서 10년간 재직할 당시 수년간 깊이 연구하여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하는 성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 K-방산 무기체계가 합참에서 소요결정된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사업추진방법결정)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연구 단계와 정책기획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 시, 국내 연구개발(R&D)의 가능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종류별 '기술성숙도평가(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와 '제조성숙도평가(MRA,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필자는 신뢰성 있는 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 4월 6일, 기술성숙도평가(TRA) 및 제조성숙도평가(MRA) 지침을 제정하는 데 기여 하였다. 이 제도는 무기체계의 품질관리와 사업추진방법(국내연구개발, 국외구매) 결정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국산화율을 끌어올렸고, 오늘날 명품 K-방산 무기체계의 수출 활성화를 이끄는 견고한 기반이 되었다.

이제는 이 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고도화를 위해 규정 단계를 넘어선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TRA/MRA 제도는 국산화 개발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3. 무기체계의 '심장과 두뇌'에 대한 기술 주권 확보 및 항공무장 국산화 필요

기술 국산화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파급력이 큰 분야는 무기체계의 심장과 두뇌 역할을 하는 독자적인 자산 확보이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형 플랫폼 전투기인 KF-21 개발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항공 무장 분야의 국산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① 독자적 항공무장 국내연구개발(R&D)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KF-21 사업의 국산화율 목표치(약 65%) 범주 안에는 초기 항공무장 11종에 대한 '체계연동비'만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뿐, 정작 항공무장 자체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R&D)하고 시험평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천룡 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의 체계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이 두 가지 유도탄을 제외한 여타 필수 항공무장들 역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국내 연구개발(R&D)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 플랫폼과 무장 간 통합 체계연동 계획 및 국방예산 반영 필요

전투기 플랫폼의 가치는 탑재되는 무장의 파괴력과 체계 연동에서 나온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국내 연구개발이 필요한 항공무장들에 대해 '전투기 플랫폼과 항공무장 간 통합 체계연동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이에 소요되는 항공무장 체계개발비, 체계연동비, 그리고 가혹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시험평가 비용을 정부 국방예산(방위력개선비)에 빈틈없이 전폭적으로 반영해야만 완전한 국산 명품 전투기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진다.

③ 첨단 센서 및 국방 AI·반도체 파운드리 공정 확보

아울러 현장의 눈과 두뇌인 가스터빈 엔진 기술의 국산화,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 및 전자전 대응 고정밀 국방 항법장치(GPS)의 완전한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구동할 국방 AI 알고리즘과 이를 하드웨어적으로 뒷받침할 고신뢰성 '국방 반도체'의 국내 설계 및 파운드리 제조 공정 인프라 구축까지 완비하여 완벽한 기술 주권을 선언해야 한다.

4. 우크라이나·이란전의 교훈: 국방 AI와 드론 중심의 신(新)전쟁 패러다임 전환 필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이스라엘 분쟁은 현대 전장의 패러다임이 첨단 플랫폼 중심에서 '국방 AI와 드론' 중심의 비대칭·저비용·고효율 양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전쟁이 고가의 유인 전투기와 전차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저비용의 자폭 드론과 군집 드론이 전차의 상부를 파괴하고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신(新) 패러독스 전쟁 양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대한 교훈과 정책적 숙제를 던져준다.

① 국방 AI 기반의 저비용·고효율 공격 및 안티드론(Anti-Drone) 체계 구축

우리는 소형 공격 드론 및 '군집 드론(Swarm Drone)' 기술을 조기에 전력화하여 대량의 비대칭 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적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핵심 시설과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 재머(Jammer), 그물망 등을 통합한 다층적 '안티드론 체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특히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0.1초 내에 적 드론을 식별·요격할 수 있는 국방 AI 기반의 자율 방공 제어 기

술은 미래 전장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② 드론·안티드론 국산화 및 전력화를 위한 국방 예산 구조조정과 집중 투자

이러한 첨단 드론 생태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필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GDP 대비 3.0%로의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2026년 기준 2.4% 수준(약 65조 8천억 원)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국방 예산 구조로는 급변하는 드론 및 안티드론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증액된 국방 재원을 활용하여 가성비가 높은 드론·방공 무기체계의 국내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기존의 과도한 플랫폼 위주 예산 구조를 'AI·소프트웨어·드론 유무인 복합체계(MUM-T)'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예산 구조조정 및 국방예산 증액을 단행해야 한다.

5. 자주국방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정 국방비(GDP 대비 3.0%) 확보 필요

앞서 언급한 무기체계 국산화, 항공무장 R&D 예산 사각지대 해소, 국산화율 80% 이상 달성과 첨단 기술 주권 확보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방 재원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필자는 일찍이 2012년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GL5) 연수과정에서 최우수상인 외교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한 논문 『통일한국 자주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국방비 산정과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필요한 적정 국방비 산정의 논리를 정립한 바 있다. 당시 당위성을 제시했던 'GDP 대비 2.7%~3.0% 수준의 단계적 증액' 논리는 국정과제와 지표에 반영되어 국방예산 증액과 튼튼한 안보의 주춧돌이 되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총액 기준 약 65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도(2.3%) 대비 약 0.1%p 상승한 GDP 대비 약 2.4%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예산이 증액 기조에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라는 국가적 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과거 필자가 연구한 논문에서 정립했던 'GDP 대비 3.0%'



로의 국방예산 증액은 현시점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필수 과제이다. 확충된 예산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연구개발(R&D)와 핵심 기술 국산화에 최우선 투자되어 방산 성장과 자주국방의 핵심 동력으로 치환되어야 한다.

6. 방산 시장의 블루오션, MRO 사업의 전략적 확장

무기체계는 한 번 판매하면 끝나는 일회성 상품이 아니다. 전투기나 잠수함 같은 첨단 무기체계는 도입 비용보다 도입 후 30년 이상 운영·유지하는 비용(LCC, 수명주기비용)이 2~3배 이상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은 방산 시장의 '마르지 않는 금맥'이다.

수출 국산화와 MRO의 선순환: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앞서 강조한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핵심이다. 국산화된 부품이 완비되어야만 수출국에 신속하고 저렴한 후속 군수지원(PBL)을 보장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방산 기업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MRO 거점 구축: 수출 지역별로 현지 MRO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및 AI 기반 예측 정비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K-군수지원 패키지'를 무기 수출과 함께 동시 공급해야 한다.

7. 기대효과 및 결언

종합하면, 자주국방과 K-방산수출 세계 4대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중심의 개별 대응을 넘어, 정부가 주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범정부 차원의 원팀 체계를 통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외교·안보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수출의 질적 순준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K-방산은 단기적인 수출 성과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무(星武)의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 "김율곡"이라는 과분한 별칭을 얻으며 국방 전력증강 전선에서 뛰어온 필자는 확신한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이상 달성과 이를 견인할 TRA/





MRA 제도의 법제화, 그리고 GDP 대비 3.0% 수준의 적정 국방비 확보는 단순한 산업적·재정적 목표가 아니다.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튼튼한 '자주국방'을 확립하고, 당당히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유일한 지름길이다.

우리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동문 여러분이 계신 하늘과 땅, 연구소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 거대한 변화의 불씨를 지펴 주시길 기대한다. 정부, 기업, 군, 그리고 산학연이 하나로 뭉쳐 기술 주권과 적정 국방 재원을 확보하는 그날까지, 필자 또한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할 예정이다.

호국우주의 성무(星武) 정신이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과 방산수출 세계 4대강국 조기 달성을 위해 방위산업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한번 회원은 영원한 회원!!

전역을 명 받으셨어도 군인공제회 혜택은 계속됩니다~~

전역하시는 회원님들은 주목해 주시지 말입니다.



연금식 분할급여

▼ 퇴직급여를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연금처럼 받는 제도 ▼

안전성	높은 이율	세제혜택	제2의 연금
군인공제회법 제 15조 에 의거	연복리 4.90%(매년지급식) 4.79%(매월지급식) (변동금리, 2025. 7. 1부)	비과세 / 저율과세 +전역(퇴직) 시 퇴직급여적용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공적연금 부족분 보완

가입자격	퇴직급여 회원으로서 전역(퇴직) 또는 탈퇴 시 퇴직급여금 세후 수령액이 1,000만원 이상인 회원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원 단위)

세부사항은 QR 및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중도해약 금리 : 약정금리의 100% 해당액

※ 가입 후 지급기간, 주기, 방식(원금 / 원리금 균등), 가입금액 최대 5회 변경 가능

연금식 분할급여 예시표(1억원 예치, 원리금 균등)

매월 지급식	가입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지급금(월)	184	104	64	52
	평균 지급이자(월)	20	21	23	24

(2026. 4. 1. 기준, 단위: 만원, 세전)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26년 7월 1일 부 금리 인상

▼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주는 저축 제도 ▼

안전성	높은 이율	중도해약 가능
군인공제회법 제 15조 에 의거	연단리 4.60% (세전, 2년 만기) (고정금리, 2026. 7. 1부)	1년 이상 가입 시 1년 적용금리 100% 지급

금리

(세전 / 연단리)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		매월 지급식	
	기존	인상	기존	인상
2년	4.20%	4.60%	4.12%	4.50%
1년	4.00%	4.40%	3.92%	4.31%
6개월	3.50%	3.90%	3.44%	3.83%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비과세종합저축 포함)

세부사항은 QR 및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현역·예비역 회원 저축 적립형

▼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제도 ▼

안전성	높은 이율	중도해약 가능
군인공제회법 제 15조 에 의거	연복리 4.90% (세전) (고정금리, 2025. 7. 1부)	1년 이상 가입 시 1년 적용금리 100% 지급

가입금액	월 5만원 이상 1천만원 한도(비과세종합저축 포함) * 1만원 단위 / 1인 최대 20건 가입가능

세부사항은 QR 및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중도해약 금리(가입기간별 상이)

- 6개월 미만 : 적용금리의 5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적용금리의 67%
- 1년 이상 : 적용금리의 100%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여유자금을 증식하고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

안전성	높은 이율	제2의 연금
군인공제회법 제 15조 에 의거	연복리 4.90%(매년지급식) / 4.79%(매월지급식) (변동금리, 2025. 7. 1부)	공적연금 부족분 보완 연금식 분할급여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원단위, 비과세종합저축 포함)

세부사항은 QR 및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중도해약 금리(가입기간별 상이)

- 6개월 미만 : 적용금리의 5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적용금리의 67%
- 1년 이상 : 적용금리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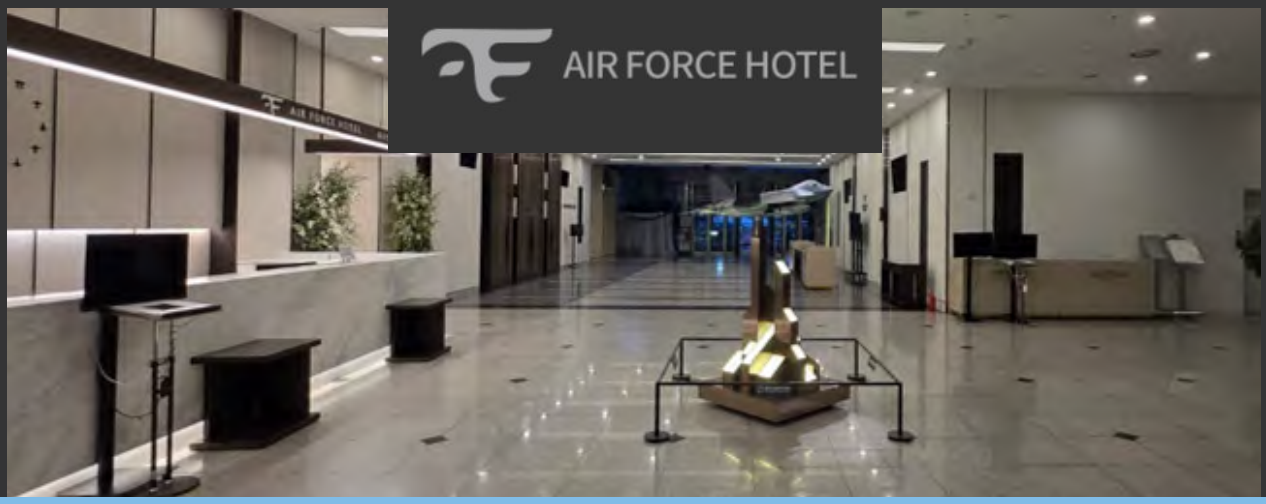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예시표(1억원 예치, 원리금 균등)

매월 지급식	가입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지급금(월)	184	104	64	52
	평균 지급이자(월)	20	21	23	24

(2026. 4. 1. 기준, 단위: 만원, 세전)

고객센터 1544-9090, 1599-9090 홈페이지 www.mmaa.or.kr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차별화 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wedding service

여유롭고 럭셔리한 웨딩서비스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웨딩홀
국내 최고 셰프가 준비하는 뷔페요리
사진/드레스/메이크업 토탈 서비스
지방 하객을 위한 객실 지원
스카이라운지 뒷풀이 모임 가능

big
& middle banquet

최고의 품격을 갖춘 중/소 연회
동기회,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최적화
양식, 중식, 한정식, 뷔페 등 다양한 메뉴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프리미엄급 요리
시중호텔 대비 30~50% 가격



AIRFORCE HOTEL
웨딩/단체행사/동창회/송년회/중.소 연회
예약문의 02-844-0336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안내

현충원 안장 자격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한 국가 공무원(경찰, 소방관 포함), 2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사회공헌자 등이며, 독립유공자 및 특정 유공자는 안장 대상이 다르거나 심사를 거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병적기록 이상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생전 안장도 가능합니다.

주요 안장 대상자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인, 6.25 참전 유공자 등
- 국가 공무원: 순직·공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포함)
-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군 복무 후 사망한 자 (배우자 합장 가능)
- 국가사회공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기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주요 인사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 병적기록 이상자: 탈영, 징계 등 기록이 있는 자 (심사 후 결정)
- 국적상실자: 독립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신청 및 심사 절차 (생전 안장 포함)

- 신청: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서울현충원 홈페이지(snmb.mil.kr),지방 보훈관서 방문/우편 신청
- 심사: 병적/신원 조회,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시)
- 결과 통보: 신청자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 안장: 화장 후 안장 (개별 또는 합동 안장)

유의사항

- 증명 책임: 법원 판결에 따라 안장 대상, 입증 책임 (유족 측에 있을 수 있음)
- 대상 확대: 2024년부터 경찰/소방관 30년 이상 재직자도 안장 자격이 확대됨
- 배우자 합장: 유족이 원할 경우 합장 가능, 사실혼 배우자 (심의 후 인정될 수 있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국립묘지안장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 아래의 업무 흐름,처리 절차를 구분 확인

Step1. 신청 및 접수신청인 → Step2. 결정 및 통지 국가보훈부 → Step3. 안장 국립현충원(호국원)

• 신청 및 접수

1. 안장대상: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사망한 사람 (배우자 합장 가능)
2.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서 신청
   - 서울현충원(국방부 소관) 인터넷신청: 홈페이지 (www.snmb.mil.kr) 에서 신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3. 구비서류(안장식 당일)
   -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1부
     ※ 국립묘지 이장: 화장증명서 및 개장신고필증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봉안당으로 안장하고 있으며, 봉안묘는 대전현충원만 가능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 및 문의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소재지	문의처
국립서울현충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02)826-6238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시 유성구 갑동	042)820-7051
국립영천호국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경북 영천시 고경면	054)330-0850
국립임실호국원		전북 임실군 강진면	054)330-0850
국립서울현충원		경기 이천시 설성면	031)645-2336
국립산청호국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055)970-0770
국립괴산호국원		충북 괴산군 문광면	043)830-1177

• 안장대상 여부 결정

1.병적 및 범죄경력 조회 등 대상여부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안장 약 1일, 이장 약 30일
2.신청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결과 통지

• 안장 일시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현충원(호국원)에 문의]



The Innovating Pioneer for a Sustainable Tomorrow

We create sustainable technologies to protect human-beings and our planet.

Hanwha Aerospace

04



특별기획 II
전장환경과 과학기술

공군,그리고 미래 다영역 작전 I 공평원

AI 시대 전장의 게임체인저 드론 I 윤용현

하늘의 방패가 멈춰 세운 거인의 진격 I 김인승

2026년 중동전쟁을 바라보며 I 이정환

자주국방의 날개를 펼치다 I 노지만

공군, 그리고 미래 다영역 작전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I 33기
공평원

현대전에서 항공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순한 정찰 비행에 국한됐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항공력은 지상군과 해군을 지원하는 보조 전력을 넘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독립 전력이자 전장 주도권의 지배자로 자리 잡았다.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중우세 확보다. 공중우세를 확보하지 못한 측은 적의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에 노출되어 지상 및 해상 작전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제한을 받게 된다. 즉, 대부분의 지상 및 해상 작전에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며, 공중우세를 확보한 측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동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걸프전과 코소보 전쟁에서 입증되었듯, 압도적인 항공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쟁 초기 전장 주도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두 번째로 항공력은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특성을 살려 스텔스 전



투기, 무인기(UAV),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활용해 전·후방의 경계 없이 적의 핵심 지휘부, 통신망, 보급로 등 전략적 중심을 실시간으로 정밀타격함으로써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조기에 마비시키는 핵심 수단의 역할을 한다.

셋째로 조기경보기, 정찰기, 무인항공기 플랫폼은 고고도에서 전장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지휘부에 제공한다. 항공력이 제공하는 고도의 정보력은 전장의 안개를 제거하고,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중심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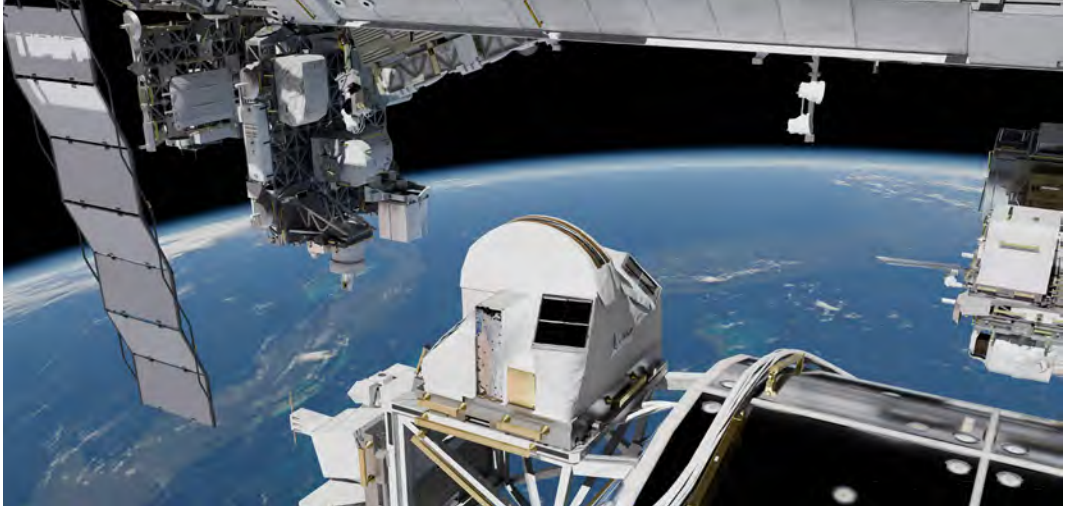
넷째로 항공력은 지구 반대편의 위기 상황에도 수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대형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통한 신속한 병력 전개와 끊임없는 군수 지원은 작전의 템포를 유지하고, 아군의 전투 지속 능력을 보장한다. 현대전에서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특히 최근의 항공력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와 결합하며 다영역 동시 통합전의 핵심 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력의 위상이 변함에 따라 등장한 다영역 작전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잠재적 적대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고 과거 미국이 수행했던 전쟁 방식을 분석하여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전 영역에서 미국과 다중의 교착상태(Stand-off)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군사당국, 특히 육군과 공군은 기존의 공지전투 개념으로는 적대국의 군사적 능력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대체하고 전 영역에서 군사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다영역 작전을 발전시키고 있다.

다영역 작전은 정밀하게 조정된 부대태세, 다영역 부대의 운용, 그리고 작전적·전술적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공간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적에게 복합적인 딜레마를 강요하고 아군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여 적의 대응 능력을 극복하는 작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및 전자기 스펙트럼 등 모든 영역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쟁 수행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핵심적인 목표 요소는 전통적인 물리적 영역(육·해·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영역(우주·사이버·전자전)을 동등한 전장으로 간주하는 영역의 확장과 여러 영역에서 창출되는 효과(타격, 재밍, 해킹 등)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실시간으로 집중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수렴(Convergence), 그리고 적이 구축해 놓은 강력한 방어망 때문에 아군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교착 상태 타파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전략의 변화, 그리고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고려할 때, 우리 한국군도 다영역 작전에 집중해서 미래 군사력 건설과 운용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인 항공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공 방어체계, 장사정포, 대함 미사일 등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을 강화해 왔



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을 바탕으로 교착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보유한 모든 종류의 능력을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 육군과 해군, 공군의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합동작전의 개념을 초월하여 각 군의 능력을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다영역 작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과 GPS 교란 등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사용을 천명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기파(EMP) 등을 통해 발사 체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와 전자기 영역에서의 작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는 다영역 작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활용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주의 활용 가능성은 국가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 재난관리, 생활의 편의 제공까지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적용의 첨단을 걸어온 우리 공군은 마치 시대의 선각자처럼 90년대 초반부터 '하늘로 우주로'를 모토로 사용할 정도로 우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현재 우리 공군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우주 상황인식 수준에 진입해 있다. 우주를 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사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최근 우리 군이 보유한 군 정찰 위성이 특정 군이 아닌 '국방 우주력' 명의로 운영되고 있어, 공중 공간과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도 공군만의 활동무대로 삼고자 했던 공군의 의지가 퇴색된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쉬워할 문제는 아니다.

최근 우주 자산이 상업적 정보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고도로 의존하게 된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이버 위협과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민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공군의 우주 감시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궤도 내 부적절한 위협 활동을 식별하고, 정부 내



유관 부처와 상업 우주 사업자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주 공간에서 운용되는 국가 자산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주를 활용한 항공력의 효과적인 운용에 집중하면서 국방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주력 건설과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적의 위성 요격 미사일이나 궤도상에서 접근하는 '킬러 위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군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층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단순히 공격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적의 공격을 교란하고 요격하며 손상된 시스템을 복원한다는 전략하에 우주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공군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다영역 작전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전자기 스펙트럼이다. 우리 공군은 다영역 작전의 승패를 가르는 '전자기 스펙트럼 우세'를 확보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군은 단위 작전부대나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전을 수행하는 육군이나 해군과는 다르게 광범위한 전체 전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 공군이 수행하는 전자전은 단순히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적의 신경망을 마비시키고 아군의 전력을 보호하는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전자 공격은 적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적의 방공망과 지휘통제 체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전에 전자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하에 놓인 우리 처지에서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전자전 능력을 갖춘 항공전력이 적 통신을 마비시키고 연이은 정밀타격에 의해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전이 창이라면, 평시와 전시에 적의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자전 지원 및 정보수집과 아군의 전자 보호는 방패라고 할 수 있다. 적의 전자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항공기와 위성 통신, 그리고 무기체계를 보호하는 것은 전자기 스펙트럼 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건이다.

공군은 공중 플랫폼을 활용해 육·해·공·우주 전력을 하나로 잇는 전자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



다. Link-K 등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공중에서 수집한 적의 전자적 위협 정보를 지상군과 해군 함정에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35, KF-21 등은 강력한 센서 퓨전 능력을 갖추어, 전투기 자체가 고성능 전자전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능력을 더 발전시켜서 지상·해상 전력은 수행할 수 없는 공군의 고유한 능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공군은 전자전을 통해 적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암흑을 선사하고, 아군에게는 투명한 전장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다영역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군의 입장에서 정보·감시·정찰(ISR)과 전자전, 그리고 사이버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만큼 각 영역의 중첩이 긴밀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영역을 구별해 제한하기보다는 사이버전에 집중하여 공군의 역할을 정리하면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세부 역할을 식별할 수 있다. 우선 전자기 스펙트럼과 결합한 '사이버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나 레이더 기지는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된 폐쇄망을 사용하는바, 공중 플랫폼(전투기, 정찰기, 무인기)에서 고출력 무선 전자파를 이용하여 적 방공망의 하드웨어 접점에 사이버 공격을 가함으로써,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여 공격 회랑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적의 GPS 교란 공격에 대응하여 아군의 정밀유도무기 운용을 위한 데이터 링크와 항법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동시에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공중 사이버 마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현대 공중전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다양한 자산이 그물망처럼 엮여 정보를 주고 받는 킬웹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데, 정보 유통 통로가 차단되거나 오염되

면 최첨단 항공 자산들의 능력이 저하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자산이 표적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링크 인프라에 대한 해킹·기만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해야 한다. 즉 공군의 전술항공통제본부와 중앙방공통제소의 지휘통제망 등 C4I 시스템을 방어해야 한다.

셋째, 우주 영역으로 확장된 공군의 위성통신과 우주 감시 자산은 모두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존하므로 사이버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 당연히 아나시스 2호(Anasis-II) 등 우리 군의 통신·정찰 위성과 지상 통제소 간의 송수신 신호가 탈취되거나 교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우주에서 수집된 적 미사일 발사 징후 및 궤도 데이터가 사이버 공격으로 위·변조되지 않도록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중과 사이버 공간에서 획득한 첩보를 결합하여 입체적인 전장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공군의 글로벌호크, 중고도 무인기, 금강·백두 등의 감시정찰 자산이 포착한 적 미사일 기지의 물리적 위치 정보와, 사이버 작전을 통해 획득한 해당 기지의 시스템 가동 상태를 융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휘부가 '언제, 어디를, 어떤 수단(타격 혹은 마비)으로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영역 작전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상 통신망을 파괴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민간 위성 스타링크(Starlink)를 통해 통신을 유지했는데 이는 우주 영역이 지상 영역에서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 직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여 하이마스 등의 지상 화력으로 정밀 타격한 사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저가 드론이 수집한 영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달되어 즉각적인 타격으로 이어진 것은 '센서-투-슈터(Sensor-to-Shooter)'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단축된 다영역 작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AI의 등장과 발전은 미래의 전쟁을 상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미래는 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미래 공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우리 공군의 손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AI시대 전장의 게임체인저 드론

국민대 안보융합기술연구소장 I 25기 **윤용현**

피지컬 AI시대에 부상하는 드론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지능의 자동화다.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기계화, 정보화 시대의 키워드가 디지털화, 인터넷 시대의 키워드가 연결이었다면, AI 시대의 본질은 인간의 인지·판단·의사결정 기능이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해 구현되는 피지칼 AI이다.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제품이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다. 그런데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2차원 평면에서 운행하는 피지컬 AI라면 드론은 3차원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AI이다.

최근 드론이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일상 뿐 만 아니라 현대전의 양상 또한 크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국방정책의 변화, 군사교리의 변화, 군구조의 변화,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조만간 우리 군은 AI 드론을 운영하는 AI Pilot를 만나게 될 것이다.



1) 무인표적기의 공력설계 및 특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Aerodynamic Design and Characteristics of Target Drone), 1982, 2 윤용현 공학석사학위 청구논문

필자는 40 여년 전인 1982년 2월 드론설계로 석사학위[1)]를 받았다. 이후부터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강의를 해 오면서 드론기술과 그 활용은 놀라울 정도 변해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드론의 진화와 변화 과정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 중동의 이란전에서 핵심전력으로써 드론전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향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여러 정책변화와 드론전 준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의 드론은 무인표적기

1935년 미국 해군 윌리엄 스탠들리(William Standley)제독이 영국 해군을 방문했을 때 원격조종 무인항공기를 가상목표물로 대공포 사격 훈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영국 해군은 그 원격조종 무인표적기를 여왕벌(Queen bee)불렀다. 그 윌리엄 제독은 귀국 후 미 해군 연구소 델머 훼르니(Delmer Fahrney)중령에게 지시하여 영국의 무인표적기 여왕벌과 같은 무인항공기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개발에 성공한 훼르니 중령은 이를 수벌(male bee)의 명칭인 드론(drone)이라 명명하였다. 벌은 암컷인 여왕벌(Queen bee)과 일벌(Worker bee), 그리고 수컷인 수벌(male bee, drone)로 구분된다.

여왕벌은 산란만 하고 일벌은 꿀 채집, 육아, 집짓기, 외부 침입자의 방어 등의 일들을 도맡아 한다. 하지만 수벌(drone)의 주요 임무는 여왕벌과의 짝짓기 외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다. 꽃가루를 모으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않고 벌침(stinger)도 없고, 외부침입자에 대해 방어능력도 없어 양봉의 가치가 없는 벌이다. 그래서 미국의 훼르니 중령은 무인표적기를 영국에서 명명한 여왕벌(Queen bee)의 상대적인 용어인 수벌(Drone)로 부른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1940년 미국은 최초 “OQ-2”라는 표적드론(target drone)을 월터 라이터가 설계하여 양산한 후 미군에 납품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미국의 OQ-2 드론은 총무게(47kg), 길이(2.65m), 날개폭(3.73m), 엔진은 1대(7마력)가 최대속도(137 km/h)로 약 1시간 대공포 타켓을 달고 비행할 수 있었다.

전쟁을 통해 진화하는 드론

초기 무인표적용으로 출발했던 드론은 베트남전(1960~1975)을 시작으로 중동전쟁과 레바논전(1973~1982), 걸프전(1990),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2001 ~2021),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202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2022~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전쟁경험을 통해 기술, 성능, 운용개념 및 활용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 베트남전(1960~1975)은 전략정찰 드론 시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의 원격조종 비행, 자동항법장치, 항공사진 촬영기술 등이 발달하여수백~수천 km의 비행거리와 고고도 정찰이 가능하여 적방공망 탐지하고전략정보 수집하는데 드론을 주로 활용하였다.

- 중동전쟁과 레바논전(1973~1982)은 드론의 실시간 정보·감시·정찰(ISR,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시대를 열었



다. 실시간 영상전송, 데이터 링크, 전자전장비를 탑재한 드론이 장시간 체공하면서 실시간전장 감시와 항공전자전 및 적 방공망 기만작전을 수행하였다.

- 걸프전(1991)때의 드론은 네트워크 전쟁(Network Centric Warfare)의 핵심 센서 역할을 하였다. GPS 항법, 디지털 영상, 실시간 전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신속한 정보전달로 실시간 전장 상황 인식을 통한 네트워크 중심전의 센서로서의 역할이었다.

-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2001~2021)시기는 킬러 드론 시대라고 할 만큼 드론이 처음으로 "정찰 + 타격" 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위성통신(SATCOM), EO/IR 센서,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드론이 20~40시간 장기 체공하면서 글로벌 작전 수행할 수 있었다.

-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2020)은 저비용 정밀타격으로 최초로 드론이 주도한 전쟁(Drone-Centric Warfare)이었으며, 공군력이 약한 나라가 저가의 장거리 비행 드론으로 정밀 타격력을 실증함으로써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드론 전쟁을 예고한 리허설 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EO/IR 자동추적, 배회탄약(Loitering Munition)은 장시간 배회하면서 네트워크 연동 등을 통해 지상의 전차와 방공망 파괴는 물론 지상군에 대한 심리전까지 드론이 주도하였다.

- 러·우 및 이란 전쟁(2022~현재)은 전장의 게임체인저로서 드론의 활약이 입증되었다. 공격무기의 70%가 각종 드론이고, 저가 고성능 자폭드론이 대량 군집으로 전략목표를 공격할 때 AI객체인식, 군집 제어, 자율항법, 전자전 대응 등으로 드론전을 수행하고 있다.

러·우 전쟁 및 이란전에서 부상한 자폭 드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초기에(2022년 2~4월 무렵)드론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매월 1만대 이상의 드론이 전쟁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양국 모두 공격무기의 70%가 드론이었다. 사실상 드론전(Drones Warfare)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술 정찰, 표적획득용으로튀르키예 Bayraktar TB2와 우크라이나 산 Leleka-100, Furia, PD-1/PD-2, SHARK 등을 사용했으며,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Aerorozvidka

R18 옥토콥터. Switchblade 300, Phoenix Ghost, Warmate를 투입하고, 해상용 드론 MAGURA V5/V7 등으로 흑해에서 여러 대의 러시아 함대를 타격하거나 침몰시켰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비행장 활주로에 주기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Tu-95, Tu-22M3)를 무력화시킨 "거미줄 작전(Operation Spider Web) Operation Spider Web은 2025년 6월 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전략 폭격기 기지를 공격한 비밀 드론 침투작전"은 놀라운 성과를 냈으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1.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한 주요 드론

한편 러시아가 사용한 드론은 정찰 및 표적획득용으로 Orlan-10/30, Eleron-3SV, Forpost-R을 사용하고, Lancet-3, KUB-BLA과 같은 1인칭 시점(FPV, First Person View) 드론은 주로 전장 종심의 포병 및 방공레이더를 타격하였다. 정찰 및 표적획득용 드론으로는 Orlan-10, ZALA 421-16/08, SuperCam, Eleron-3 등이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가 타격/자폭용으로 이란제 Shahed-136(러 명칭 Geran-2)드론을 수입하여 주로 사용하였다. 이란 항공기제조사(HESA)에서 개발 및 제조한 장거리 자폭 드론 샤헤드(shahed)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명실공이 자폭 드론이라는 개념에 잘 맞는 이름이다.

공격용 자폭드론을 'one-way attack drone' 또는 'loitering munition(배회탄약)'라고 한다. 우·러 전쟁과 이란전을 통해 자폭 드론은 다음과 같이 몇 가



전장/전폭/중량	3.5 m/2.5 m/200 kg
최고속도	185 km/h
작전반경	1,800~2,500 km
탄두중량	30~50 kg
유도방식/발사	GPS, INS/JATO

그림2. 러시아가 사용한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용)

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첫째, 장거리 비행 후 지상 목표물에 자폭하는 드론이다. 이란이 개발하고 러시아가 게란-2란 이름으로 운용하는 샤헤드-136이 전형이다. 30~40 ㎏의 탄두를 싣고 시속 185㎞로 2000㎞ 이상을 비행한다. (그림 2 참조)

발전소·연료시설 같은 고정 표적을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해 타격하는 방식이며,공격 목표는 전력망, 군수공장 및 탄약고, 각 군기지, 지휘 통제 시설, 항만 및 에너지 시설과 국가 중요산업시설이다.

둘째, 배회 후 자폭이다. 러시아 잘라(ZALA)의 란셋(Lancet)이 대표 사례다. 사거리 약 40㎞, 탄두 3~5㎏급에 임베디드 인공지능(AI) 모듈을 적용해 자주포·전차·방공 진지를 자동 분류하는 기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탐지·식별·타격의 세 단계를 한 기체 안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다른 공격용 드론과 다르다.

셋째, 일인칭 시점(FPV)드론이다. 운용자가 고글을 쓰고 카메라 영상을 따라가며 조종해 표적의 상부 취약 부위로 강하해 타격하는 형태다. 드론에 대전차 수류탄(RKG-3), RPG 탄두, 폭약 등을 묶어 운용한다. PV 고글로 조종해 적 전차 밑으로 TM-62 지뢰를 밀어 넣거나 교량·벙커에 진입해 원격 기폭한다. 대당 단가가 수백 달러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한 해 수백만 대를 생산 운용하는 드론이다.

넷째, 해상 자폭이다. 우크라이나의 마구라(MAGURA) V5(길이 5.5m·시속 78㎞급)와 씨 베이비(Sea Baby)는 흑해에서 러시아 함정 다수를 격침·손상했다. 후티 무장세력은 홍해에서 자폭 드론을 대함 미사일과 묶어 상선·호위함을 압박해 왔다. 해면 위 수 미터 고도로 진입하면 함정 레이다 사각(死角)에 들어가기 쉽고, 흘수선·기관실 같은 침수·화재 취약 부위를 노리기 좋다.

다섯째, 섞어 쏘기식 포화공격(saturation attack)이다. 저가 자폭드론이 먼저 진입해 적 방공 레이다를 켜게 만들고, 그 사이 본 공격용 미사일이나 레이다 신호를 따라가 탄두가 진입하는 방식이다. 자폭 드론과 장사정포, 순항미사일 등을 다층으로 섞어 쏘는 형태다.

AI 드론전을 준비하는 LUCAS 드론

미국은 최근 드론전에 대비한 리플리케이터 구상(Replicator initiative)을 발표하고 그 실전 계획을 추진 중이다. 드론개발의 핵심을 “군집(Swarm) + 자율(Autonomy) + 대량(Mass)”에 두고 AI 드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란에서 개발한 Shahed-136 자폭형 드론 비행체를 그대로 모방하여 루카스 (LUCAS,·Low-cost Unmanned Combat Attack System)라는 '저가형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을 개발추진 중이다.

LUCAS 드론은 비행체 규격과 무게, 폭약탑재량은 shahed 드론에 비해 약간 축소되었으나 AI 기반 자율성과 네트워크화 능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Shahed-136이 단순한 "저가 자폭 드론"이라면, LUCAS는 "AI 기반 자율 군집 자폭 드론"으로 발전한 개념이다.

LUCAS 드론은 Shahed-136드론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다.

첫째, AI Pilot 기능이다. Shahed-136은 기본적으로 목표 좌표 입력하면 GPS/INS 항법으로 목표물에 충돌하는 데 비해, LUCAS는 AI Pilot 기능이 있어 자율 이륙, 자율 항법, 장애물 회피, 임무 재계획, 표적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목표물을 공격한다.

둘째, AI 표적 인식 기능이다. Shahed-136은 GPS 좌표 공격, 사전 계획된 목표 타격으로 표적을 변경할 수 없는 데 비해 LUCAS는 EO/IR 센서를 활용하여 AI 기반 객체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표적을 분류한 후 이동표적을 추적한다.

셋째, 군집AI(SwarmingAI)기능이다. Shahed-136 이 개별 드론 단독 공격, 중앙 통제 방식, 포화공격 중심이라면 LUCAS는 수십~100대 이상 군집 운영, 메쉬 네트워크, 분산 의사결정, 협업 공격이 가능하다.

넷째, GPS 거부 환경에서 자율 비행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에서 가장 큰 문제는 GPS 교란(Jamming)이었다. Shahed-136은GPS 의존도가 높아 전파교란 시 정확도가 떨어졌으나 LUCAS는 INS와 비전 항법기능, AI 지형 인식 및 센서 융합 항법이 있어 GPS 없는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





다섯째, 네트워크 중심전(NCW)기능이다. Shahed-136이 "일회용비행폭탄"이라 LUCAS 는 Starlink/Starshield와의 연동은 물론 위성통신, 메쉬 네트워크, 실시간 임무 변경, 그리고 유무인 협동(MUM-T)이 가능하여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하다.

K-LUCAS 계획과 K-drone initiative

최근 우리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도 단계적으로 6만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국산 드론 제품이 부실하여 드론기술주권이 몹시 부족하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전술 교리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드론 기술주권 및 드론 운용 능력을 높이고 드론 중심 전술교리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제 예비군훈련과정에서도 드론교육이 운영되고 학훈단(ROTC)에서도 드론운영 자격증과정을 운영하여 입대 전 드론조종자 자격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대한민국 드론·대(對)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드론산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가장 시급 분야가 국방 드론체계발전이다.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 사령부를 드론 정책 수립에 집중하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의 교훈을 반영하여 2만 대 이상의 소모성 전투 드론 확보와 함께 장거리 자폭 무인기 'K-LUCAS'의 실전 배치도 2030년으로 앞당기고 있으며 중국제품에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도 K-drone Initiative를 통해 국산화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이 모든 정책이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시급히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하늘의 방패'가 멈춰 세운 거인의 진격:

러-우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 방공작전 이야기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교수 | 중령 **김인승**

현대 군사전략에서 공중우세(Air Superiority)의 확보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절대 공식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하기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 발발할 당시만 해도 세계 2위의 항공전력을 보유한 러시아 항공우주군(VKS)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수 시간 내에 장악할 것이라는 데 이견을 제기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소극적인 작전을 펼치는 데 급급하다.

세간에서는 이 역설의 원인을 주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무능과 교리적 한계'에서 찾는다. 지상군 중심의 군 문화로 인해 항공력을 '날아다니는 포병' 수준으로 소모하며 공세적 운용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비단 러시아의 실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압도적 전력 열세 속에서도 러시아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이들의 활동을 장기간 제약한 주체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군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까지 유효한 '러시아 항공력의 실종'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진해 온 방공전력 현대화와 전쟁 중 전개된 혁신적 전술 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벼아픈 각성과 8년의 준비: 하늘의 방패를 벼리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항공 위협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였다. 조지아 전쟁에서 드러난 자국 항공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가 공군력에 대한 대대적인 현대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최신 다목적 전투기(Su-35S, Su-34 등) 380여 대에 대한 신규 전력화와 함께 구형 전투기 300여 대에 대한 대규모 성능개량을 추진하였다.

러시아 공중전력의 급격한 신장은 자연스레 우크라이나의 대(對) 러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 인식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인해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정부의 부패와 관리 부실로 인해 사실상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공중위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제한된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러시아군에 대응할 만한 항공전력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가장 현실적이며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방공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우크라이나의 방공전력 증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항적 식별 능력의 강화였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4개 여단 규모의 구성된 무선기술부대(radio engineering force)를 신설하고 국경을 따라 24시간 가동되는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높은 기동성을 지닌 신형 레이더인 35D6M과 P-18 말라킷 등을 도입하여 유사시 항적 탐지능력과 레이더 장비의 생존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둘째는 퇴역 장비의 복구를 통한 양적 전력 유지였다. 우크라이나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9K330 Tor, 2K22 퉁구스카(Tunguska) 등 단거리 지대공 시스템과 휴대용 방공무기(MANPAD)를 대거 수리하여 현업에 복귀시켰다.

또한, 1960년대 유물인 S-125(SA-3) 시스템까지 현대화 기술을 적용해 재가동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최소한 냉전 종식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구비하였던 수준의 방공 능력을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 셋째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한 질적 향상이다. 러시아가 자국 무기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는 자체 기술로 사격통제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부품 국산화를 추진했



다. 또한, 다양한 방공자산을 하나의 일관된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휘통제 기반을 마련했다. 이 8년간의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개전 전(前) 이미 상당한 수준의 통합방공망을 재구축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Clear Sky」, 「Shabla」 등 NATO 주도의 다국적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서방의 교리와 전술을 습득했다. 그 과정에서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이동식 방공 전술'을 반복 숙달하는 한편, 공군전력에 대한 생존성 또한 강화하기 위해 비행장 간의 분산배치 및 긴급 정비훈련을 지속했다.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공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질 개선과 전력 운용능력을 상당 부분 배양한 상태였던 것이다.

개전 초기: '기동성'과 '생존'이 만든 전략적 반전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된 개전 초기,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수 시간 내에 궤멸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실제 전황은 전혀 달랐다. 우크라이나군은 사전에 훈련했던 것처럼, 개전 직전 기동성을 갖춘 방공자산을 기존의 진지에서 신속히 이탈시켰다. 그 결과 러시아 미사일이 타격한 곳은 대부분 이미 비어있는 기지였고, 기동성을 갖춘 우크라이나의 방공무기체계의 90%가량이 큰 피해 없이 전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전 3일 차부터 구소련제 S-300과 Buk-M1 시스템을 주축으로 한 반격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무력화되었다고 오판한 러시아 전투기들이 중·고고도로 진입하는 순간, 재가동 준비를 마친 지대공 미사일들이 반격을 개시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중·고고도에서의 작전 위험성이 급증하자 개전 1주일 만에 작전 방식을 주간 저고도 침투로 변경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 신속히 배치한 이글라(Igla)-S 등 MANPADS의 벽에 부딪혔고, 3월 첫째 주에만 10여 대의 전투기를 잃는 큰 피해을 입었다.

이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3월 9일부터 야간 침투작전으로 전력운영 방침을 급선회했다. 야간투시경(NVG)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의 약점을 노린 조치였다. 하지만 서방의 NVG가 우크라이나군에 신속히 보급되고 방공망의 유기적 대응이 지속되면서 이마저도 좌절됐다. 결국 2022년 4월 초,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고가치 항공자산의 극심한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선 후방으로 완전히 물러섰다. 세계 2위의 항공력이 개전 단 6주 만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공중우세 확보를 포기하는 순간이었다.

방공작전의 진화: 가성비 중심의 다층 방어망 구축

2022년 10월 이후, 러시아는 무력화된 항공력을 대신해 저렴한 이란제 샤헤드(Shahed-136) 자폭 드론과 지대지 미사일을 혼합한 '섞어쏘기' 전술을 본격화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표적 포화 상태로 몰아넣었고, 고가의 방공 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켰다. 설상가상으로 2023년 이후 서방의 지원마저 둔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 내에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방이 지원한 첨단 무기(NASAMS, IRIS-T, Patriot)와 자국산 노후 무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공망'을 구성하였다. 패트리엇이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동안, 노후된 S-300V1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집중하고, 단거리 시스템들은 드론 대응에 투입되는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적용한 것이다.

동시에 '프랑켄샘(FrankenSAM)'이라 불리는 혼합형 방공무기를 도입 및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본래 운용하고 있던 구소련 시대의 방공무기 체계의 일부와 서방이 지원한 미사일 등을 함께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자국이 현재 보유한 제한적인 방공무기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자폭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가성비 중심의 저도고 드론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고가 미사일로 저가 드론을 요격하는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킬(전자전) 능력을 확장하고 국산 요격 드론을 대량 개발 및 운용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기반의 시민 참여형 공중방어 정보망인 'ePPO'와 국가 전역에 설치된 마이크를 활용한 음향 탐지 시스템인 '공중요새 센서(Sky Fortress



Sensor)'체계를 개발해 저비용·고효율의 항적 추적망을 완성했다. 결정적으로 트럭에 기관총을 장착하고 드론을 요격하는 '이동식 소탕팀(Mobile Fire Groups)'을 대거 조직하여 가성비 있는 방공 전술을 안착시켰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역시 개량형 자폭드론을 지속적으로 전장에 투입함과 동시에 대형 활공폭탄(glide bomb)을 활용해 전장 인근을 폭격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이 지닌 한계를 끊임없이 공략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전력우위에 있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4년째 우크라이나 상공을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는 현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의 고군분투와 전술적 혁신이 만들어낸 값진 공(功)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언 및 한국적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력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험대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8년간의 철저한 준비와 실전에서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하늘에서의 주권'을 지켜냈고, 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종심 진격을 좌절시킨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경험과 노력을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사례처럼 항공전력 우위가 반드시 공중우세의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하고, 한국적 특성에 적합한 공중우세 확보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사례가 북한군의 방공전력 운영 및 발전에 있어 훌륭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공세적 항공력 운영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정적으로 향후 더욱 고도화될 북한의 드론 공세와 미사일 섞어쏘기 위협에 대응해 우리 공군기지와 핵심 전력의 생존성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국형 ACE(Agile Combat Employment)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노력이 시급한 것이다.

러-우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하기에 전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리고 항공작전과 관련해 어떠한 새로운 시사점이 도출될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항공력을 어떻게 저지했고, 전황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지속해서 연구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 항공전의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 바로미터(barometer) 중 하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이 학습할 최적의 군사 교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력의 특성상 단기간에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전훈을 하루속히 한국적 환경에 맞춰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도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6년 중동전쟁을 바라보며

합동전영역 관점의 항공력 운용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이정환

1. 서 론

인류의 수많은 전쟁역사에서 많은 전쟁이 그러했듯이, 2026년 초 발생한 미국·이스라엘 연합군과 이란 간의 전쟁(이하, 중동전쟁) 또한 21세기 지정학적 대격변 역사의 한 획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5년 합의 이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이란 핵 합의복원 협상의 완전한 결렬, 이란 내부의 극심한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참혹한 유혈 진압은 잠재되어 있던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이번 중동전쟁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섰다.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전격적 정밀 공습과 이란의 비대칭 대리세력(Proxy)을 동원한 전방위적 반격, 그리고 세계 에너지 유통체계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은 전 세계 경제와 군사 안보 패러다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완전한 종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본 기고문을 통해 2026년 중동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종전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복기하고,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전쟁수행방식과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사점과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쟁 배경 및 이유

2026년 중동전쟁의 도화선은 이란 내부의 체제 불안정, 핵·미사일 위협의 임계점 도달, 그리고 지정학적 외교 협상의 실패라는 3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란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이어진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경제 파탄과 인프라 붕괴에 분노한 민심이 폭발한 결과였다. 이란 신정 체제는 1월 8일을 기점으로 전국 인터넷을 차단하고 무차별적인 무력을 동원해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극단적인 진압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는 미 행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개입 명분이 되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의 정당성이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체제 변화를 군사적 목표의 전면에 내세웠다.

둘째, 2025년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 이후, 추가적인 안보 위협이 식별되었다. 2026년 2월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노력을 재개하였으며, 미국 본토 및 유럽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개발이 완료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확실한 첩보를 입수하였다.

더욱이 이란이 해상 선박을 이용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무인항공기 기습 타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더해지면서, 선제타격 여론이 급부상했다.

셋째, 중재 외교의 최종 결렬이다. 오만의 중재로 진행된 2026년 2월의 제네바 및 무스카트 간접 회담은 양국 간의 깊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서방의 대이란 석유 수출망 제재 강화에 맞서 이란이 강경 일변도로 선회하면서 평화적 해결의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다.

3. 전쟁경과

가. 연합군의 선제공격

2026년 2월 28일 미동부 시간 아침, 미국은 '장대한 분노(Epic Fury)',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Roaring Lions)'라는 작전명에 따라 연합작전이 개시되었다. 작전 개시 단 12시간 만에 약 900회 이상의 정밀 공습이 이루어졌다. 이 기습의 최우선 타격 목표는 이란의 심장부였다. 연합군은 이란의 방공망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테헤란의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군정 최고위 지도부 수십 명이 첫날 공습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란의 지휘체계는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다. 또한, 이란의 원유 수출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요충지인 하르크 섬 등의 주요 군사 인프라가 초토화되었다.

나. 이란의 비대칭 반격과 저항 세력 총동원

지도부의 궤멸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이란군은 분권화된 지휘체제와 사전에 준비된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 대리 세력을 동원해 거세게 반격하였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 예만의 후티 반군이 일제히 결집하였다.

이란은 수천 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미 대사관,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연합군과 아랍 동맹국들 역시 적지 않은 인명 손실과 피해를 보게 되었다.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에너지 위기

3월 하순, 궁지에 몰린 이란군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전면 봉쇄하였다. 기뢰를 부설하고, 소형 고속정을 활용하여 해협을 통행하는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해상 물류가 전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폭등하였다. 이에 미국은 4월 13일 이란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강력한 역 해상봉쇄 조치로 응수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라. 휴전 협상과 종전으로의 이행

전쟁의 장기화가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중재 움직임이 바빠졌다.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양측은 4월 8일 일시적 휴전에 합의하였다. 이 임시 휴전은 몇 차례의 위반과 돌발적 교전으로 무너질 위기를 겪었으나, 극심한 군사적 소모를 겪은 양측 모두 출구 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결국 수개월에 걸친 지루한 외교적 협상 끝에 6월 24일,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양해각서(MOU)가 발표되고 종전을 위한 노력과 수순을 밟고 있다.

4. 미국의 전쟁수행방식: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표적에 대한 동시타격으로 총체적 충격/마비 유발

서방국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중동전쟁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을 첨단 항공력과 미사일을 활용한 전형적인 항공전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전 초기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란의 지도부를 포함한 전략적 표적, 핵 및 미사일 기지 등 작전적·전술적 표적에 대한 동시병행 타격으로 단기간 내 총체적 충격과 마비를 추구한 것은 美 공군교리 '전략공격'의 병행작전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가. 참수작전+공중우세 화보

미국은 작전 개시와 동시에 이란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함께 방공망을 제압하고 하루 만에 공중우세를 확보하였다. 외형적으로는 1~2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개전과 동시에 1,000여개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전 준비와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美 합참의장도 물리적 타격 개시 이전에 우주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가 'First Mover'로서 사전준비 및 여건조성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여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천명하였다. 다양한 여론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방공망 제압과정에서도 압도적인 항공력뿐 아니라, 첨단의 우주/사이버/ 전자기 능력과 노력의 통합이 있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중우세에 기반한 전과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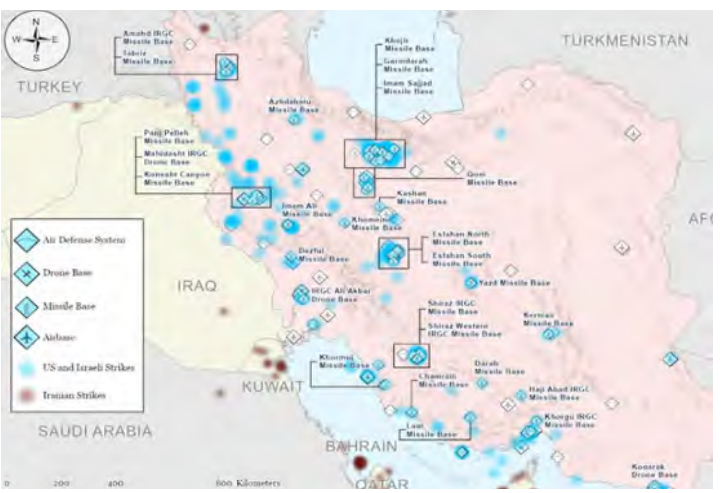
공중우세 확보 이후, 크나큰 작전적 제한이나 위협 없이 모든 유형의 항공기(전투기, 폭격기, 전자전기, 지휘통제기, 공중급유기 등)를 동원하여 이란 전역의 군사 표적(핵, 미사일기지, 지휘통제시설, 병참선 등)과 국가 인프라 시설(방위산업, 석유저장단지 등)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전쟁지속능력을 무력화시켜 나갔다.

다. 작전성과: 이란 전쟁수행능력 약화 + 我 전력과 인명피해 최소화

중동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1,500개 이상, 80% 이상 무력화), 미사일 능력(450개 이상, 80% 이상 무력화), 드론 저장시설(800곳 이상), 핵 산업기반(80% 이상 무력화), 지휘통제시설/병참선(2,000곳 이상) 등 총 13,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함으로써 이란의 전쟁수행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미군의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계획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작전계획에 명시된 군사적 최종상태(End State)와 유사한 상태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미군의 피해는 항공전력 42대(오인사격, 지상 피격 등 포함), 전사자(15여명), 부상자(400여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국 간 현격한 군사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전쟁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면 미군의 피해 규모는 보편적인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내 주요 표적 공격 I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내 주요 표적 공격 II

라. 작전적 평가(군사적 관점)

전쟁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전쟁에 대한 평가 또한 정치적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경제적 관점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의 평가도 중요하다.

군사적 관점에서 전쟁의 규모와 기간에 대비하여 미군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란의 군사력은 상당 기간 정상적인 운용과 복구가 제한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태만 놓고 보면 미국의 전략적·작전적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5. 시사점 및 교훈

중동전쟁에 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미국이 이번 전쟁에 보여준 전쟁방식은 1990년대 걸프전의 복사판'이라는 서방국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 한 줄의 문구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가. 펜타곤 수뇌부는 왜 이러한 방식의 전쟁을 채택했을까?

중동전쟁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미군 지도부에서는 다양한 방책을 수립/비교/분석하였을 것이다.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과 같은 최근의 전쟁방식도 분명 고려되었을 것이다.

생존과 번영, 국가이익을 위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의 군사력 운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펜타곤 수뇌부가 가장 성공한 전쟁 사례의 하나로 평가되는 '걸프전'과 같은 전쟁방식을 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아닐지 생각된다.

나. 그런데,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는 왜 그렇게 싸울까?

중동전쟁을 보면서 머릿속의 다른 한쪽에서는 러-우 전쟁이 계속 비교되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수행방식은 미국이 보여주는 중동전쟁과 상당히 대비되는 양상이다.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에도 전쟁의 기간은 길어지고, 러시아군의 인적·물적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싸우는지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종전 이후,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어지겠지만, 현 상태만 놓고 보아도 중동전쟁과 러-우전쟁에서 보여지는 미국, 러시아의 상반된 전쟁수행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다.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지정학적 여건을 포함하여 중동전쟁이나 러-우 전쟁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단시간, 최소피해,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중동전쟁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방식,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방식을 심사숙고해 보면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합동전영역(Joint All Domain) 마인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동전쟁은 압도적 항공력과 미사일을 활용한 항공전역 위주의 전쟁으로 특징지을 수도 있지만, 곁으로 드러난 항공작전 이외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과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전과 동시에 아주 빠르게 공중우세를 확보한 것은 압도적인 항공력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에서의 작전적 활동을 동기화(Synchronization)하고, 효과를 집중(Convergence)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미군이 추구하고 있는 '합동전영역작전(JADO)',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개념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해/공 차원의 합동작전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에 대한 인식, 능력 발전, 작전적 통합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의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혹시나 지상작전, 해양작전, 항공작전을 위한 지원/보조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오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쌓인 집단·개인의 관념,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되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 전쟁은 예측이 불가하고, 복잡다양할 수 밖에 없다. 현대전뿐 아니라, 미래전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공군이, 육군이, 해군이, 지상/해양/공중/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 합동을 넘어 '합동전영역' 차원의 작전적 마인드 함양이 중요할 것이다.

국군 조직법에 명시된 공군의 주 임무인 항공작전을 위해 모든 공군인이 항공작전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합동전영역 마인드에 기반한 항공작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력이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다. 전장 상황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작전환경에 대한 흐름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와 향후 과제

자주국방의 날개를 펼치다: 성과와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I 38기
노지만

머리말

2026년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대한민국 항공분야는 물론 국방 역사에 남을 역사적 장면이 펼쳐졌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의 출고식 [1] 이 거행된 것이다.

시제기 개발 단계부터 양산기 첫 출고까지 이처럼 짧은 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 기고문은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범의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KF-21 사업의 씨앗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



양산 1호기 출고식
('26.3.25.)

1) 이재명 대통령을 주빈으로 안규백 국방부장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주한 외국대사 및 무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 참석



시제 1호기 출고식
(21.4.9.)

명하면서 이른바 KF-X 사업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후 수차례의 사업 개념 재정립과 예산 조정 과정을 거쳐 2015년 체계개발 사업이 본격 착수됐고, 2021년 4월 9일 시제 1호기가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시제기 개발 단계에서는 총 6대의 비행시험기와 2대의 지상시험체가 제작됐다. 2022년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6대의 시제기가 42개월간 1,600여 회의 비행시험과 1만 3,000여 개의 시험조건을 소화하며 기체 성능을 검증했다. 2026년 5월 블록 I 개발에 대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블록 I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2026년 6월 블록-I 성능에 대한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개발의 성공은 기술, 시간, 비용의 효율적인 융합과 축적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 중에 KF-21 개발 과정에서 두드러진 기술적 특징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과거 미국, 유럽의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설계시 기대 성능과 실제 성능의 차이로 개발 지연을 포함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반면 KF-21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2]과 같은 혁신적 방식을 사업 초기부터 적용한 덕분에 시제기와 양산기의 설계를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설계-제작-비행시험-양산 출고의 과정에서 일정의 지연없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2)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제품과 동일한 가상의 모델을 컴퓨터상에 구현해 정밀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양산 1호기 출범의 의미 : 26년의 집념이 빚어낸 역사적 이정표

1. 영공 방위의 세대교체와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

우라나라는 그동안 고성능 전투기를 전량 해외에서 도입해왔다. F-4, F-5, F-16, F-15K, F-35A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 모두가 미국산이다. 이는 안보 의존성과 더불어 막대한 외화 유출, 핵심 기술 확보의 제한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수반했다. 또한 공군은 여전히 F-5 등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장기 운영 전투기를 운영하며 안전과 작전 측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KF-21 양산 1호기의 출범은 이러한 공군의 고민과 전력 공백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엔진과 같은 일부 핵심 부품을 여전히 외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체 설계, AESA 레이더, 항전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의 자립도[3] 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향상됐다. 무엇보다 자국 전투기를 자국 시설에서 생산하고 유지·보수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크게 넓힌다. 독자적인 플랫폼이므로 언제든 군의 필요에 맞춰 성능을 개량하고 국산 무장 체계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 이는 군의 후속군수지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군사적 이점을 제공한다.

과거 "과연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며 쏟아졌던 무수한 회의론과 타당성 논란을 뒤로 하고 KF-21은 미래 영공수호의 핵심[4] 이 될 것이다.

KF-21 시제기 환경시험



3) KF-21의 국산화율(양산 1호기 금액 기준) 목표는 65%이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4대 항전장비로 불리우는 AESA레이다를 포함한 전투기 센서 국산화 성공)

4) '21세기 첨단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과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KF-21은 이름에서부터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2. 항공 방위산업 생태계의 확장

KF-21 사업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생산에 필요한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처음으로 갖추게 됐다. 체계 통합 업체인 KAI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국내 부품·소재 업체들이 공급망을 형성하였고 22만여 개에 달하는 부품, 1,000여 종의 주요 구성품 가운데 국산화된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특히, 체계개발사업[5] 에 이어 2028년까지 8조 4,037억 원이 투입되는 최초양산 사업은 국내 항공우주 산업에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며 기술 인력의 집약과 공급망의 고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이 단순한 조립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축적과 유지의 과정임을 감안하면, 이 기간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전투기 제조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다.

3. 수출 경쟁력의 현실적 기반 확보

그동안 KF-21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회의론이 엇갈렸다. 아무리 우수한 성능이라도 실전 배치 실적이 없는 기체를 도입하려는 국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양산 1호기의 출고와 이어진 최초 비행 성공은 KF-21이 연

사우디 공군사령관 KF-21 탑승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KF-21 탑승



5) 체계개발사업(기간/총사업비) : 블록1 개발 (‘15~’26 , 8조 8,065억원), 블록2 개발(‘25~’28, 7,183억원)



KF-21 추가무장시험 비행 착수
(26.3.16.)

구개발 단계를 벗어나 실제 운용 가능한 항공기임을 국제 무대에서 입증하는 이정표다. 우리가 일정 지연없이 적기에 KF-21를 전력화하려고 노력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무기체계의 수출은 성능과 비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전투기와 같은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은 국가간 정치·외교·경제·방산 협력관계의 종합적인 성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KT-1, T(FA)-50의 수출사례에서 보듯이 좋은 제품은 주변으로 퍼지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가 있어 첫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

낙관할 순 없으나 양산기 출고에 이어 올 해 후반기에 양산 1호기를 공군에 인도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머지 않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양산 1호기 출고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디딘 것이다.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난관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몇 가지 과제를 덧붙인다.

1. 체계개발의 차질 없는 이행

KF-21의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블록-II의 성공적 개발이다. 현재 양산되는 블록-Ⅰ은 개발계획에 따라 공대공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한 형상으로,



KF-21 공군 참모총장 지휘비행

2028년 12월까지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Ⅱ[6] 개발을 완료해야 비로소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블록-Ⅱ에는 미국산 유도폭탄 JDAM·SDB뿐 아니라 국산 KGGB 유도폭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천룡)이 통합될 예정이다. 새로운 무장의 통합은 기체의 하중, 구조, OFP 등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더불어 국산무장 개발의 지연은 블록-Ⅱ 전력화 일정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2천여 소티의 비행시험을 3년내에 완수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도 위험요인이다. 체계개발에서 쌓인 노하우와 원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대지 무장을 완벽히 통합하고 2028년 까지 완수하는 계획을 지켜내야 한다.

2. 양산 체제 안정화와 적기 전력화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양산을 통해 영공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당초 계획한 2032년 까지 120대를 전력화 하겠다는 목표도 뚜렷하다. 따라서 양산 1호기의 출고는 개발의 끝이 아닌, 본격적인 '양산 안정화'라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다.

문제는 재정과 공급망이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는 수식어처럼, 적정 재정 확보와 공급망 관리이다. KF-21 양산사업의 규모는 최초와 후속 양산을 합할 시 약 27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

6) 블록-Ⅰ : 전투기 기본 비행성능 및 공대공 능력 확보, 블록-Ⅱ :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 확보



국무총리 KAI 생산현장 시찰
(26.1.7.)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환율 변동성 가중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여 급증하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거시적 불안요인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양산 계획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정부, 공군, 그리고 방산업계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계약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업체와의 공급망을 관리하며 핵심 기술인력 유지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여 원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3, 수출 현안 타개와 K-방산의 마중물 역할

현 정부는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수출은 방위산업이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변화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안보, 경제, 기술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창출한다. KF-21도 힘을 보태기 위하여 사업단은 KF-21 수출 원팀을 운영하며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 동안 KF-21의 공동개발 참여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이슈로 장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발이 종료되는 6월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중이며 국익 관점에서의 접근과 전략적 인내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수출에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 KF-21을 100% 국산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엔진을 포함한 일부 해외 부품이 탑재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하다. 수출승인은 해당 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수출 성사에 매우 불안한 요소이다. 빠른 의사결정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이 절차는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국가별 다양한 수출 절차를 이해하고 대체품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부품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4. 미래를 대비한 로드맵 실현

현재 우리는 속도와의 전쟁속에 살고 있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 남들만큼 하면 뒤쳐지는 것이다. KF-21의 진화는 현재 블록-II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이미 그 다음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공군도 개념연구를 포함한 장기 소요를 지속 검토하고 있다.

전투기 플랫폼 관점에서는 국산 무장 확대, 5세대급 스텔스 성능, 무인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체계,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AI 파일럿과 차세대 전투기, 나아가 전자전기와 같은 파생형까지 다양한 요구가 검토되고 있으나 문제는 그 로드맵의 적기 실현 여부다.

로드맵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 재원의 선택과 집중, 지속적인 핵심기술과 소요 타당성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한 인력과 조직도 계속 뒷받침되어야 한다.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





맺음말

KF-21 양산 1호기의 성공적 출범은 한반도 안보 환경과 방위산업의 미래 모두에 깊은 함의를 갖는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동맹 의존을 줄이고 독자 억지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작전적 차원에서는 노후화된 F-5, 구형 F-16의 단계적 퇴역에 대응해 공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적 차원에서는 항공우주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과 공급망 생태계 구축이 가속될 것이다.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의 출범은 대한민국이 마침내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날개가 비로소 사천의 하늘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것과 그 하늘을 지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양산, 무장 통합, 엔진 국산화, 수출 시장 개척, 유무인복합체계로의 진화 이 모든 과제가 우리 앞에 동시에 놓여 있다.

KF-21이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여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군·산업계·연구기관이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는 지속적인 협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양산 1호기 출고의 감격을 발판 삼아, 보라매가 더 높고 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제 냉철한 실행의 시간이 시작됐다.

끝으로 무모해 보였던 국산 전투기 개발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놓은 연구자와 개발자, 국방 관계자 등 KF-21 원팀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ADEX 2025 에어쇼 촬영 I 금기연(21기)

05



울림, 공감
자랑스런 성무인

공군과 함께한 26년 | 편집위원회

변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 | 신익현

행복사다리를 함께 올라가요 | 정영진

스페인 이민생활 | 나병엽

아버지의 길, 나의 하늘 | 장한샘

보라매 공원 성무탑과 헌시 | 최성열

공군과 함께한 26년, 미래 교육훈련체계를 설계하다

편집위원회



한길씨앤씨 대표이사
33기 신용인

.

한길씨앤씨(주)는 2000년 공군 고등훈련기 T-50 및 전술 입문훈련기 TA-50 종합훈련체계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6년간 우리나라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중견기업으로, 현재에는 군 기관, 방산업계, 연구단체 등으로부터 국방 SI 및 M&S, 항공정보기술 분야 기술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미래 교육훈련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글로벌 선도기업, 한길씨앤씨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Q. 한길씨앤씨의 출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은 전투력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안녕하십니까. 공군사관학교 33기 신용인입니다. 한길씨앤씨는 2000년 대한민국 공군의 T-50 고등훈련기 사업과 함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독자적인 고등훈련기를 개발한다는 국가적 도전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 항공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조종사와 정비사가 항공기의 구조와 기능, 운용절차와 비상상황 대처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으로 숙



달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길씨앤씨는 공군 현장에서 축적된 비행·정비 경험에 교수체계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공학 역량을 결합해 이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공기의 복잡한 체계와 정비절차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교육과정과 훈련환경으로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길을 지난 26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조종·정비 교육콘텐츠에서 출발한 한길씨앤씨는 통합훈련관리체계,가상현실과 시뮬레이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LVC 훈련체계,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사업과 기술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원칙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어 전투력과 안전에 기여하는 교육훈련체계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Q. T-50과 함께 시작한 한길의 도전은 무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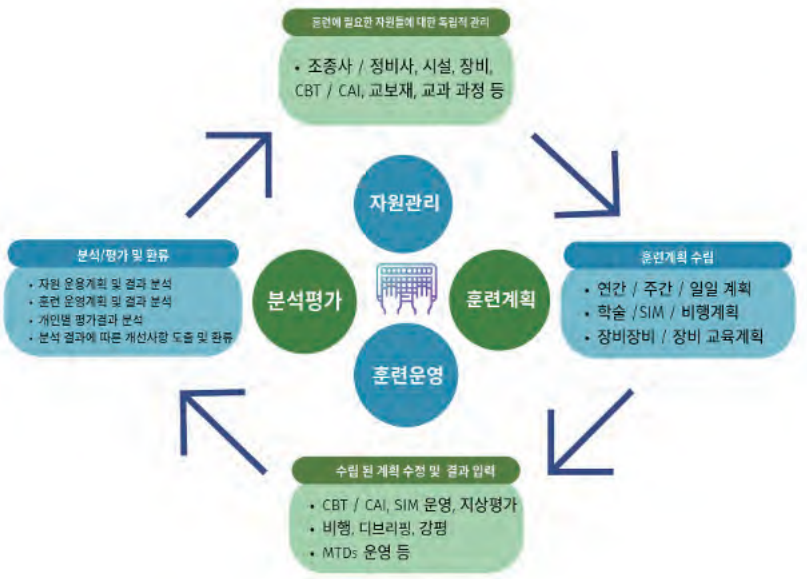
회사의 출발점이 된 T-50 종합훈련체계 개발은 한길씨앤씨의 정체성을 형성한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T-50 교보재와 지원체계, 훈련장비 교과과정을 개발하며, 국산 고등훈련기의 전력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이후 F-16 컴퓨터 기반 훈련체계와 공군전술지휘통제체계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육콘텐츠 중심의 역량을 지휘통제와 체계통합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훈련체계가 단순히 장비의 외형이나 기능을 화면에 재현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실제 임무와 정비절차, 기술교범, 평가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학습자의 행동 변화와 임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연결해야 진정한 교육훈련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군과 군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 교육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3D 콘텐츠 제작자와 시스템 엔지니어가 하나의 팀으로 협업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한길씨앤씨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 교육콘텐츠 기업에서 통합훈련체계 기업으로 성장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국산 항공기와 무기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훈련의 범위와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한길씨앤씨 역시 컴퓨터 기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머물지 않고, 훈련 전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통합훈련체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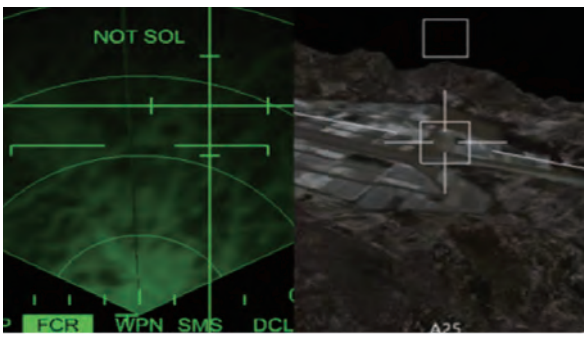
TIMS(Train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훈련관리체계

한국형 기동헬기와 KT-1 계열 항공기, FA-50을 비롯한 국산 항공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종·정비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개발과 훈련관리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FA-50 통합훈련관리체계는 교과과정과 훈련자원, 일정과 진도, 평가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과 부대의 훈련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콘텐츠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면, 통합훈련관리체계는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느 수준까지 숙달했으며, 추가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 체계입니다. 이는 교육훈련을 개인의 경험이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계획하고 평가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회사의 무대는 해외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등으로 수출된 T-50 계열 항공기의 교육훈련체계 개발에 참여하며, 국가별 언어와 교리, 운용환경에 맞는 콘텐츠와 훈련관리체계를 제공했습니다.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된다고 해서 교육훈련체계를 그대로 번역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운용절차와 교육수준, 정비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길씨앤씨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조화와 표준화, 형상관리, 사용자 중심 설계 역량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국산 항공기의 안정적인 해외 운용을 지원하고 K-방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Q. 가상현실과 시뮬레이터로 훈련 공간을 확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년 이후 한길씨앤씨는 기존의 CBT와 CAI를 넘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시뮬레이터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야로 기술영역을 확장했습니다. F-15K와 (K)F-16 정비훈련체계, KT-100 조종적성훈련장비, VR 기반 승조원 교육훈련체계 등을 개발하며, 실제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가상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과 반복성입니다. 실제 항공기나 무기체계를 장시간 교육에 활용하는 데에는 비용과 운용상의 제약이 따릅니다. 일부 비상상황이나 고장상황은 실제 장비로 반복 재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상훈련체계는 이러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자가 자신의 판단과 조치 결과를 즉시 확인하도록 지원합니다.다수의 훈련자가 동일한 가상공간에 접속해 협업 정비와 비상조치, 임무 수행절차를 함께 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단위의 장비 조작교육을 넘어 팀과 부대 단위의 임무수행능력까지 향상할 수 있습니다.한길씨앤씨는 실제 전력과 가상 시뮬레이터, 컴퓨터가 생성한 모의전력을 하나의 훈련환경으로 연결하는 LVC 훈련체계 분야도 준비해 왔습니다. LVC 훈련은 실제 항공기 운용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대규모·고난도 임무를 반복적으로 숙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공군훈련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 AI시대, 미래 공군 교육훈련의 방향과 준비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전투력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교육훈련체계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항공기와 무기체계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운용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완전한 전투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나 장비처럼 형체가 분명하지도 않고, 훈련성과가 즉시 숫자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훈련을 통해 형성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 팀원 간의 신뢰와 협업은 위기상황에서 생명과 장비를 지키고 임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길씨앤씨가 지난 26년 동안 교육훈련이라는 한길을 걸어온 것도 이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체계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아니라, 군 구성원이 더욱 안전하고 자신 있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전투력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개발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교육훈련체계는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기의 형상과 교범, 운용절차가 변경되면 교육내용도 함께 최신화되어야 하며, 실제 훈련현장에서 발견된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길씨앤씨가 창업 초기부터 '개발 후 운용까지 책임지는 회사'를 지향해 온 이유입니다.

앞으로 공군이 마주할 전장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입니다. 유인항공기와 무인체계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과 장거리 정밀타격, 통합방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훈련 역시 개별 장비의 조작방법을 숙달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체계가 함께 움직이는 합동·연합 임무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길씨앤씨는 지난 26년 동안 축적한 항

공기 운용·정비 지식과 교수체계설계, 시뮬레이션 및 시스템 연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훈련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향은 AI 기반 맞춤형 훈련입니다.

훈련자의 수행기록과 평가결과를 분석하면 개인별로 자주 실수하는 절차와 부족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를 토대로 훈련자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추천하고, 필요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며, 반복훈련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한길씨앤씨는 소형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항공기 정비 관련 교범과 기술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비 챗봇을 자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범과 정비기술자료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관과 훈련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교육훈련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AI는 교관을 대신하는 기술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관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돕고, 훈련자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더 빠르게 보완하도록 지원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디지털 트윈과 XR을 활용한 실전적 훈련입니다.

항공기와 기지, 정비환경, 지휘통제 절차를 디지털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고, 실제 장비 데이터와 연결하면 개발과 시험, 교육, 운용유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몰입형 XR과 햅틱, 다중접속 기술을 결합하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훈련자들이 동일한 가상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훈련뿐 아니라 원격 기술지원과 정비절차 검증, 임무계획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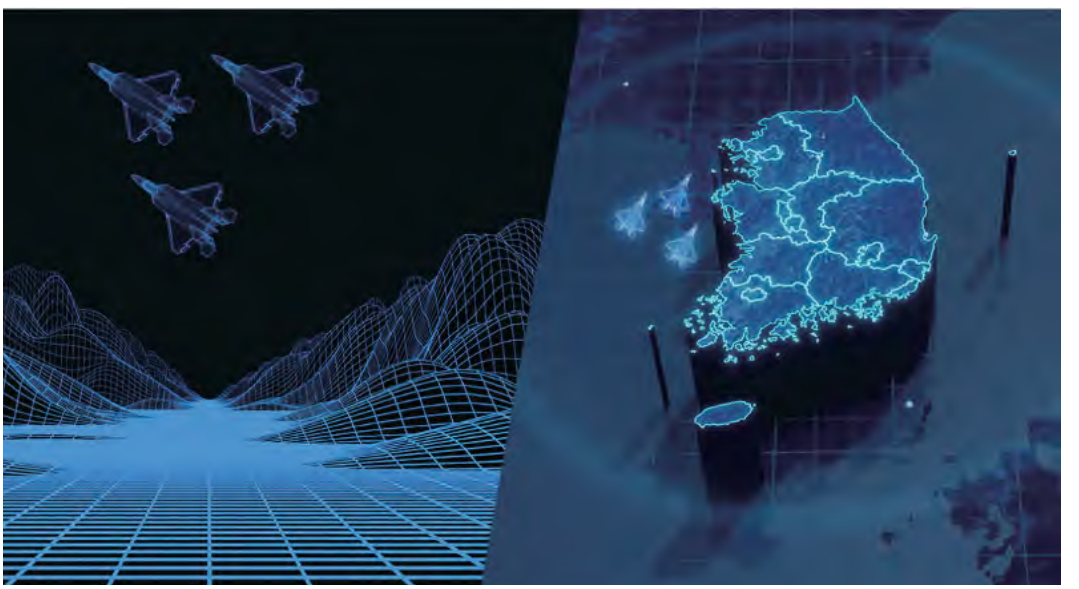
세 번째 방향은 LVC 기반의 합동·연합훈련과 수출형 교육훈련 플랫폼입니다.

실제 전력과 시뮬레이터, 컴퓨터 생성 전력을 안전하게 연동하고, 표준화된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새로운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T-50 계열 항공기와 한국형 기동헬기 등 국산 플랫폼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별 교리와 언어, 운용환경에 최적화된 교육훈련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K-방산의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길씨앤씨의 지난 26년은 대한민국 공군과 국산 항공기의 성장 과정에 교육훈련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을 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공군의 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자부심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한길씨앤씨는 현장의 경험을 기술로 바꾸고, 그 기술을 다시 전투력과 안전으로 환원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한 서비스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미래 교육훈련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글로벌 선도기업. 그것이 한길씨앤씨가 걸어갈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 신언서판(身言書判)

AI 시대에 다시 묻는 네 가지 질문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32기 | **신익현**



거대한 기술의 파도와 변하지 않는 질문

우리는 기술이 세상의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는 거대한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정리하고, 복잡한 외국어를 매끄럽게 번역하며, 정교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이터 속 숨은 규칙까지 찾아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랜 경험과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간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일들을 이제는 AI가 거침없이 대신하고 있다.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예측한다.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감시·정찰, 지휘통제, 유·무인 복합체계, 군수지원 등 전 영역에서 AI는 전쟁과 안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앞으로 AI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느냐가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선명해진다. “기술이 인간의 수많은 능력을 대신하는 시대, 그렇다면 사람에게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본질적 역량'은 무엇인가?” 나는 그 답을 오랫동안 동양 사회를 지탱해 온 네 글자의 지혜, 바로 ‘신언서판(身言書判)’에서 찾곤 한다.

천 년을 이어온 인재의 기준

'신언서판'은 당나라의 관리 선발 제도를 기록한 『신당서(新唐書)』 『선거지(選擧志)』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에는 과거 시험에 급제

했다고 해서 곧바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리 등용을 담당하는 전주(銓注) 과정에서 아래의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사람됨을 철저히 살핀 뒤에야 비로소 인재로 등용했다.

신(身) – (체모풍위 體貌豐偉)
: 풍채와 몸가짐이 바르고 위엄이 있는가?

언(言) – (언사변정 言辭辯正)
: 말에 막힘이 없고 논리와 조리가 바른가?

서(書) – (해법주미 楷法遒美)
: 글씨가 힘이 있고 필체가 아름다운가?

판(判) – (문리우장 文理優長)
: 사안의 이치를 꿰뚫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



북송(北宋) 시기에 당대 역사를 기술한 『신당서(新唐書)』

흥미로운 점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인재들 가운데 '누구를 우선하여 등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신당서』는 "네 가지가 모두 취할 만하면 덕행(德行)을 먼저 보고, 덕행이 같으면 재능(才能)을 보며, 재능이 같으면 공로(功勞)를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신언서판의 바탕에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기술적 역량에 앞서 '덕행과 인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 외모나 필체 자체를 인재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사람을 뽑는 제도와 형식은 변했을지언정,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길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가? 그 사람의 말은 얼마나 진실하고 명확한가?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다듬는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올바르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가? 천 년 전의 신언서판이 AI가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 시대, 신언서판(身言書判)의 현대적 재해석

〈身〉, 몸가짐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진정성을 보여준다

'신(身)'은 흔히 외모나 풍채로 단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타고난 생김새가 아니라 '자세와 태도,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다.군복을 입고 조국의 하늘을 지켜낸 공군인이라면 몸가짐이 결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흐트러짐 없는 복장과 바른 자세는 자

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숭고한 임무, 그리고 함께 생사를 나눌 전우들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이다. 작은 일상에서 스스로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해 낸다. 전투기 조종간을 잡고 임무를 수행할 때나 비행단을 지휘할 때,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언제나 한 사람의 자세에서 수많은 것을 읽어낸다. 약속 시간을 대하는 태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경건함,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맨 앞에 서는 담대함,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는 겸손함과 같은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진 책임의식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디지털·AI 시대에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면과 메시지로 소통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도 커지기 쉽다. 오늘날의 '신(身)'은 단순히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관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묻는 기준이어야 한다. 신은 결국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 걸맞은 진정성과 태도를 갖추고 서 있는가?"라는 자기 성찰의 질문이다.

〈言〉, 말은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는 영혼이다

'언(言)'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만으로는 '언'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정확성과 진실성, 그리고 책임감'이다.

군에서 지휘관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명령과 지시가 되고, 구성원의 행동을 결정지으며, 나아가 임무의 성패와 전우들의 생사까지 좌우한다. 비행 전 브리핑에서 전달된 한마디가 모호하다면 조종사와 정비사, 관제사는 저마다 다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채 활주로로 나가게 된다. 그렇기에 군의 언어는 명확하고 단호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지시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휘는 현장에 치명적인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기업 경영 역시 마찬가지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조직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임직원의 행동과 회사의 자원을 한곳으로 모은다. 리더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조직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리더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조직 내부에는 불신이라는 병마가 싹튼다.

AI는 이제 인간보다 훨씬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문장을 순식간에 완성해 준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수려한 문장을 만들어 낸다 한들, 그 말에 담길 '진심과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는 오직 인간만이 불어넣을 수 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리더의 가치관과 조직의 방향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언'은 "나의 말은 진실하며, 상대를 공감시킬 만큼 분명하고,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書〉, 글은 정제된 사고와 철학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서(書)'는 과거에 주로 뛰어난 필체를 의미했다. 하지만 과거 관리들에게 글씨가 중요했던 진짜 이유는 행정, 재판, 보고, 명령이 모두 글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정돈된 글이 곧 '업무 수행 능력의 핵심'이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서'는 필체를 넘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제하고 기록하는 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어도, 막상 글로 옮겨보면 논리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글을 쓴다는 것은 파편화된 생각을 정리하고, 사실과 의견을 엄격히 구분하며,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하는 치열한 지적 과정이다. 글에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철학이 고스란히 투영된다. 작전계획서와 지휘관 명령서, 기업의 전략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본질은 같다. 분량이 길거나 표현이 화려하다고 좋은 문서가 아니다. 현 상황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선택과 실행이 필요한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비로소 살아있는 글이다.

AI 시대에는 글 쓰는 행위 자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워졌다.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해도 AI는 그럴듯한 보고서를 뽑아낸다. 그러나 글을 대신 써주는 도구가 생겼다고 해서 '생각하는 능력'까지 도구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가 진실인가?, AI가 놓친 맥락은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최종적인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서'는 "나의 글에는 깊은 사고와 명확한 근거가 담겨 있으며, 나는 이 기록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判〉, 판단은 불확실성 속에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숭고한 결단이다

신언서판 가운데 AI 시대에 그 무게감이 가장 결정적으로 더해지는 항목은 단연 '판(判)'이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비극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더욱 난해해졌다는 점에 있다. 사실과 가짜 뉴스, 객관적 분석과 교묘한 선동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선의 선택지들을 확률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중대한 결정은 결코 데이터 계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결단, 조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결정,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선택에는 언제나 가치관의 충돌과 불완전한 위험이 동반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한다.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판'이다.

판은 정답을 찾아내는 기계적 능력이 아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핵심을 간파하고,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의 선택을 내린 뒤 '그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받아들이는 결단력이다.AI는 확률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결심의 결과로 고통받을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도, 잘못된 판단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없다. 결국 판단과 책임은 온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판'은 "나는 충분히 고뇌하고 판단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타인에게 미루지 않고 온전히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LIG 글로벌 데이' 행사에서
회사의 글로벌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 신익현 대표

기술이 강해질수록, 결국 '덕(德)'이 빛을 발한다

AI 시대에는 누구나 세련된 말을 하고 근사한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는 수년의 훈련을 거쳐야 했던 기술을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다룰 수 있다.그렇다면 결국 '사람과 사람을 구분 짓는 근본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겠는가? 나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와 목적',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가 인재의 차이를 만든다고 확신한다. 동일한 AI 기술을 두고도 어떤 이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활용하지만, 어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언서판의 끝에 반드시 '덕(德)'이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다. 『신당서』가 신언서판을 갖춘 이들 중 '덕행'을 최우선으로 보았던 혜안이 바로 여기에 있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품지 못하면, 그 능력은 도리어 조직과 사회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그 기술을 운용하는 인간의 품성과 윤리의식은 더욱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는 AI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AI가 잘하는 계산과 정리 작업은 주저 없이 맡기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올바른 질문, 책임 있는 판단, 따뜻한 공감과 결단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되, 기술에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다.

공군인과 성무(星武)의 정신이 나아가야 할 길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시절을 보내고 공군에서 복무하며 체득한 가장 값진 가치는 '맡겨진 임무는 결코 혼자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단 한 대의 전투기가 창공으로 출격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 관제, 방공, 정보, 군수 등 수많은 전우의 완벽한 톱니바퀴 조화가 필수적이다. '내 전우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없다면, 그 어떤 첨단 무기체계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 단단한 믿음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평소의 곧은 몸가짐(身), 진실한 언어(言), 정직한 기록(書), 책임 있는 판단(判)이 수없이 쌓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교의 교훈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교훈의 첫 구절인 '배우고 익혀서'는 『논어(論語)』 학이(學而) 편의 '학이시습(學而時習)'에서 유래한 것으로, 깊은 사고와 학문을 뜻하는 서(書)와 판(判)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구절은 헌신과 책임, 즉 덕행(德行)의 결정체다. 생도 시절에는 미처 다 알지 못했으나, 우리는 이미 신언서판과 덕의 가치를 가슴에 품은 채 성무의 뜰에서 4년을 정진했던 것이다.

군복을 벗고 방위산업의 최전선에 선 지금도, 사관학교에서 배운 이 가치들은 내 경영 철학의 가장 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우리가 종사하는 분야와 직책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공군인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공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있음은 변함이 없다. 특별히 사랑하는 후배 동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전하고 싶다. 새로운 기술을 누구보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주도적으로 활용하라. 디지털과 AI는 피해야 할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거침없이 타올라야 할 도구다. 그러나 결코 기술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내어주지는 말기를 바란다. 빠른 답을 구하기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리더가 되라. 수려한 말을 남발하기보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라. 방대한 글을 만들어 내기보다 '자신만의 철학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 되라. 정답을 추천받기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결심하고 책임지는' 리더가 되라. 그리하여 기술을 잘 다루는 차원을 넘어, '기술보다 더 거대한 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

변하지 않는 사람의 품격

신언서판은 박물관에 갇힌 옛사람들의 인재 등용문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매일 아침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삶의 이정표다. 나는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 걸맞은 자세로 서 있는가? 나의 말은 진실하며 책임질 수 있는가? 나의 글에는 정직한 생각과 명확한 논리가 담겨 있는가? 나의 판단은 공동체와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올바른 가치관을 품은 사람인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은 앞으로도 경이로운 속도로 진화할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국가를 지키는 패러다임도 빠르게 탈바꿈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원리와 리더가 갖추어야 할 품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최종 책임은 결국 사람이 지며, 조직을 살리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신언서판과 덕행이라는 단단한 뿌리에서 시작된다.

우리 동창회지의 이름인 『성무(星武)』에는 하늘 높은 곳의 숭고함과 정예를 길러내겠다는 굳센 의지가 담겨 있다. 그 숭고함과 굳건함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기계나 데이터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이다.창공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었던 공군사관학교 동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한편, 변하지 않는 사람의 품격을 높이 지켜나가기를 소망한다. 그것이야말로 공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방위산업의 미래를 더욱 굳건하게 지탱하는 길이라 믿는다. 끝으로 『성무지』 발간을 위해 헌신하시는 총동창회 임원진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LIG Defense& Aerospace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DNA
지키고 싶은 게 많은 만큼
지켜야 할 게 넓어진 만큼
우리의 DNA는
또 한 번 진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부터
가보지 못한 곳까지
대한민국을 넘어 우주로

행복사다리를 함께 올라가요!

전역 이후 10년, 장병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재능기부의 길

SLD행복연구소장
33기 | **정영진**



전역, 그리고 새로운 질문과 희망

모든 군인은 전역한다. 다만 그 전역 시기가 다를 뿐이다. 초급장교 시절 비행단 체육대회에서 축구 시합을 하던 중 눈 주위 뼈를 크게 다쳤다. 조종사의 생명인 눈을 다친 순간, 처음으로 '언젠가는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다행히도 치료가 잘 되어 조종사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언제든지 내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내가 좋아하면서 잘 할 수 있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현역에 있으면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을 계속하여 탐색하였다. 여러 비행단과 사령부 등 다양한 보직 경험과 공군대학,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강의를 좋아하고, 즐기는 나를 보았다. 아! 그러면 기회가 되는대로 더 공부해야겠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이후 자비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보직 기회가 되는 대로 장병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있으면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많은 강의를 주도하였다.

군인은 언제든지 인사명령을 따라 전역한다. 마지막 계급의 마지막 보직을 원하지 않던 부대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부임해 보니 하늘이 내게 준비해 준 길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기본군사훈련단장 보직을 이어 가면서 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특히 기본군사

훈련단에서 계급별 과정에서 교육받는 장병들에게 스스로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험하여 제도화한 일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학습 활동과 교육 현장에서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제2의 인생 꿈과 희망을 찾게 되었다. 군인으로서 임무는 끝나게 되었지만, 사람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돕는 일은 계속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 확인한 '인성교육의 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며 65세 정년이 보장된 대학 전임교수를 선택했다. 전역 다음 날 대학 강단에 섰다. 전공 교육과 함께 '긍정으로 오르는 행복사다리'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임 한 첫 학기부터 비교과 수업으로 '긍정으로 오르는 행복사다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설하였다. 군에서 실험했던 스스로 긍정심리를 지속가능하게 강화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두 학기 동안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우수한 강의 평가를 바탕으로 1년 후에는 전공 교양과목으로도 개설하였다. 학교에서 특별히 절대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어 수강인원 40명, 2개 강좌를 열어 청년 군인들에게 실험했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대성공이었다. 군에서나 학교에서나 스스로 긍정심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를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교육 경험이었다.

전역을 하기 전까지는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시행한 스스로 긍정심리를 강화하는 인성강화 프로그램을 육군훈련소와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해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단, 병무청 사회복무센터 등에 소개하고 정착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각 부대를 방문하여 소개하기도 하고,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에 두 차례에 걸쳐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병교육대장이 교체된 이후 바로 프로그램이 폐기된 것을 계기로 "군 내에 제도적으로 전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군에서 교육 서비스를 가장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격오지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교육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후 교수직을 유지하

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2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재능기부 활동 방법을 모색하였다. 2년 동안의 짧은 대학 교수 경험을 통해 군에서 배운 리더십은 명령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과정임을 대학 강단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SLD행복연구소와 행복사다리의 출범

"교육을 일회성 강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나눔으로" 꿈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개인연구소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연구소의 명칭은 'Spiritual Life Design'이라는 철학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로 SLD행복연구소로 명명하였다.

Spiritual Life는 인간의 삶과 욕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초월적 상태,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을 바꾸고 질문을 하여 다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Design이 필요하다. 그래서 Spiritual Life Design이다. 따라서 SLD는 자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 자신과 타인, 공동체,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SLD행복연구소는 홍익인간을 비전으로 긍정, 감사, 사랑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비영리단체 행복사다리는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재능기부를 연결하고 후원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웃, 친구, 어르신들께 행복 교육을 선사하고, 아울러 격오지에서 봉사하는 군인들의 행복한 군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부하였다.

SLD연구소와 행복사다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교육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행복사다리의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공군 교육사령부 근무 시절에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계룡대근무지원단장 근무시 인연이 되었던 육군 중령 참모의 요청으로 7사단 신병교육대 교관 및 조교들에게 스스로 긍정심리를 강화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그 성과는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확실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대학 교수 재임 중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및 교양 수업으로 "긍정심리로 오르는 행복사다리"라는 주제로 3학기 동안 제공하였다. 그러다가 대학 교수를 사임한 뒤에야 비로소 격오지 군 장병들을 위한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다시 군으로, 장병 인성교육

"현역 시절의 경험으로 현역 장병들을 만나다"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긍정심리를 강화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전 군에 확산하고자 하는 꿈을 접는 대신에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2018년 3월부터 일월산을 비롯한 레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재능 기부 후원 플랫폼

SLD행복연구소

행복사다리는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재능 기부를 연결하고 후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웃,친구,어른들의 행복 교육을 선사합니다
격오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군인들의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부합니다

행복사다리는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144-82- 67646)로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준비 중입니다



이다 사이트 기지 10곳을 정하여 부대에서 원하는 날에 방문하여 교육했다. 격오지 부대는 교육 장소도 마땅치 않아 장병 식당을 활용하였다. 다행히 장병들도 잘 참여하였고, 교육 만족도도 좋았다. 후반기부터는 교육 대상을 방공포병 부대로 확장하였다.

다음 해부터는 서해 도서에 근무하는 해군 해병대 장병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하였다. 해군 2함대 예하에는 00개의 도서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해 보면 과자 하나 사서 먹을 만한 상점도 없는 오지 섬이다. 백령도는 오가는 뱃길 시간만 10시간이다. 도서에 격리되어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한 긍정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기쁨과 보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격오지 부대 교육을 위해서는 먼 길을 가야 한다. 울릉도에 있는 공군 관제부대에 교육을 하러 가려면, 서울에서 울릉도행 선박을 타기 위해 강릉이나 묵호, 포항으로 가야한다. 새벽에 출발하여 아침 배를 타고, 멀미를 참으며 험한 뱃길을 따라 울릉도도 동항에 도착하고, 한 시간여 차를 타고 부대에 도착한다. 총 9시간이 소요되는 먼 길이다.

식당에 모인 눈이 초롱초롱한 장병들에게 긍정심리 교육을 열심히 진행하였다. 교육을 하면서 한 병사가 열심히 참여하여 특박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나중에 주임원사에게 들어보니 관심병사여서 도통 이야기를 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교육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열심히 참여하여 깜짝 놀랐다고 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병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 오늘 교육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꼭 계속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는 긴 뱃길의 피로를 모두 잊게 만들었다.

격오지 장병에 대한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연구소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강연 수입,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소액 기부로 운영하였다. 통상 비영리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운영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행복사다리에서는 그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조직과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0"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재능기부 희망자를 섭외하여 제공하고, 강사진에게는 실경비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사다리 설립 이후 물심 양면으로 성원과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3월에 시작된 격오지 부대 장병 교육 재능기부는 코로나 유행병으로 부대 방문이 제한되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부대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방침이기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교육 방문한 횟수를 보니 약 100회가 되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비롯한 서해 5개 도서, 2함대 예하 8개 도서 기지, 최북단 공군 레이다 기지부터 제주도 공군부대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방공 미사일 부대 등 100여회에 걸친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여러 부대에 다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협조를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모두 난색을 표시하여 더 이상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군 부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였다. 격오지 교육 재능기부를 하면서 장병들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찌 보면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나 자신이었다.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내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주었다. 전역 이후 그 어떤 일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로 이어진 교육

"군부대의 문이 닫혔을 때, 마을의 아이들이 새로운 제자가 되었다" 코로나 유행병 시기에는 이도 저도 다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활로를 찾았다. 먼저 질병으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게 된 계기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용산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했다. 코로나가 잡혀갈 무렵부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용산구청에서 주관하는 미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새로 초·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을 교육해야 했다. 이때부터 사서교사 자격이 있는 아내도 강사로 동참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하였고 2023년 공모사업에 채택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부부 강사단이 되었다. 아내가 강의하면 내가 보조강



사, 내가 강의하면 아내가 보조강사 역할을 맡아 주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흥미롭다. 해가 갈수록 수업에 대한 소문이 나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전화를 주신다. "올해에도 우리 학교에 수업을 꼭 해주세요!"

2026년에도 4년 연속으로 용산구 초중고등학교에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군 경험을 살린 "조종사 진로체험 교육",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시행했던 프로그램에 기초한 사회정서 증진 프로그램 "버츄 프로젝트", 30여년 동안 수련한 단전호흡과 명상 경험을 살린 "싱잉볼 명상과 아로마 세라피", 군 장병들에게 교육했던 금융-경제교육 컨텐츠 등 학교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함께 강의를 진행하는 아내는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강사다. 원예 프로그램과 그림책을 접목하여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수업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교육 예산이 넉넉지 않아 직접 발로 뛰면서 가장 저렴하게 좋은 재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교육 재료를 자잘하게 준비하는 일은 내 몫이다.

두 부부가 앉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재료를 준비하고 있으면 눈도 아프고, 허리도 쑤신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기뻐하는 아이들의 웃음을 생각하면 기운이 불끈 일어난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교육은 정답을 빨리 알려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날 시간을 믿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전역을 앞두고 "나는 어떤



씨앗이 되어야 할까" 고민했던 시간이, 이제는 다양한 꽃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다. 어떤 꽃이 필까? 궁금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 하나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달라서 모두 좋아요.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계속 씨앗을 맺고, 싹이 트고, 꽃이 핀다는 것이다.

공군이 내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

"퇴역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복무의 시작이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시작된 나의 삶은 조종사로서의 복무를 거쳐 이제는 교육과 봉사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 공군이 내게 가르쳐 준 책임감과 공동체 정신은 지금도 대학생과 장병, 그리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모든 교육 현장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전역 후 10년 동안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계급장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사람을 키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명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가를 지키던 사명이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다.앞으로 이 길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에 뿌려진 씨앗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공군이 내게 맡겨 주었던 또 하나의 복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 믿는다.

"자! 우리 모두 행복사다리를 함께 올라가요!"





스페인 이민생활,
그 후 두 번째 이야기

33기 | **나병엽**

지난해 총동문회에서 해외 이주 동문의 이야기를 기고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스페인에서의 지난 7년을 돌아보는 글을 썼습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공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올해는 그 후속편으로서의 저의 '인생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침술사라는 직업이 왜 인생 후반전에 적합한지, 그리고 스페인 발렌시아에서의 이민 생활이 어떻게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운 강인한 정신력과 조종사로서의 정교함,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은 제 삶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누비던 젊은 시절부터, 저는 언젠가 군복을 벗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은퇴하여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에게 '인생 2막'을 위한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침술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중 브라질 유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따뜻한 기후와 여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고, 오랜 탐색 끝에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인생 후반전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선택한 직업은 바로 '침술사'입니다. 침술은 군 복무 중 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스페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람 있는 제2의 천직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익힌 분석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은 침술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혈자리를 찾아 정교하

게 침을 놓는 과정은 마치 비행 중 상황을 분석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조종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 침술사가 매력적인 이유

침술사라는 직업은 인생 후반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체의 신비와 질병의 원리를 탐구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양 의학의 깊이 있는 철학을 이해하고, 서양 의학과 접목하여 환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은퇴 후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삶에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매일 새로운 환자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건강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침술 치료를 통해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고, 삶의 질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특히 스페인 현지 환자분들이 한국의 전통 의학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곳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경제적인 보상 이상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는 침술사는 자신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근무 시간과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페인에서는 한국과 달리 침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비교적 유연하여, 한국에서의 교육 수료증만으로도 개원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저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환자진료시에는 진료에 집중하고, 진료예약이 없는 날에는 여유롭게 스페인의 문화를 즐기거나 자기 계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년 없는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침술은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섬세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의 군 생활 경험이 침술사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의 평화롭고 건강한 이민 생활

스페인, 특히 제가 거주하는 발렌시아 지역은 인생 후반전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첫째,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햇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렌시아는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온화하며, 특히 겨울에도 한국의 가을 날씨와 같아 야외 활동을 하기에 최적입니다. 풍부한 햇살은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 전에 공원에서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상쾌

한 공기를 마십니다. 이러한 일상은 한국의 사계절 변화에 익숙한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마냐나(Mañana)' 정신처럼 서두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점심시간에는 '시에스타(Siesta)'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타파스(Tapas)'를 나누며 담소를 나눕니다. 이러한 문화는 저로 하여금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웃과의 따뜻한 눈인사,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매년 3월 발렌시아를 뜨겁게 달구는 불꽃 축제 '라스 파야스(Las Fallas)'와 같은 다채로운 축제들은 이곳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노인과 약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연로한 분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경받으며,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물론, 길을 걷다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려는 이민자로서 제가 이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이 들어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과 저렴한 물가는 노후 생활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건강한 식문화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발렌시아는 신선한 해산물과 풍부한 채소, 과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기본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은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저와 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해변과 넓은 공원, 그리고 근교의 자연 보호 구역은 언제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의 침술사로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37년간의 군 생활이 제 인생의 전반부를 빛냈다면, 스페인에서의 침술사로서의 삶은 제 인생의 후반부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언젠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함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 나눌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또한 의미 있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버지의 길, 나의 하늘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소령(진) | **장한샘**

2016년 12월 1일, 제137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임관한 장한샘 소위(24)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장 소위의 아버지는 예비역 장경식 준장(공사 33기, 정보통신)이며, 큰아버지는 고(故) 장경조 중령(2사 2기)으로 조국의 영공을 지키다 1988년 오산 상공에서 순직했다.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한 두 분의 삶은 장 소위가 공군 장교의 길을 걷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네이버 '장한샘 소위' 검색 결과)

저는 군인 가족으로서 아버지께서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근무하시던 시절, 대전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두 살 터울의 오빠가 있어 여자아이가 태어나자 부모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당시 대대원 가운데 같은 시기에 딸을 얻은 전우가 있었는데, 그 분은 둘째도 딸이어서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반면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대대원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예쁜 꼬까옷을 입기 시작하던 무렵, 아버지께서 미국 공군 정보통신 장교과정 이수를 위해 도미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미국 남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를 거쳐 미시시피주 빌럭시 공군기지 인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흑인 아이들과 어울려 뛰놀던 기억, 자동차를 타고 놀이공원 등을 구경했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다섯 살이 되어서는 공군사관학교 성무유치원에 다니며 꼬깔모자를 쓰고 운동회도 하는 등 평범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가끔 아버지의 부대를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보기도 하고, 모자와 군용 화이버 헬멧을 써 보는 정도의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는 공군 최초로 해외 위성통신 연수과정 요원으로 선발되셨고,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시절 영국에서 학교생활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도 많았지만, 수학과 예체능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저는 드럼 연주를 좋아했고, 베이스기타를 독학으로 익히며 음악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또한 길거리 농구를 즐기며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고, 교회에서는 난타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등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에는 진학해야겠지만 재수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여 컴퓨터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시기가 되자, 문득 공군에서 여군 장교로 근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의견을 여쭈었더니 "네가? 왜? 공군을?" 하시며 처음에는 매우 의아해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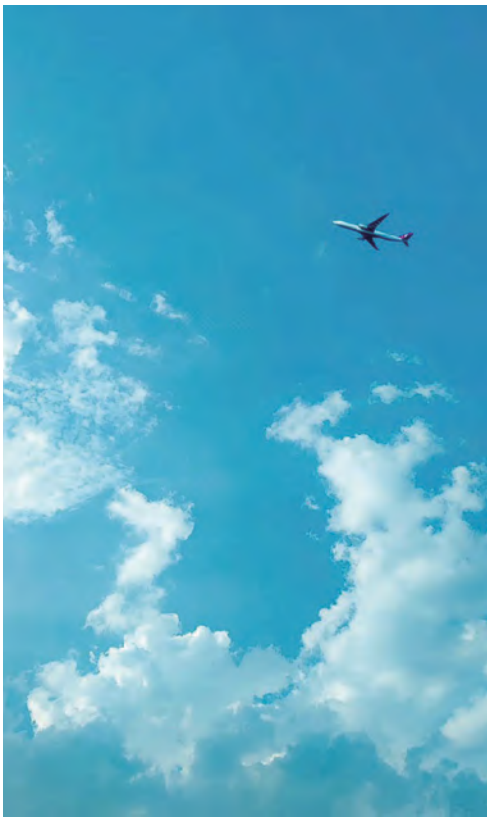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공군의 우수한 조직문화와 공정한 근무환경, 개인의 역량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조직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장교 선발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과 정보통신병과장을 겸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보처리기사, 한국사 등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아버지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오해를 살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 대신 일반전형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선택을 뜻밖으로 여기셨지만, 저의 소신을 대견하게 생각하시며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습니다.이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감사하게도 합격통지서를 받았고, 제136기 공군 학사사관후

보생으로 교육사령부에 입대했습니다. 학사사관후보생 교육은 모두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인 '복종'(1~2주) 기간에는 병영생활교육, 총기 수령, 제식훈련, 도수체조 등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2단계인 '인내'(3~7주) 기간에는 화생방훈련과 사격훈련, 유격훈련 등 기본 전투기술을 익히며, 교육을 마치면 2박 3일의 특별외박이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3단계 '극기'(8~10주)에서는 재난통제, 기지방호, 행군훈련, 권총사격 등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마지막 4단계인 '충성·자율'(11~12주)에서는 상담기법과 의사전달,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임관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공군 장교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1단계 복종훈련 기간 중 오른팔을 크게 다쳐 경례는 물론 집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본군사훈련단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수차례나 의무대와 진해 군인종합병원 등을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X-ray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꾀병을 부리는 후보생으로 오해를 받았고,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 갔습니다. 절망감이 커지던 어느 날, 편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공군의 현실을 잘 알고 계셨을 아버지께서 왜 제가 공군 장교의 길을 선택하려 할 때 말리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무대에서 환자 후보생을 관리하고 배려하는 방식에도 적지 않은 아쉬움과 불만을 느꼈습니다.



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열외 후보생이 되었고, 매 순간이 악몽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동기들과 함께 훈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중대장 등 지휘계통으로 퇴영 의사를 밝혔고, 마지막으로 훈련단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훈련단장님의 배려로 입교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의견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남겨 두고 나오너라." 그 말

씀은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몸을 회복한 뒤 다시 입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훈련 5주 차에 귀가 조치되었습니다.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과 근육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육사령부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두렵고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피하기만 할 것이냐."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국 제137기 입영을 일주일 앞두고 재입대를 결심했고, 다시 교육사령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재입영 후에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끝까지 마쳤고, 마침내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282명과 함께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공군 1호기 객실 승무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님 내외



예비역 공군 장군이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 역시 공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군 장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136기로 입대하여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훈련 중 부상으로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재활을 마치고 제137기로 다시 도전한 끝에 마침내 소위 계급장을 달 수 있었습니다.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공군 장교로 임관하기까지 겪었던 모든 역경을 밑거름 삼아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정예 공군 장교가 되겠다.“

아버지께서는 딸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셨지만, 군복을 입으셨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군인이셨습니다. 저는 나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분이셨고,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공군 장교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공군 장교가 지녀야 할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공병장교로 임관한 저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육·해·공군의 각종 시설공사 현장을 다니며 실무를 익히던 중 공군객실승무원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지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발되어 4년 동안 공군 1호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평양을 두 차례 방문했으며, 세계 약 45개국 60여 도시를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역 시절 약 30

개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짧은 기간 동안 그보다 더 많은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군 장교였기에 누릴 수 있었던 소중한 축복이자 평생 잊지 못할 자산이 되었습니다.이후 공병대대 통제실장과 화지대장 등 공병 분야의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지휘관과 참모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제게 감사와 배움의 시간이었으며, 현재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 공병참모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제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되새기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이 말씀은 매 순간 제 삶을 붙들어 주는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령으로 진급하여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지금은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시련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공군 가족으로 태어나 공군 장교가 되었고, 이제는 영관장교로서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공군 장교라는 자부심을 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의 명예를 더욱 빛내는 장교가 되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매공원 성무탑과 헌시

15기 | 최성열

성무대탑(星武臺塔)이 건립되기까지

내가 생도시절 공군사관학교는 서울특별시 대방동에 있었다. 김포에서 개교해 6.25 전쟁 중 제주, 진해를 전전하다가 대방동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1958년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현대식으로 지었다고는 하나 성냥갑 같은 흰색 콘크리트 2층 건물들이 사열하듯 줄을 맞춰서 있을 뿐이었다. 관악산만이 멀리 보일 뿐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새로 심은 키 작은 소나무만이 흰 건물 앞 자락을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를 보상할 만한 조형물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임택순 대위 동상과 보라매 동상이 있었으나 우리들의 꿈을 키우기엔 충분치 않았다. 말간 유리 안에 갇혀 있는 듯 마음을 기댈 데가 없었다. 육사 화랑대에는 곳곳에 선배들이 졸업기념으로 해놓은 조형물들이 태릉 숲과 잘 어우러져 운치가 있었다. 해사 옥포대는 조형물이 많지 않아도 푸른 바다와 넘실대는 파도가 생도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었다.

꿈 많은 청년사관으로서 인성과 학문을 닦아야 하는 생도시절을 전통이 깃들어 있는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싶었다. 그러면 팽팽한 긴장감과 살벌한 생활이 순화될 것 같았다. 아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는 기틀이라도 잡히면 마음에 위로라도 될 것 같았다. 새로 조성된 캠퍼스라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속에서도 좀 더 웅장한 졸업 기념물을 남기지 않은 선배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생이 육사의 한 개 기생 숫자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해도 되었다.

1966년 4학년이 되자 나는 기념사업 위원이 되었다. 후배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기념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다. 4개 동기회가 공동으로 졸업 기념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번듯한 조형물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학 중인 15기에서 18기 생도들이 머리를 맞댔다. 공동으로 졸업 기념사업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기금은 4개 기수가 균등히 분담해서 총 50만원을 만들기로 하고 각 학년 2명씩으로 기념사업 위원회를 구성했다.일단 의견을 모았으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아는 것도 정해진 것도 없었다. 그저 공군은 최첨단 과학 군이고 학교 교정이 바둑판처럼 질서 정연하기에 구상보다는 추상적인 조형물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조형물 건립을 위한 조각가를 찾아 나섰다. 무턱대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찾아갔다. 교정에서 조각하는 교수님이 누구시냐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어느 한 학생이 안내해 준 교수 한 분을 만났었다. 한국 최초의 추상 철 조각가 송영수 교수였다. 송 교수님께 생도들의 뜻을 말하고 작품을 의뢰했다. 얼마 후 스케치한 기념탑 그림이 왔다. 탑은 기단 위로 가운데 공간이 빈 역삼각형 3개가 120도 각도로 V자형으로 서고 그 중심에 둥근 원이 위치했다. 원으로부터 솟아나온 굵은 봉 끝부분에서 13개의 가는 봉이 빛살처럼 퍼져 나가는 형상이었다. 학교 분위기에 적합할 것 같았다. 생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가 좋다고 했다.



실제 설계도를 그리고 소요 비용을 산출하니 총 108만원이 나왔다. 4개 동기회가 최대 갹출할 수 있는 기금의 곱절이 넘는 액수였다. 대대장과 면담했다.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였다. 대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최생도 내 집 팔아서 줄까요? 신림동 방 3칸짜리 문화주택이라는 우리 집이 50만원이야",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당부도 하셨다. 그러나 뜻한 것을 꼭 이루고 싶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교장실로 찾아갔다. 생도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교장실에 불쑥 나타나 면담하겠다고 하니 비서실장이 놀라 안 된다고 했다.

면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버텼다. 안 되더라도 후련하게 말씀이나 드려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떼를 쓰니 비서실장이 하는 수 없이 짧게 용건만 말하고 나오라고 했다. 생도들의 취지를 간곡하게 말하고 부족한 예산을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김성룡 교장님이 말했다. "그래, 생도들이 좋은 뜻으로 애쓰고 있는데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



헌시 _ 한운사

하늘에 건다.
드높고 푸르른 하늘에 건다.
부귀와 영화에 눈을 둘소냐
세계를 품하고 나르는 의지
영겁을 지나도 찬연하리라
청춘의 순결을 한데 모아서
성무대 언덕에 치솟는 불길
보라 어둡고 혼미한 세상에
의연히 선 불사조의 모습을

설마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못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니 뛸 듯이 기뻤다. 후에 짐작한 것이지만 아마 그해 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군사관학교를 성무대로 명명한 것에 대한 후속 처리를 구상하다가 생도들의 계획을 보고 받고 공동사업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었다. 얼마 후 학교 예산이 확보되어 생도들과 학교가 사업 공동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조형물의 주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며 비상하고자 하는 생도들의 뜻을 기리고 성무대(星武台) 명명을 기념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의 작품을 포함해서 작품 공모 절차가 진행되었고 전체 학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제출되었던 송영수 교수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헌시는 영화 "빨간 마후라" 작가인 한운사의 헌시가 선정되었다.

기념탑은 정문 위병소를 헐고 그 자리에 세우게 되었다. 교장님의 각별한 배려였다. 학교로 들어오는 길 정면 오르막 끝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첫 번째로 마주치게 되어 있었다. 앞으로 공사의 상징이 될 것 같았다. 송 교수에게 조형물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공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일 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생도들이 의미를 부여해도 좋은지 물었다.

그리고 기념탑 정상에 사방으로 퍼져 나간 뾰족한 첨봉들이 13개인데 14개로 늘려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 14개 도에서 모인 젊은이들의 하늘에 대한 동경과 이상을 불태우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였다. 송 교수가 조형상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의미도 좋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기념탑 제액(題額)의 액자(額字) 성무대(星武台)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였는데 무(武)자의 삐침이 너무 길어 다른 글자와 균형을 맞춰 중간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끝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

성무대 탑이 1966년 12월 20일 완공되었다. 제막식은 4개 기생 공동 졸업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다. 공사신문 제44호 1967년 2월 24일(금). 전면에는 "제15기 사관 졸업 및 임관"이란 제목 아래에 졸업 특집 기사가 실렸다. "동굴같이 비어버린 마음을 채우지 못하던 시절, 주위를 둘러보며 선배들의 마음을 읽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는 선·후배 간 유대를 기리는 흔적이 많지 않았다. 이에 우리 15, 16, 17, 18기생은 졸업을 기념하여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을 담아 성무대 탑을 세운다.

(중략)

이 성무대 기념탑은 총예산 규모 108만원으로 전장 18미터, 기단 직경 5미터. 독수리 날개를 상징한 탑신과 그 위에 지구를 받쳐 비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을 상징했으며 첨탑 끝의 가지는 14개로서 전국 14도로부터 운집한 생도들의 이상을 빛나는 별과 같이 나타내었다.

1985년 청주 캠퍼스로 이사를 했다. 공사의 상징이 된 성무대 탑을 이전하려 했으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이전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대방동에 있던 본 탑은 그대로 두고 실측해서 1.2배로 키워 청주에 복원했다.1990년 1월 졸업 후 23년 만에 생도대장으로 모교에 다시 돌아왔다. 성무대탑이 날개를 펄럭이며 반갑게 맞이하는 듯싶었다. 옛날 모교를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성무대 탑으로 갔다. 대방동 캠퍼스(지금은 보라매공원)에 세워졌던 탑보다 훨씬 웅장했다. 정면 헌시를 읽고 뒷면으로 돌아 우리들의 뜻을 기록한 동판을 찾았다. 그런데 없었다. 단지 새로 복원한 일시와 시공사만 적혀있을 뿐 탑을 건립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취지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성무대 제액도 박대통령 액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글씨로 바뀌어 있었다. 선배들이 자신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세운 진정한 정신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옮겨 놓은 듯 싶었다. 면면히 이어져야 할 전통이 단절된 듯했다. 이전할 때 학교 예산으로 복원했기에 취지문을 삭제한 것이었다.

성무대 탑의 근본 뜻을 살려 전통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15, 16, 17, 18 동기회가 다시 뜻을 모았다. 학교에 건의해서 성무대 탑 기단 뒷면에 그 뜻을 오석(烏石)에 새겨 다시 세웠다. 성무대 탑은 대붕(大鵬)의 웅지를 품은 공사의 상징물로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를 기리는 표상이다. 성무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전통이 면면히 이어질 것이고 성무대 탑은 오래도록 이를 지켜볼 것임을 우리 모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06

동문마당

임관너머

공사 24기 '웅비'의 졸업 | 이영종
전우회 장학재단 설립 회고 | 권태정
보라매의 요람 | 유준종
공군인의 건강 & 전투력 지킴이 | 신현승

문학유람

보라매_시 | 강일구
비상출격_시 | 강충순
창공_시 | 김익래
하얀 계절 붉은 마음 | 금기연
하늘사랑 | 김익래
이수회 | 최종묵
신의 침묵 | 박창용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박수철
공사도라지 모음 | 임성남
나의 친구, 스티브 잡스 | 은진기



공사 24기 『웅비』의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기념하여

24기 | 이영종

공사 24기 “웅비”는 2023년 말 총회에서 2년 후 맞이하게 될 졸업 및 임관 50주년의 해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향후 업무 추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행사 당해 연도의 웅비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실무준비단을 발족하고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1일 행사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단, 자문위원단, 실무위원단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조직도 갖추었다.

이번 행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동기생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별적인 연락과 동의 절차를 거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임원진 회의와 실무위원단 회의는 물론, 전화와 카톡 등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보라매공원 걷기, 자체 기념 오찬회, 공군사관학교 기념식 참석, 작품 전시회, 기념 여행, 모교 발전기금 출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종합되었다. 특히 발전기금 출연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수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보라매공원에서 걷기

지난 3월 26일, 보라매공원 걷기를 시작으로 기념행사의 막이 올랐다. 이날은 1976년 3월 26일, 공사 24기가 성무대에서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



치고 소위로 임관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공원의 성무탑 아래에는 부부 동반 또는 단독으로 동기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총 45명이 참가하여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으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그 가운데에는 목포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와 행사에 앞서 옛 교정을 먼저 둘러본 동기생도 있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한 그의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일찍 전역하여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많은 봉사를 해온 그는 과거 공군사관학교의 흔적이 많이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고, 동기생들 역시 옛 교정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공감하였다. 참석자들은 가입교를 하면서 당시 성무대 언덕을 넘던 시기를 회상하며 성무대 탑 아래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옥만호 둘레를 따라 걸으며 지난 시절의 추억과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고, 연병장을 걸으며 혹독했던 가입교 훈련, 각종 행진과 훈련, 체력단련, 그리고 졸업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생도시절의 기억을 되새겼다. 과거 내무반 건물들의 외부를 둘러보고 2대대 건물이었던 뒤 동으로 진입하여 계단을 거쳐 1대대이었던 앞 동 내부를 돌아보았다. 지금은 건물들이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세미나실과 회의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대 건물의 기본 골격은 여전히 남아 있어 내무생활의 기억들 – 각이 잡힌 내무정돈, 캐비닛 앞에서 살벌하게 받던 점호, 대청소와 빨래 등 – 을 생생히 떠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위통은 맨몸에다 팬티만 입고, 오른발에는 군화를, 왼발에는 실내화를 신었으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예복 띠를 두르는 등 괴이한 복장으로 정렬해 얼차려를 받았던 옥상도 그대로 있었다. 이어서 점호장으로 나왔는데 그곳은 춥거나 덥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 점호를 받으며 온갖 훈육을 받던 장소다.

끝으로 충효탑에서 선착순을 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쉽게도 수많은 애환이 서렸던 옛 생도회관 건물은 다른 시설 건축을 위해 철거 중이었고, 지금은 동작 갤러리로 활용 중인 옛 성무교회 건물 역시 주변이 공사 중이어서 접근할 수 없었다. 끝으로 과거 체육관과 식당이 자리했던 곳에 들어선 근처 건물의 식당에서 오찬과 함께 옛 추억의 이야기꽃을 피우고 헤어졌다.

기념 오찬회

4월 8일에는 공군호텔에서 기념 오찬회를 가졌다. 부부 동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교기 입장을 시작으로 화기애애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군 참모총장과 공사 생도들이 보내온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고, 이어서 공군사관학교 기념행사 계획과 공사 발전기금 출연 현황 보고, 생도 시절의 영상과 동기생들의 근황 영상 상영, 축하 연주, 오찬, 단체 사진 촬영 등이 이어졌다. 그중 테너 안창수 동기생과 소프라노 김현정 님, 피아노 최은순 님이 축하 연주를 해주었는데 오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공군 호텔 측의 협조하에 성무대에 정렬한 기수단과 생도들을 배경화면으로 한 포토 존을 별도 제작 설치하였고, 공사에서 보내준 생도예복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였다. 많은 동기생이 50년 전, 생도시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무엇보다도 의미가 깊었던 것은 공사발전기금의 출연이었다. 총 10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목표 대비 175%를 달성하였고, 1천만원 이상 출연자도 33명에 달하였다.

준비위원회는 2024년부터 선배 기수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투표를 통해 출연 방식을 결정한 뒤 개인별 약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동기생들뿐만 아니라, 약정액을 훨씬 초과하여 기부한 동기생들, 약정 없이 직접 출연한 여러 동기생, 해외 거주 동기생들과 유가족들, 명예 회원의 참여까지 더해져 의미를 더욱 깊게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가급적 많은 인원의 참여를 희망하였었는데, 기대를 뛰어넘는 큰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다.

이는 생도시절 함께 체득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이해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동기생들 모두 함께 이루어 낸 결과에 만족하고 그런 웅비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오찬 내내 동기생들은 지난 50년을 돌이켜 보며 추억과 근황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 속에 우정을 이어 가기를 기원하였으며, 모두 뿌듯한 마음으로 단체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오찬회를 마무리하였다.

작품 전시회

작품 전시회는 행사 준비 초기부터 구상된 프로그램이었다. 웅비 동기생들은 모교에서 처음으로 우리만의 작품 전시회를 열어보자는 데 뜻을



모으고 준비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개관식 날인 4월 14일부터 공식 기념 행사일인 18일까지 공사 학술정보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학교 졸업 또는 전역 후 개별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동기생들은 많았지만, 이를 한데 모아서 전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동기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작품활동을 하는 가족들까지 작품을 내면서 준비 과정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총 11명이 참가하였고, 35개의 작품이 제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서예 (안인규, 이장세), 동양화 (류동수), 민화 (조진경 부인 김은하), 유화 (박상묵 부인 김현미, 최재희 부인 박현숙), 인두화 (공윤석), 시화 (강임구와 부인 최연옥), 사진 (유원봉, 하원훈)이 어우러진 종합 전시회로서 최소 15년 이상 활동을 해온 경력이 말해 주듯이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과정에서 동기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지만, 작품 준비와 배송, 수집과 설치, 개막식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작품 설치를 위해 아낌없이 수고를 해준 하원훈, 류동수 동기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개관식에서는 공군사관학교 교장의 테이프 커팅 후 작가들의 작품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동기생들과 사관생도, 학교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관람하였고, 4월 18일 모교 기념행사 시는 더 많은 웅비 동기생과 가족은 물론, 기념행사 참가 후배 동문과 가족들까지 찾아와 관람하는 등 더욱 뜻깊은 전시회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가 후배들에게도 삶 속에서 또 다른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공군사관학교 기념식

4월18일 성무대 연병장에서 공사 총동창회 주관으로 매 10년 주기 졸업 및 임관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야산과 성무봉은 연녹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화창한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성무대는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이었다. 성무탑, 분수, 건물들이 밝고 깨끗한 외관을 드러내는 가운데 연병장에는 사관생도들이 늠름하게 정렬해 있었다. 관람석에는 공사 24기 웅비를 비롯하여, 34기 한울, 44기 다물, 54기 천우, 64기 하나인 동문과 가족들 모두 1,200여 명이 자리하였다. 우리 웅비는 동문과 가족, 친구들을 포함하여 4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열병, 생도시절 추억 영상 상영, 생도 응원단 공연, 발전기금 전달, 분열, 블랙 이글스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모총장이 직접 임석하여 환영사를 해주었고 행사 후에는 참석 가족들과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어 공군 전 장병을 감싸는 친근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특히



웅비는 공사 발전기금으로 5억 2천4백여만 원을 전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상보다 훨씬 큰 기금을 전달하여 많은 참석자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번 기념식은 성무대에서 흘렸던 땀과 열정이 각자의 삶 속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공군 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조국과 하늘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전역 후에도 생도 시절에 체득한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성무대를 거쳐 가는 공군 장교들이, 전쟁 양상이 휴머노이드 로봇, AI, 유무인 복합체계 등으로 더욱 복잡해질 미래에도, 조국의 하늘과 우주에서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길 간절히 기원하였다.

기념식 후에는 '영원한 빛' 추모비에서 헌화 및 참배와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서 생도 식당으로 이동하여 학교에서 정성껏 준비한 녹두 찹쌀밥과 전복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며 생도들과 담소를 나누고 동문과는 옛 추억들을 회상했다. 오찬을 마치면서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신 공사 총동창회 황성진 회장님과 위강복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또한 지난 기념 오찬 시 축하 영상을 보내주었던 전대장 생도와 1, 2대대장 생도에게도 직접 고마움을 표했다.이어서 작품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생도들은 물론, 다른 동문과 가족들도 많이 관람하는 모습을 보고 전시회를 준비하며 겪었던 어려움은 어느새 큰 보람으로 바뀌었다.

이후 생도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을 돌아보며, 잘 정돈된 침구류, 의복, 개인 장구 등을 둘러보니 그 옛날 생도 생활이 새삼 떠올랐다. 졸업할 당시 많은 생도가 다시 사관학교에 들어가라면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자율 시간도 많고 내무반도 6명 대신 2명이 사용하며 소양 교육을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등 나름 자유로운 생도 생활이라면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

다. 마지막으로, 공군사관학교 기념관을 관람하고 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항공기들을 둘러본 후 모교 방문 행사를 마무리했다.

기념 여행

아직 남은 행사로 자체 기념 여행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다. 의견 수렴을 통해 당일 여행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여행지와 방법은 논의 중으로 곧 확정될 예정이다. 바람이 있다면 아직 한 번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동기생들이 이번 만큼은 모두 함께하여 졸업 및 임관 50주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을 맺으며

성무대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마치며 수고해 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별히 행사를 주관해 주신 공사 총동창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치밀한 준비를 해주신 공군사관학교 교장님과 계획처장님을 포함한 실무 관계자들, 열병과 분열을 멋지게 해주었고 각종 안내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사관생도들, 하늘에서 장엄한 공중 묘기를 펼치며 축하비행을 해준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과 정비사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편, 임무 중 사고나 병환 등으로 먼저 하늘의 별이 된 21명의 웅비 동기생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부족한 준비 위원단이었지만 모든 동기생이 자랑스러운 웅비의 일원으로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참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캐나다에서 가족들과 일시 귀국하여 참석해 준 최삼조와 박준포 동기생, 명예 동기생 박철규, 공군전우회 대구 지회장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육군사관학교 동기생 남상석,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히 웅비 졸업 및 임관 50주년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행사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철원 동기생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최근 14기 선배님들의 임관 6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50주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웅비 회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글을 맺는다.

전우회 장학재단 설립 회고

11기 | 권태정

대구공군전우회 탄생

대구공군전우회는 1968년 6월 지역 안보단체로 보라매 경북지부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구전우회 남상석 회장(육사 32기)이 지부장으로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군전우회는 서울중앙회를 비롯 38개 지부. 지회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6개 해외지회를 두고있다.전우회는 초대 (김세균회장 사후 8기) 부터 11대 (박석환회장, 대구대 교수)까지 30여년간을 전역장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1955년6월 제12대 권태정회장(공사11기)취임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오늘날의 대구공군전우회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

주요내용으로
1.공군전역자 전체를 망라한 통합보라매회를 재건, 이사회를 통해 대구공군전우회를 출범시켰으며 2.장교. 사병. 군무원등 공군전역자 모두를 아



우르는 조직으로 재편성하고 3.34개 친목단체를 흡수 통합하여 각단체장을 이사로 위촉, 이사회를 재편 하였으며 4.김용수장군(공사2기) 박만용중령(사후29기) 문희갑대구시장 윤영탁국회의원, 서덕규대구은행장등 원로중진 3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장학재단 설립

권태정회장 4기때인 2001년도에 전국최초로 보라매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전우회 회원자녀와 공군초급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지원사업은 대구공군전우회 정기총회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우수한 학생을 선정, 현재까지 25년간 총4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 부터는 장학사업과 함께 전우회원 중 고령자, 6.25 참전 유공자등을위한 복지지원 사업을 병행, 현재까지 5년간 총20여명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한바 있다.



장학.복지 지원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회원들 간의 전우애를 다지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며 지역 공군부대와는 현역과 예비역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있어 보람을 함께 하고 있다.대구공군전우회의 주력사업인 장학.복지 지원기금은 회원들의 회비와 자체 바자회 수익금 및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기탁금 등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다.또한, 회원들을 위한 재단홍보를 위해 “보라매장학재단” 소식지를 매년 발행, 전회원들은 물론, 중앙회 및 38개지부.지회와 일부해외지회로 배포하고 있는바 뜻있는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성과, 보람

아울러 장학재단의 주요 성과로 3대 김정수 이사장이 금 일천만원, 신문식 6.25참전회장께서 금 이천만원을 각각 기탁해 주셨으며 2024년도 공군전우회 중앙회 정기총회시 보라매 장학재단 권태정 이사장이 참모총장 이영수대장의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전우회와 장학재단은 전우애와 형제애로 대구지역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장학재단 역대 이사장은 초대 박석환 (대구대 교수) 2대 윤영길 (내과 의원장) 3대 김정수(전우회고문) 4대 권태정 (공사 11기)으로 이어오고 있다.

향후 계획

고령회원 증가에 따른 보다 내실있는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기금확보를 비롯, 복지지원 방안강구, 대상범위 확대등 구체적인 복지지원계획을 전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장학기금 조성에 큰 힘을 보태주신 황일우 박사(경북대 병원장) 김정수(3대 이사장) 신문식 고문(6.25참전회장)등 관계자분들께 본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구공군전우회
보라매장학재단
장학재단 새해인사

“보라매의 요람, 에어파크로 다시 태어나다”

33기 | 유준종

옛 공군사관학교 터 1,500평에 항공우주의 꿈을 심기까지

1958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있던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한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서울 시민들의 훌륭한 휴식처인 옛 공군사관학교자리 보라매공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트랙을 달리고 산책을 즐긴다. 하지만 이 공원의 이름이 왜 ‘보라매’인지, 과거 이곳이 조국의 영공을 수호할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던 ‘공군사관학교’ 보라매의 둥지였음을 아는 이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이전 당시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을 많은 동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은 보라매공원의 랜드마크이자 수많은 청소년들이 항공우주의 꿈을 키우는 '에어파크(Air Park)'가 조성되어 있지만 이 웅장한 은빛 날개들이 도심 한복판에 내려앉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 이면에는 잊혀가는 공군의 역사를 되살리려던 치열한 설득과 발상의 전환이 숨어 있다.이번기회에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적 기록과 조형물이 있는 보라매공원내 에어파크에 대한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을 갖기 바라며 이글을 쓴다.

50평의 약속: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에어파크 조성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2006년 3월이었다. 당시 항공력발전연구위원회에서 참모총장 업무보고를 통해 "옛 공군사관학교 터인 보라매공원에 이전 기념조형물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월요일 공군본부 업무보고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인사근무처장이 제대군인정책과장인 나를 부르더니 공군사관학교 이전 기념조형물 설치를 위해 보라매공원 내 50평을 확보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바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후 그런데 "이업무가 직능상 제업무가 맞나요" 라고 묻자 처장님이 "당연히 네 업무가 아니지" 라고 말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이렇게 해서 제대군인정책과장이던 본인이 업무를 맡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곧바로 보라매 공원을 관할하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을 찾아가 기념조형물 설치를 위해 50평이 필요하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완강한 거절이었다. 서울시는 과거 공군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고 부지를 인수했는데, 이제 와서 공간을 내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당시 공원에는 공군과 무관한 여러 기념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을 뿐,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흔적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역사의 중요성에 호소했다. "국장님, 제가 공원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아들조차 이 공원이 왜 '보라매공원'인지 제게 묻는 실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역사의 교훈을 잊어 외세의 침략을 당했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공군사관학교 옛터라는 역사적 사실을 남기는 것은 단지 공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라매공원의 진정한 의미를 후세에 알리는 중요한 일입니다."진심이 담긴 설득 끝에, 푸른도시국장은 마지못해 50평의 부지 제공을 약속했다.

발상의 전환:
50평 기념조형물에서 1,500평 공원으로

힘겹게 50평을 확보하고 총장님께 보고했으나,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다. "기념조형물을 세우기에 50평은 너무 비좁다. 300평을 다시 협조 받아라." 다시 찾아가 300평을 협조해 달라하자, 서울시 측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벽에 부딪힌 나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다. 단순한 '기념조형물'이 아니라 시민과 호흡하는 '공간'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국장님, 공원이라는 곳은 볼거리와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명품 공원이 됩니다. 지금 보라매공원은 수많은 사람이 트랙을 뛰는 것 외에는 뚜렷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만약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신다면, 단순한 기념조형물이 아니라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적 사실과 공군에서 퇴역한 실제 항공기들을 전시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공군사관학교를 기억하며 전투기 조종사로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누구나 전투기 내부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국장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실제 전투기를 만져보거나 탑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은 없다고 말했고 나는 쐐기를 박았다.공군에서 퇴역한 항공기는 엔진만 없을 뿐이지 실제 항공기입니다. 비록 퇴역했지만 유무형의 가격으로 따지면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가격이며 이것들을 전시하면 제공한 부지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갖게 될 겁니다.충분한 부지를 제공해 준다면 보라매공원을 역사가 살아 숨쉬고 볼거리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체험하며 창공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원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항공기의 시대적 흐름과 목적에 따라 실물 전투기를 전시하면, 국장님은 물론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비행기를 보며 하늘에 대한 꿈을 키울 것입니다. 항공력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며, 보라매공원은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시에 제공한 에어파크 조감도

푸른도시국장이 갑자기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하면서,"이업무가 제대군인 정책과장 업무가 맞나요?" "그리고 제대군인 정책과장이 이런 결정을 해서 이 비싼 실물 항공기를 제공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라고 물어 그 물음에 "첫째, 제대군인정책과장업무가 맞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군에 필요한 업무는 직능에 상관없이 제 업무입니다. 두 번째, 저는 총장님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서울시와 공군이 윈윈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라매공원에 대한 비전제시와 나의 제안에 푸른도시국장의 태도가 바뀌었다."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는 주저

없이 "3,000평"이 필요하다고 했고,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하여 최종적으로 1,500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50평짜리 기념조형물에서 1,500평의 에어파크로 진화하는 순간이었다.

땀과 열정으로 빚어낸 도심 속 공군 사관학교 역사와 공군 항공 박물관

푸른도시국장이 “세부사항은 보라매공원 내 녹지사업소와의 협조하여 진행하세요”라고 말하여 녹지사업소 소장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니 1,500평 줄 장소가 없다고 말하여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장에게 그러면 보라매공원을 이 상태로 시민들이 달리기만 하게 할 건가요? 그리고 “낡아서 위험한 건물도 많던데 철거하여 재조성할 계획은 없나요?” 라고 묻자 마지못해 낡은 건물 10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민 볼거리와 청소년 여가시설을 만드는 3단계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그럼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때서야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옛 공군사관학교 학과장 건물을 철거하여 1,500평의 공간을 창출해냈다.처음에 업무를 맡을 때는 부지만 확보하면 참모부별로 협조하여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의 꿈에 불과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업무를 진행 해야 했다. 그래서 관련부서 의견, 예비역 선배님들의 제안을 종합하여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의 역사를 기록한 조형물과 옛 사진들, 전투기, 헬기, 수송기 등 총 8대의 항공기를 시대와 발전 순서에 따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와 협의했다. 특히 8대 중 2대는 하늘로 비상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에어파크 완공 후에

현재의 에어파크(2026.6.1현재)



더 발전적인 사항은 공군과 서울시가 협조하여 개선하기로 협의 했다.

협의가 끝나자 서울시에서 배치 조감도를 요구하여 조감도 제작회사에 공군의 개념을 반영한 조감도를 2006.6월에 완성하여 서울시에 제공하고 조감도를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설계도를 만들었다. 이후 후임자들이 애정을 갖고 열정을 불태워 보라매공원에 현재의 에어파크가 완성되었다.

끝나지 않은 비행, 영원한 보라매

이러한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과 끈질긴 협의 끝에, 2008년 5월에 마침내 보라매공원에 에어파크가 시민들의 환호 속에 개장했다.백발의 노인들은 빛바랜 사진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어린아이들은 은빛 날개 아래를 뛰놀며 조종사의 꿈을 꾼다.

어려운 협의과정을 넘기고 1,500평의 대지에 굳건히 뿌리내린 에어파크.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켰던 영웅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 자랑스러운 공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꿈과 맞닿는 영원한 '보라매의 요람'이다. 퇴역한 전투기들은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보라매공원을 찾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비상하고 있다.



공군인의 건강& 전투력 지킴이 생활체육 테니스

43기 | 신현승

1. 100세시대와 라켓 운동(테니스)

사랑하는 공군인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평균수명·기대수명이 100세 수준으로 늘어 노년의 기간이 길어져 삶의 구조와 사회·경제 제도까지 재설정이 필요한 시대를 뜻합니다. 또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건강하게 오래 사는'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강조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생애주기 계획(재취업·학습·취미), 연금·복지, 보건의료, 노동시장, 소비패턴 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군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평균수명을 늘려주는 운동에는 어떤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국의 한 보고서 [1] 덴마크(코펜하겐 시립대와 암학회) 공동 연구팀 성인 8,577명 대상, 25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 평균수명 늘려주는 운동 TOP8 】

라켓 운동		3위	4위
1위	2위		
테니스	배드민턴 6.2년	축구 4.7년	자전거 3.7년
5위	6위	7위	8위
수영 3.4년	조깅 3.2년	체조 3.1년	헬스 1.5년

1. 덴마크(코펜하겐 시립대와 암학회) 공동 연구팀 성인 8,577명 대상, 25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

라켓 운동(테니스)은 즐기는 사람의 기대수명이 10년이나 길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을 치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펌핑되고 온몸(근육)이 활성화된다. 둘째, 상대방 공에 대한 예측·반응이 필요하여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 움직여 뇌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셋째, 혼자하는 운동이 아닌 사회적 활동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2. 생활체육과 테니스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을 위해 행하는 체육 활동으로서 운동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모든 사람들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 또는 평생 체육(Sport for Lifetime)"으로 인식된다. 무엇보다도 생애에 걸쳐 능동적·지속적으로 체육이나 여가 활동 참여는 물론 신체·정서·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업에 충실하며 개인의 복지 구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테니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개인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며, 수억 명이 시청하는 4대 그랜드슬램 대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참여 인구도 매우 많은 편으로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직접 즐기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테니스는 생활체육 동호회수 순위로 국내 5위 정도로 알려져 있다. 10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속해있다는 것은 21세기 생활체육계에서도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으로 평가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생활체육으로서 인기가 있어, 당시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서 테니스장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유는 바로 1976년 주택건설촉진법 때문이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운동장, 수영장, 배구장, 테니스장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테니스가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었고 차지하는 면적도 가장 작았기 때문에 당시 아파트들은 주로 테니스장을 선택했다.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중·장년 대비 청년 비중이 낮다 보니, 신축 아파트에서 테니스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테니스장이 있는 아파



【 공군 장교 테니스클럽 3축 】

부대 (지역)	항안단(서울시)	오산기지(평택시)	계룡대(계룡시)
클 럽 명	테사공클럽	오테모클럽	테미사클럽
회 원	재경지역(현역·예비역)	평택·수원지역(현역)	계룡·세종·대전(현역·예비역·가족)
테니스장	항안단 2면(인조잔디)	작사 4면(인조잔디)	기상단 3면(인조잔디)
활 동	주말/공휴일(오전)	주말/공휴일(오전)	주중(오후), 주말/공휴일

트조차 테니스장을 애물단지 취급해 철거하고 다른 공간(주차장, 놀이터)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주민들과 테니스장을 존속시키기 원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동호회 주관으로 테니스장을 점유하다보니 아파트 주민들과 테니스 동호회간 갈등도 심해지곤 했다.

3. 공군(체력단련)과 테니스

군인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체력단련 시간이 정규 일과에 반영되어 있다. 체력단련(일일·주간)을 통해 개인 전투력은 물론 부대원들과의 팀워크를 증가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체력단련은 체력검정 종목(3개)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구기 운동을 진행할 경우 지휘관·참모와 간부들은 테니스를 주로 하고 있다.

공군은 과거부터 참모총장배 테니스대회 (①조종사 ②부대별) 를 개최하여 공군인들의 건강과 전투력을 관리해 왔다. 테니스 실력은 부사관, 군무원 대비 장교 실력이 부족한 실정(근무 환경, 지휘책임 등)이었으나, 기관별 정책부서 중심으로 클럽 활동이 활성화된 후 전국 동호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부사관·군무원과의 실력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장교 중심의 정책부서 테니스클럽 3축 현황은 위와 같다.

4. 공사총동창회 행사를 넘어 3군 총동창회 행사로 “소링 이글하는 테니스”

필자는 계룡시 테미사클럽 회장 시 계룡대 영내 테니스장을 사용하다가 증가하는 회원들의 만족도·접근성·대기 공간 향상을 위해 영외 테니스장으로 운동 장소를 이전하였다. 이전한 이후, 회원과 테니스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준별로 부서를 3개(오픈부·신인부·테린이부/워밍업)로 구분하고, 직접 레슨 (개인·그룹, 연습·실전)을 지도하였다.[2]

계룡시테니스협회 임원(경기이사)으로 활동하면서, 테미사클럽을 계룡시테니스협회에 등록(현역, 가족, 예비역까지 확대)하고 공군인들의 건강은 물론 생활체육(테니스)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후 계룡시협회 주관 단체(개인)전 입상을 통하여 공군 장교들의 위상에 걸맞는 테니스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중 2023년 각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호인클럽을 대상으로 장관배 대회

개최 소식에 테미사클럽 중심(오테모 통합) 공군팀으로 장관배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의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참모총장배 테니스 대회는 2024년에 불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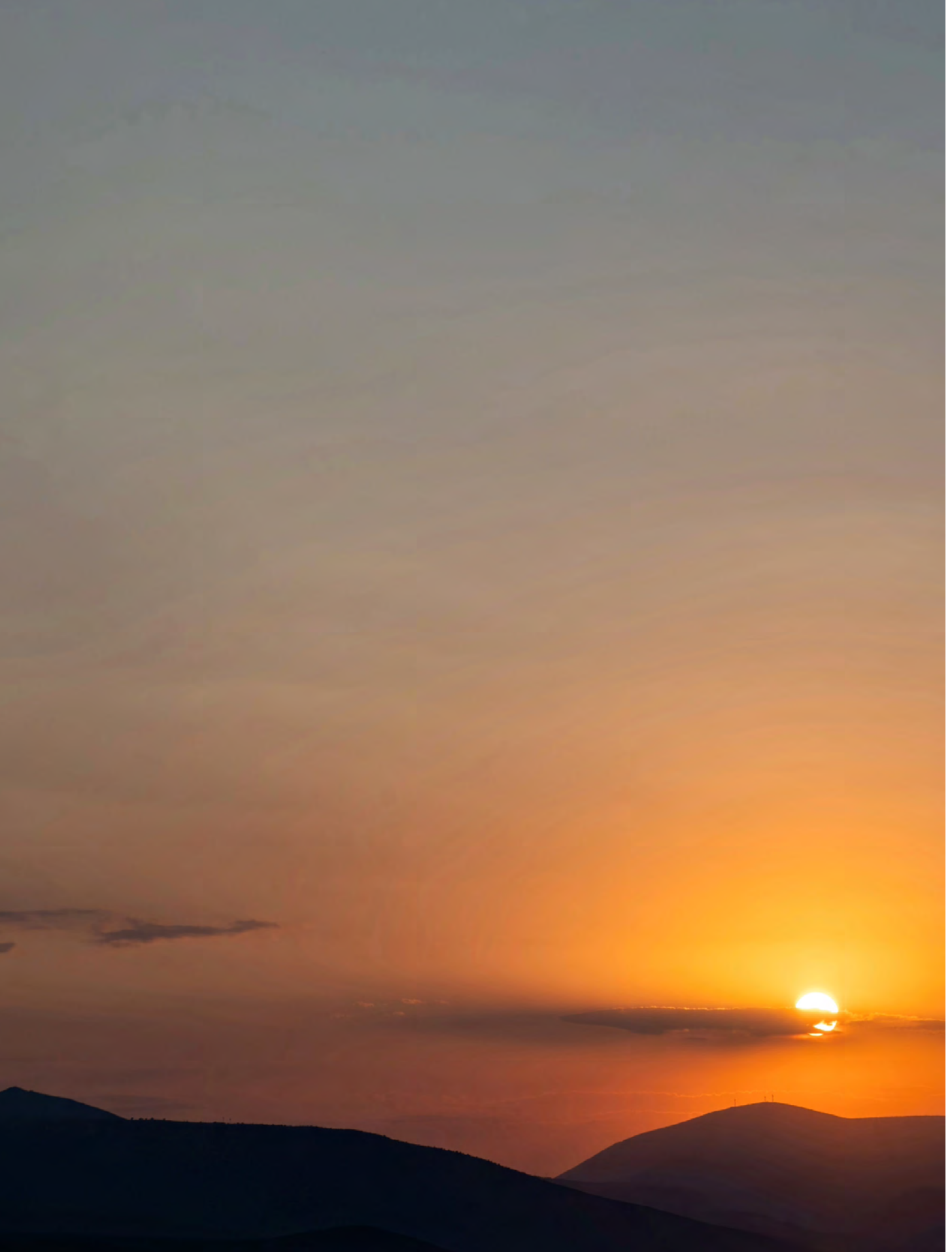
필자는 테니스 자격증(심판·지도)을 소지한 테미사클럽 회장이라는 유명세로 심판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회 요강 작성부터 계룡시 테니스장까지 섭외하는 공군본부 실무과장(자)와 함께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다. 특히, 계룡시체육회 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으로 대관 협의시 민·군 상생의 도시답게 일사천리로 추진한 결과, 해마다 개최해달라는 선수들의 호평 속에 남자부는 단체전, 여자부는 개인전으로 성료하였다.

주지하는바와같이,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회원들의 화합·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생활체육 대회 [3] 종목은 테니스, 당구, 바둑, 라이딩, 트래킹 등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33차 연도 공사총동창회는 육사총동창회에서 주최한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테니스 대회에 인연을 맺음으로서 대외적인 교류 협력에도 이바지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사랑이 깃든 것은 영원하다"



2. 계룡시테니스협회 임원(경기이사)으로 활동하면서, 테미사클럽을 계룡시테니스협회에 등록(현역, 가족, 예비역까지 확대)하고 공군인들의 건강은 물론 생활체육(테니스)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후 계룡시협회 주관 단체(개인)전 입상을 통하여 공군 장교들의 위상에 걸맞는 테니스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3. 종목은 테니스, 당구, 바둑, 라이딩, 트래킹 등



보라매

24기 강임구

동녘 산 붉은 열정 뭇별 숨은 파란 정원
까치의 아침 인사 하루해 끌고 가면
동구 밖
방패연 띄워
끝간 대를 짚는다.

연줄 타고 전해오는 조상님 벼린 세상
별들의 강강술래 달님의 아리랑 노래
얼레를
당기고 늦춰
님의 노래 듣는다

연살이 바람 잡고 머리띠 동여매면
세상의 길을 여는 천리안 태극 건아
해동청(海東靑)
억센 날갯죽지
푸른 창공 누빈다

청춘의 소금꽃이 피고지는 하늘가
서녘의 황금빛이 수평선 물들이면
노라매※
은빛 머리칼
세월속에 빛난다.

※노라매 : 현역에서 은퇴한 공군 구성원에 대한 애칭.

비상출격

26기 | 강충순
호령(昊昤)

서북부 영공방위의
최일선에 선다

여명은
아직 꿈의 가장자리에 걸린 채
느리게
눈을 뜨고 있다

흙 냄새를 머금은 안개가
낮게 깔리고
고요는
비상대기실 조용히 덮는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시간

그때

붉은 경보등이
먼저
고요를 스친다

그리고 곧바로
공간 전체를 흔드는
거친 비상벨 소리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단숨에 일으켜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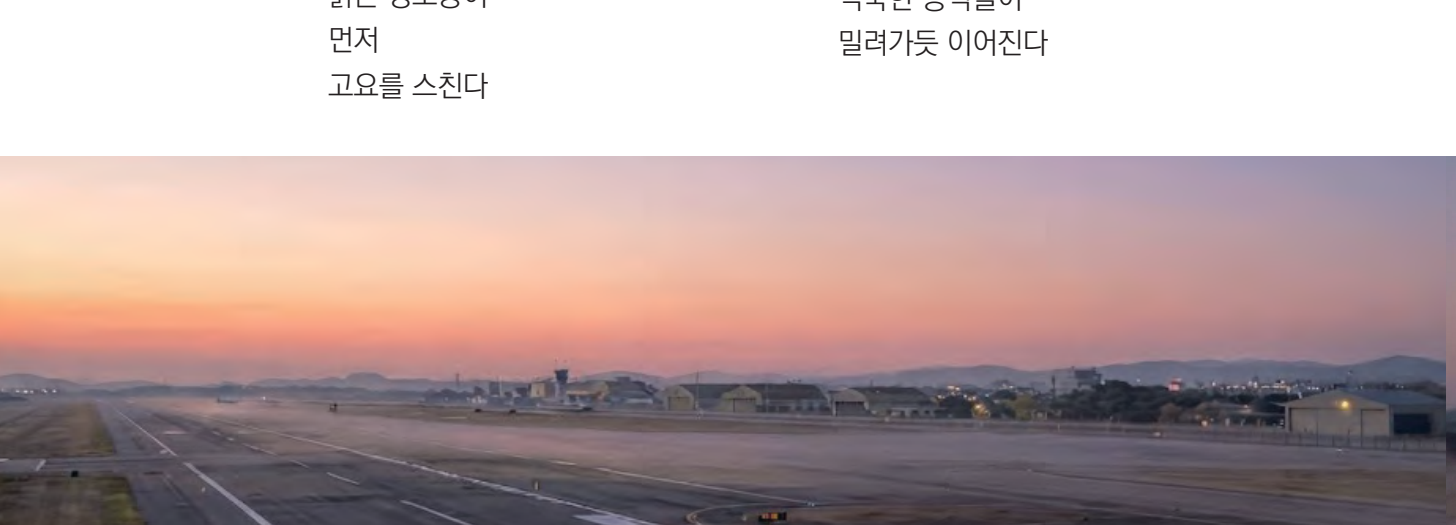
"Scramble"

3분이
우리 곁에 내려앉는다

말은 없다

어디에 있었든
몸은 이미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익숙한 동작들이
밀려가듯 이어진다



헬멧은
자연스레 시야를 좁히고

엔진은
낮게 숨을 모으다
이내
깨어난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생각은 점점 사라진다

활주로 위로
속도가 흐르고
시간은
조용히 뒤로 밀려난다

뜨거워진 바퀴가
대지를 놓아줄 때

愛機는
가볍게
공기를 딛는다

3분은
어느새
지나가 있고

우리는
밝아오는 하늘 속으로
스며든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우리의 하늘은
다시 숨을 잇는다



창 공

16기 김익래

창공은 본디 푸르름이었다.
바람도 공기도 파아랗게 빚어낸다.
밤하늘의 은하는 어둠에 푸른 빛을 띄우고,
먹구름의 시샘에도 창공은 침묵한다.

태고로 창공은 별들의 둥지였다.
태양별도 지구별도 그곳에서 숨 쉰다.
창공은 수 억겁(億劫) 시공(時空)을 지배하며
우주의 생명들에게 무수한 현재를 나누어 준다.

창공은 본디 참 빛을 품은 산실이었다.
그곳에선 정의와 진리를 빚어낸다.
참 빛은 은하(銀河)의 강물에 흘려들어
성림(星林)속 가족들의 젖줄이 되어준다.

창공은 본디 성무(星武)의 무림장이었다.
그곳에서 잉태한 메추리가 날갯짓을 배우고
참 빛 받으며 정의를 먹고 자란 해동청은
천풍(天風)을 일으키며 창공으로 치솟는다.

하얀 계절 붉은 마음

21기 | **금기연**

영하 20도의 혹한, 강풍경보까지 내려진 DMZ 인근 철원의 벌판. 올겨울 만 벌써 여덟 번째 이곳을 찾은 사진작가는 온 감각을 곤두세운 채 두루미 한 쌍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크고 새하얀 몸통, 붉은 정수리, 검은 목과 꼬리. 가늘고 긴 두 다리까지 그 자태만으로도 우아하고 기품이 넘친다. 선비의 고매한 기품과 기상을 상징하는 두루미. 십장생 중 하나이자 평생 짝을 지키는 새로 알려진 그들은 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언제나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에 신혼일 때는 두 마리, 새끼가 있다면 그 수만큼 더해 세 마리 혹은 네 마리가 함께 다닌다.

지금 눈앞의 두 마리는 신혼으로 보인다. 몇 시간째 함박눈이 퍼붓는 벌판에서 묵묵히 모이를 쪼고 있다. 눈보라가 몰아쳐 바로 앞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들의 행동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계속 모이를 먹는 모습은 마치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처럼 단단하다.

사진작가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며 눈을 떼지 않는다.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특별한 장면이 펼쳐진다는 걸 그는 안다. 짧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놓친 경험이 수차례 있었기에 결코 긴장을 풀지 않는다.

혹한과 강풍이 겹치면 아무리 단단히 채비해도 몸은 금세 얼어붙는다. 감각은 둔해지고, 움직임은 더뎌진다. 노르웨이 군인들이 극지에서 입는다는 브린제 내의, 두툼한 방한복, 배터리로 작동하는 발열 장갑까지 동원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문득 궁금해진다. 두루미는 어떻게 아무런 장



비도 없이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시베리아와 만주의 혹한을 피해 10월 하순부터 2월까지 한국에서 월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추위를 느끼지 않을 리 없다. 저들의 얇은 깃털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얼마 전, 철원의 두루미평화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 해, 철원을 찾은 두루미 한 쌍 중 암컷이 부상을 입어 날지 못하게 되었다. 다행히 지역 주민들과 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되어 먹이와 치료를 받으며 지낼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자 수컷은 어쩔 수 없이 무리와 함께 떠났지만, 암컷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듬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다시 철원으로 돌아온 수컷이 곧장 예전 자리를 찾아와 홀로 남아 있던 암컷에게 다가간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부비며 기쁨을 표현했고, 그들은 다시 한 쌍이 되어 겨울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함께 떠나는 모습까지 목격되었다고 한다.작가의 시선이 다시 눈앞의 벌판으로 돌아온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던 두 마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몸을 포개듯 겹쳐진다. 600mm 망원렌즈로 최대한 당겨 보아도 거리는 여전히 멀고, 동작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는 주저 없이 셔터를 누른다. 초당 20컷의 초고속 연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루미는 모이를 쪼기 시작한다.

서둘러 모니터를 확인해 본다. 아, 뭔가 있다. 몇 번을 되넘겨 보며 다시 확인한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올 겨울 두루미만을 쫓아 담은 12,000여 컷 중에서 건져 올린 단 한 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이 온몸을 타고 흐른다. 암컷이 목을 틀어 아래에서 위로, 수컷의 부리에 입을 맞추고 있다.

새하얀 눈밭, 흩날리는 눈송이, 붉은 반점이 돋보이는 열정적인 입맞춤. 차가운 계절에 피어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다. 살아 있는 생명의 숨결, 그리고 종족을 잇기 위한 숭고한 본능.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고,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이제껏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다. 마주 보며 춤을 추거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울부짖는 모습,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등은 보기 어렵지만 알려진 명장면이다. 그러나 십자 모양으로 교차된 입맞춤이라니. 게다가 두 연인의 목과 부리가 어우러져 뚜렷한 하트 형상을 이루고 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순간이 내 카메라 안에 담겨있다.

지난 8일간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항상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철원의 벌판. 두루미가 내뿜는 하얀 입김을 담기 위해 혹한의 날만 골라야 했던 나날들. 눈보라와 눈길을 뚫고 몇 시간씩 달렸던 험한 도로. 외딴 논밭과 벌판을 헤매던 시간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 차 안에서 지새운 밤들.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를 피하다 논두렁에 처박힐 뻔했던 위험한 순간. 다행히 몸에 밴 전투조종사의 기민한 반응으로 타이어만 펑크 나고 끝났지만,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던 아내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오른다.

보고 또 보고, 다시 봐도 좋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지난겨울의 고된 시간과 모든 수고를 온전히 보상해준다. 하얀 계절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생명체. 그 안에서 피어난 붉은 마음 하나가 내 마음에도 깊이 내려앉는다. 이 겨울의 모든 시간은 바로 이 찰나를 위한 여정이었다.

하늘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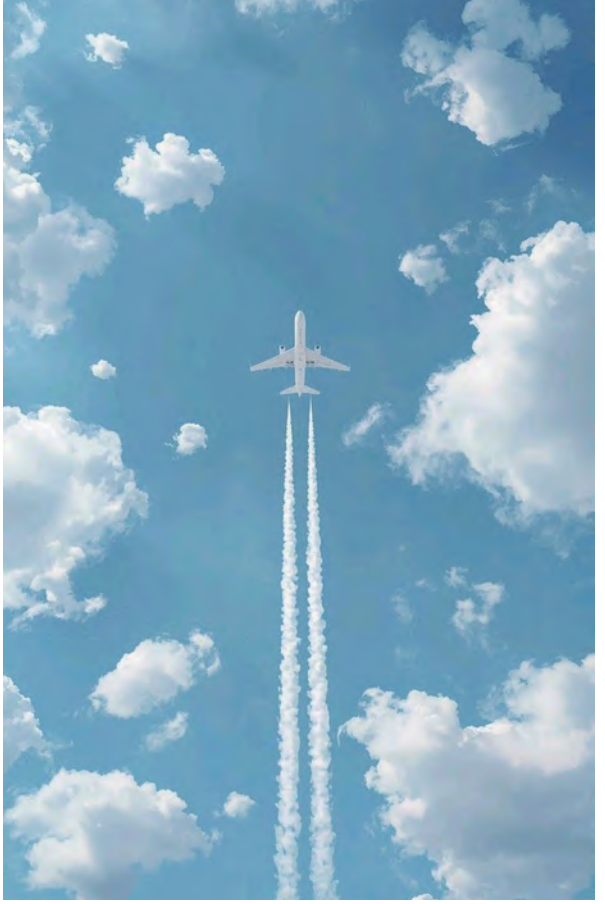
16기 | 김익래

가을 아침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 하늘이 저토록 푸르렀던가. 하늘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게 도대체 얼마 만인가. 새 한 마리가 푸드득 창가를 스쳐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내가 저 새와 같이 저 높고 푸른 하늘 속을 날아다닌 적이 있었던가. 해무가 걷히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등대같이 문득 그때의 그 하늘이 뚜렷한 실상(實像)이 되어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음 한 편이 뜨거워 왔다.

하늘, 하늘이라는 공간은 낭만과 희망과 꿈을 빚어내며 미래를 품고 있다.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고 가끔 무지개도 띄우는 그 하늘, 누구나가 공유하고 있는 그 하늘, 그 흔한 하늘이 나에게는 내 젊음의 모든 열과 정을 쏟아 도전과 희망을 담아내던 삶의 터전이었다. 밤하늘의 별들도 뭉게구름 비구름도 석양의 노을도 내 무대에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그곳엔 때로는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긴장의 절박함도, 때로는 사선(死線)을 넘어버린 동료들의 혼백도 함께했지만, 그곳에서 빚어내는 푸르름은 언제나 나를 압도했다. 하늘은 나에게 용기와 책임을, 소명(召命)과 천직(天職)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하늘과의 첫 만남

난생처음 와보는 비행장, 곧게 뻗은 활주로가 마치 천상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같이 아지랑이를 타고 출렁거렸다. 나는 그 구름다리를 건너 여의도 하늘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생도들의 '비행체험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비 온 뒤 맑게 갠 날 아침, 긴장감을 안고 도착한 곳은 여의도 비행장, 확 트인 비행장은 교내 학과장과는 빛깔도 바람



도 다른 또 하나의 신선한 세계로 내 앞에 다가섰다. '엘-나인틴(L-19)' 후방석에 앉았다. 장난감 같은 이 쌍엽(雙葉) 프로펠러 비행기가 땅에서 1미터도 떠 본 적이 없는 나에게 하늘이 어떤 곳인지 체험시켜 준단다. 푸득푸득 곧 멈출 듯 말 듯 푸득거리며 활주로를 굴러가든 프로펠러가 이내 내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 붕 뜨는 느낌도 잠시 곧 활주로를 뒤로 밀어내고 한강철교가 다가섰다.

한강 백사장이 이렇게도 넓었든가, 아이들이 날리는 방패연이 손에 잡힐 듯하다. 효창운동장을 스쳐 지나 비행기는 하늘속으로 들어갔다.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어리둥절 얼떨결에 들어가 본 하늘 언저리, 하늘은 땅 위 구석구석에 뒤엉킨 잔가지들은 모두 감추어 버리고 한눈에 펼쳐지는 통유리같이 한없이 평온하고 평화로움만을 담아냈다.

하늘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였다

김해 비행학교, 동기생 두 명을 하늘에 묻었다. 계기비행 후드를 쓴 채 교관 두 분과 함께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부터 쳐다보던 친구, T-28 278 번호 비행기를 좋아하던 친구, 하늘의 참 빛을 보기도 전에, 하늘 속으로 들어가다니, 아! 하늘이 이런 곳이었구나. 그저 푸르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생각했던 하늘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조종간 하나로 저 새들처럼 자유로이 막힘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단순한 3차원 공간이 아니었다. 하늘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였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시공(時空)의 지배자였다. 하늘을 경외(敬畏)하기 시작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평온함과 소중한 마음이 깊어졌다. 동료들의 영혼이 늘 함께하는 편안한 고향집 앞마당이 되어갔다.

비행운(飛行雲)을 피우며 동서해를 한눈에

시험비행 스케쥴이 있는 날이었다. 가시(可視)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은 극히 드물었다. 시험비행은 단기(單機)로 수행하는 유일한 임무여서 하늘을 홀로 독차지한 듯 나만의 하늘을 펼쳐보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고도를 올렸다. 희박한 공기밀도를 밀치고 겨우 겨우 다달은 3만 피트 상공, 좌로 그리고 우로 고개를 돌리니 와우!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혹시나 기대감에 백미러를 보았다. 오! 이게

웬 행운! 혜성의 흔적 같은 하얀 솜구름이 꼬리를 물고 피어나고 있지 않나 갑자기 우주 속 위성체에 홀로 갇힌 듯 짜릿한 고독이 엄습했다. 그날의 그 하늘은 지금도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가득 하늘 사랑을 채워 준다.

마을 옆 공원엘 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쳐다 봤다. 늘 같은 저 자리에 있는 하늘, 때로는 맑고 푸른 하늘을, 때로는 성난 먹구름을 띄우기도 하며 매 순간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 주지만 하늘을 쳐다 보고 있노라면 하늘은 하루 일상의 스트레스를, 가슴 아픈 괴로움을 말끔이 안아주곤 한다.



이수회

30기 | **최종묵**

이수회,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모임을 의미합니다. 내게는 일회성 모임 말고도 한 달에 두어 번 정도의 운동 모임, 분당·용인 지역 동기 모임, 광주 기지 근무 인연 모임, 두 번의 글쓰기 모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독서 모임 제안은 집중할 자신이 없어 거절했건만, 이번 제안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대장 시절, 함께 했던 대대 주임원사의 아내 전화였습니다. 최근의 만남이었던 작년 늦가을에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한 이후,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차에, 금주에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중에 주임원사가 받으며 "필승, 대대장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는 분이며, 만남과 관계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분입니다. 수원 기지에서 2년간 대대장과 대대 주임원사라는 인연으로 만난 뒤, 꾸준히 안부를 챙기고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전역 후 화성에 촌가를 마련하고, 홀로 소일 삼아 농사를 짓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1년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한 분입니다. 다만, 최근 기억에 취약하고,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졌으나, 옛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경에서 깨어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가족을 제외하고 언급한 사람이 대대장, 저였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시작된 우리의 재회는 공적으로 헤어진 지 26년. 그리고 그분의 투병 후 다시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사이 패혈증에 실종이라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두 분이 손잡고 약속 장소인 죽전 신세계백화점 7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미리 도착하여, 여덟 살 연하의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과거와 현재를 오락가락합니다. "영민이 잘 크죠?" 서른이 넘은 내 아들에 대한 그분의 기억은 하얀 아기 고무신 신던 모습이 선명한지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라운지로 이동하는 사이에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라운지에 앉아 다과를 하는데 그분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대장님, 우리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으면 합니다."

아직은 물리치료와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사가 권하기를, 좋은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 말을 듣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 시절, 내 곁에서 진심을 담아 도움을 주던 주임원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 이었습니다. 그렇게 급조하여 3월부터 정기 모임이 된 것이 이수회입니다. 죽전역에서 헤어지며 안 보일 때까지 내게 손을 흔드는, 칠십을 훌쩍 넘긴 나의 영원한 주임원사를 보며 이수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신(神)의 침묵

19기 | 박창용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전능하신 신께서는 왜 항상 침묵하고 계실까? 혹시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동이 미혹하여 각성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 낯가죽이 두꺼워서 뻔뻔스러운데 언행은 거짓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있다. 위선의 탈을 쓰고서 변절과 배신을 거듭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 이런 인격이 모자라고 인간성마저 메마른 자가 뛰어난 척 활개를 치고 큰소리치면서 허명을 얻어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생각이 짧고 부족하여 또 다른 과욕을 탐하다가 추악한 이중성이 폭로되어 파멸의 길로 추락하는 걸 보면 측은함을 갖게 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고질병과 같아서 치료가 어려운데 본인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한다. 분수를 모르는 자의 억지를 상대하려면 기분이 상하지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그런 일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자제할 줄 아는 평상심을 가져야한다. 그러니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상들의 거짓된 실상을 모두 알고 계시는 신께서 어찌 심기가 불편하지 않겠는가?

속이 깊은 사람은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잘난 척 하지 않으며, 앞서가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경우가 없고 예의에 어긋난 자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있는지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은 존경스럽다.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만 원망과 험담 변명을 즐겨하는 자는 몸과 마음이 추하게 변한다.



예의 없는 막말과 책임 없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데 안타깝게도 쉽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저속하게 헐뜯는 거친 언행은 삼가야한다. 인격에 배어있는 추악한 악취는 쉽게 씻을 수 없고, 매너가 모자라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역겨움을 자초함으로 부디 자신을 다스려 고매한 인품을 지닐 수 있도록 평생 힘써야겠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조용히 침묵하자. 그럼 평소 듣지 못하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 속에 참된 진리와 위대함이 숨어있다. 침묵은 밭을 갈아 씨앗을 뿌린 후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아서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삶의 지혜와 진실을 깨우칠 수 있는 교훈을 얻으며 성스러운 희망이 꽃을 피워 감동과 행복으로 보상받는다.

기다림은 미덕으로 성공을 위한 과정이다. 사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성숙한 사람인데, 언제나 자신의 인격향상에 힘써서 인간의 존엄성과 너그러움 관대함 정의 분별력을 지니게 되고 따뜻한 사랑의 힘까지 지녀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자신의 인간됨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성찰하여 바로잡을 줄 안다면 인격자라 할 수 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강하여 상대방의 나쁜 행동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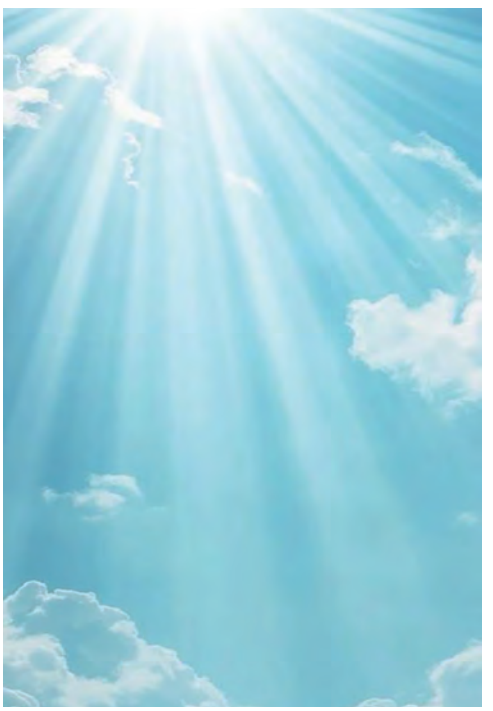
마음의 평화는 인간이 성숙하고 지혜가 충만할 때 얻을 수 있는데, 절제된 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조금씩 다가갈 수 있으며 생각과 행동이 반듯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물질과 지식은 많아도 겸손 배려 양보 진실과 같은 고결함은 쉽게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은 오랜 기간 스스로 갈고 닦아서 몸에 지녀야 실천할 수 있으며 비움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 인생은 더욱 성숙해진다. 지혜는 인생을 통하여 몸소 터득한 것으로 자신과 세상을 알게 되는 이치로, 누구에게 받거나 배움으로 익힐 수는 없고 연륜이 쌓여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색하는 삶을 살아야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지혜로움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인데, 삶과 인생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밝은 마음으로 인격이 성숙되고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 갖게 되며 자신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든다.

인간은 사랑에도 조건을 달아서 이기적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힘없는 사람에게 생색내지 않고 먼저 조건 없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런

자비심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어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과 같으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신성한 일처럼 주고받는 모두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다. 나눔과 베풂은 성스러운 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실천할 때 베푼 사랑은 메아리처럼 돌아와 보답을 하며, 인정과 배려심의 미덕을 지니게 되면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덕이 쌓인다.

일상의 삶에서 선행이 계속되면 놀랍게도 자신이 지닌 그릇보다 더 큰 복을 받는 큰 인물로 성장하며, 선행은 베풀수록 공덕은 커지고 채워지는데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특별한 축복의 기적이다. 따뜻한 사랑은 빛과 같아서 모든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모질게 살아가는 이들의 원한



도 녹일 수 있으니 맘껏 베풀며 살아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 인생의 향기를 내어서 그의 향기가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고 따뜻하게 덮여주어 다른 사람까지 살맛나게 해준다. 한시적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값지고 떳떳한 것일까?

인간에게 죽음의 슬픔은 피할 수 없으니 가끔씩 사후의 일을 생각하며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올바르게 살면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보다 거짓 없는 자세로 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물질과 덕을 베푸는 조금 넉넉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럼 보람과 영광이 따르고 더하여 인정 많은 사람이란 후대의 평가가 있을 것이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신께서 침묵하는 이유는 부족함이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인간다움을 찾아 정도를 걸으며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만약 신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영악한 인간을 꾸짖을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신께서는 용서와 축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벌도 내린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인간은 알아야한다.

"감히 네가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마라. 나를 비방하는 건 괜찮지만 네 이웃은 칭찬을 하여라. 나를 짝사랑 하고 경외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너와 함께 하면서 평화와 행복의 복록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럼 네가 정신적인 기쁨을 얻고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에 가깝게 되어서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하리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세상에 정답도 없다

33기 | **박수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면 동서양 양쪽에 모두 일화가 남아있는데, 이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참 비슷했구나 싶다.

먼저 동양의 유래를 보면, 중국 요순 시절 어느 왕이 백성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전국의 학자들이 모여 12권의 책을 엮어 올렸지만, 왕은 "먹고살기 바쁜 백성들이 언제 다 읽겠느냐"며 분량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학자들이 한 권으로 요약해 다시 보고했음에도, 왕은 내용이 어려우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으로 만들라고 명했다. 오랜 토론 끝에 학자들이 만들어 올린 문장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고, 왕은 크게 흡족해하며 백성들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도록 했다고 한다.

한편, 서양에서는 이 말이 19세기 미국 서부의 술집에서 유래했다고 전해





진다. 당시 술집들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실 그 밥값은 이미 비싸게 책정된 술값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다. 훗날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이 문구를 널리 알리면서, 오늘날 이 말은 '모든 선택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보편적인 진리로 쓰이고 있다.동서양을 관통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는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새삼 실감하게 된다.

푸른 제복을 입고 하늘을 벗 삼아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40여 년의 군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땀방울과 눈물 없이 거저 얻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온몸으로 부딪치며 깨달은 삶의 지혜와 경험들이 귀하게 느껴져서, 한때는 갓 군복을 입은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곤 했다. 나의 경험이 그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라는 노파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천 기지에서 비행 교수로 일하던 시절, 조종학생들을 모아놓고 내 경험담을 들려주며 그들의 앞길을 응원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또한 건방지고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고, 백 번 전해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겪어보는 것이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킴벌리 커버거의 시『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

더라면』의 제목처럼, 현재의 혜안을 온전히 간직한 채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엉뚱한 상상에 빠지기도 한다. 만약 정말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지금의 연륜을 무기 삼아 젊은 시절의 나보다 훨씬 더 능숙하고 완벽하게 군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피할 수 있는 실수는 요령껏 피해 가며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든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보면, 미래를 훤히 아는 삶이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 싶다.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과거의 나는 그토록 순수하게 부딪칠 수 있었다. 정해진 길을 몰랐기에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향해 무모하리만치 돌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며 겪었던 뼈아픈 좌절,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의 가슴 벅찬 환희는 미래를 몰랐기에 온전히 내 몫이 될 수 있었다.

서툴고 투박했던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 한편으로는 '그때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탄식이 밀려온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무수한 실수와 눈물마저도 내 삶의 지층을 단단하게 다져준 눈부시게 멋진 추억이었다. 정답을 찾아 헤매던 그 서투름 자체가 빛나는 청춘의 특권이었던 셈이다.

결국 세상에 공짜가 없듯, 내 40년의 군 생활 역시 '청춘'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값진 훈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완벽한 '정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에 내 삶은 더 치열하고 아름다웠으며, 정답이 없는 길 위에서 나만의 해답을 개척해 올 수 있었다. 게다가 내가 완벽한 정답이라 믿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이가 들고 지혜가 쌓이며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의 정답에 대한 기준도 자연스레 바뀌기 마련이다.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정답이 없는 삶을 묵묵히 땀 흘려 살아온 과거의 나. 그 치열했던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도 묵묵히 나만의 길을 걸어갈 미래의 내 모습이 보인다.

공사도라지 모음

인터넷 신문 정오신문 국장
20기 | **임성남**

1. 공사도라지

1970년대 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요람이었던 서울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성무대). 그 시절 청년 보라매들이 어깨동무하며 불렀던 전설적인 응원가 '공사 도라지' 시리즈가 반세기 만에 완벽히 복원되었고 기상, 낭만, 해학, 패기로 이어지는 이 4부작은 공군사관학교만의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 제1부 : [기상] 창공의 코메트, 옥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는 /
창공의 코메트 옥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는 /
창공의 코메트 옥 도라지
하늘이 좋아져서 핀 그 꽃은 /
향기조차 그윽하게 번지는구나
땅을 기는 도라지는 십리 못 가 발병 나고
우물가의 도라지는 물결 못 이겨 꺾어진다
에헤야 데헤야 공사의 도라지야 /
푸른 듯 흥겨웁게 날아가 보자

복원된 가사의 첫 대목인 '창공의 코메트 옥 도라지'는 당시 공군이 지향하던 날렵하고 강인한 기상을 '코메트(혜성)'와 '옥(玉)'에 비유하여 이는 지상의 도라지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피어난 공사 생도들만의 고결한 자부심을 상징하고 또한 '하늘이 좋아져서 핀 그 꽃은 향기조차 그윽하게 번지는구나'라는 구절은 단순한 군가 이상의 서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는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나는 조종사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이 가졌던 '하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지상의 나약함과 대비되는 생도의 기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 '땅을 기는 도라지는 십리 못 가 발병 나고, 우물가의 도라지는 물결 못 이겨 꺾어진다'는 대목은 아리랑의 구절을 재치 있게 인용하여, '육사 도라지'와 '해사 도라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공사 도라지'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창공을 누비는 보라매의 강인함을 강조했으며 가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푸른 듯 흥겨웁게 날아가 보자'는 대목에서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공사 생도들만의 풍류와 여유가 느껴져 공사 생도의 고결한 기품을 '옥'에 비유하고, 창공을 누비는 속도감을 '코메트'로 표현한 정통 응원가로 지상의 나약함과 대비되는 보라매의 자부심이 백미다.

■ 제2부 : [낭만] 푸른 하늘의 연가(戀歌)

이번에 복원된 가사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푸른 하늘 높이 떠서 하늘을

푸른 하늘 높이 떠서 하늘을 나를 때 /
나물 캐는 아가씨들 손짓하며 웃는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꽃동산 /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님을 찾아서
랄라라라 라라라라 랄라 랄라 /
푸른 하늘 흥겨웁게 랄라라라 라랄라

나를 때, 나물 캐는 아가씨들 손짓하며 웃는다'는 구절이다.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창공을 가르는 젊은 보라매와, 지상에서 평화롭게 나물을 캐며 손을 흔들어주는 아가씨의 대비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이는 긴박한 훈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생도들의 서정적 감성을 잘 보여준다.

노래는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꽃동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님을 찾아서'로 이어진다. 여기서 '님'은 그리운 연인일 수도, 혹은 생도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조국의 평화'일 수도 있다. 험준한 산맥과 강줄기를 넘어 비행하는 과정을 '님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승화시킨 점이 인상적이며 곡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랄라라라 라라라라... 푸른 하늘 흥겨웁게'라는 경쾌한 가락은 군가 특유의 엄격함 대신 청춘의 활기를 뿜어낸다.

당시 생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대방동 성무대 교정을 행진하거나 휴식 시간의 고단함을 달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주역으로 성장하던 그 시절, 보라매들의 가슴 속에는 이토록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있고 반세기를 돌아 복원된 이 노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잊혔던 공군의 옛 낭만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어,조종석에서 바라본 평화로운 강산과 지상의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담긴 곡으로 비행 훈련의 긴장 속에서도 꽃동산과 님을 노래하던 생도들의 낭만적 감성이 돋보인다.

■ 제3부 : [해학] 숫기 없는 도라지의 고백

생도들의 유머 감각과 인간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곡으로 손꼽힌다.

도라지 돈 도라지 산에 사는 도라지 /
팔랑 댕기 팔랑팔랑 숫기 없는 도라지
네 나이 몇 살이냐 대답해요 살짝 대답해요 /
아이 답답해 답답해 정말 답답해
도라 도라지 도라 도라지 도라지가 좋구요 /
도라도라 도라지 돈 도라지가 나는 나는 좋아요

가사 속 '네 나이 몇 살이냐 대답해요 살짝 대답해요 / 아이 답답해 답답해 정말 답답해'라는 대목은 당시 엄격한 생도 생활 중에도 잃지 않았던 해학과 젊은 장난기를 보여주고 수줍어하는 대상(도라지)을 향해 답답하다며 짐짓 투정을 부리는 모습은, 지상에서는 숫기 없는 청년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보라매들의 이면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곡의 마무리인 '도라 도라지 도라 도라지 도라지가 좋구요 / 도라도라 도라지 돈 도라지가 나는 나는 좋아요'는 중독성 있는 리듬감으로 당시 생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축제와 응원의 현장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여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위트와 유머가 돋보이며 수줍어하는 대상을 향한 짓궂은 장난기가 섞인 이 곡은 생도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 제4부 : [패기] 보라매의 포효(咆哮)

앞선 시리즈들과 달리, 결연한 의지와 강한 에너지가 응축된 전형적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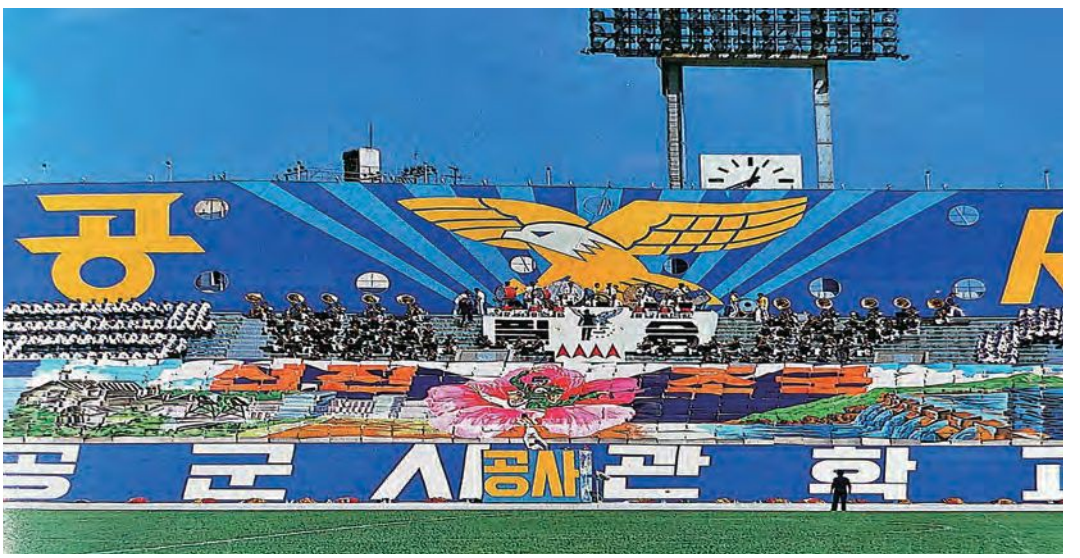
> 돈도라지 돈도라지 돈도라지 /
> 심심산천 백도라지 백도라지
> 꽃바구니 옆에 끼고 팔랑 댕기 휘날리며 /
> 도라지를 캐러 가세
>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
>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진 버전의 응원가로 '꽃바구니 옆에 끼고 팔랑 댕기 휘날리며 도라지를 캐러 가세'라는 가사는 민요적 소재를 차용했으나, 실제로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공사 생도의 강인한 실행력을 상징하며 특히 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덟 번의 '야야야야!' 함성은 이 노래의 핵심이다. 이 우렁찬 외침은 단순한 추임새를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젊은 조종사들의 선언이자 사자후와 같아 50년 전 대방동의 푸른 하늘 아래서 생도들이 발을 맞추며 내뱉던 이 열정적인 함성은, 오늘날 우리 공군의 굳



건한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다시금 증명해 주는 강렬한 행진곡풍의 비트로 조국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전진 버전이며 마지막 여덟 번의 우렁찬 함성은 성무대 생도들의 꺾이지 않는 패기를 상징한다.

[후기]
본 4부작의 복원은 1970년대 당시 공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청춘을 바쳤던 (예)대령 임성남(공사 20기)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노래들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를 지탱하는 뜨거운 심장 소리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안녕)



2. 서빙고역, 그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전철의 규칙적인 진동이 나를 반세기도 더 지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데려다 놓는다. 차창 밖으로 '서빙고역'이라는 팻말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듯 묵혀두었던 기억의 편린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흑백사진처럼 빛바랜 그 시절, 1963년의 소년과 소녀가 그곳에 있었다.Y중학교 2학년, 풋풋함과 설렘이 교복 깃에 배어 있던 시절. 덜컹거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역으로 향하던 나의 통학길은, 서빙고역에서부터 빛나기 시작했다. 작고 깜찍한 E여중 1학년 소녀, 이구연. 단발머리를 한 채 수줍게 기차에 오르던 그녀의 모습은 잿빛 세상에 떨어진 한 송이 꽃과 같았다.

마음을 온통 사로잡힌 소년은 며칠 밤을 새워 연필을 깎고 지우개를 써가며 생애 첫 연서를 썼다. "우리, 사귀자." 단 두 마디를 쓰기 위해 세상의 모든 단어를 동원했던 것 같다. 떨리는 손으로 건넨 편지. 그러나 소녀의 답은 단호했다. "기차 안에서 남녀 학생이 시시덕대면 어른들이 나쁘게 봐. 그래서 안 돼." 그 한마디는 소년의 첫사랑에 내린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기차에 오르지 않았고, 나의 통학길은 다시 무채색으로 돌아왔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교복 대신 제복을 입은 공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가 되었다. 푸른 제복에 젊음의 기개를 담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단발머리 소녀의 잔상이 아른거렸다. 용기를 내어 수소문 끝에 서빙고역 인근, 그녀의 아버지가 목사로 계신다는 교회에 인접한 집을 찾아갔다.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문을 열어준 것은 그녀가 아닌,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녀의 어머니였다.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나는 말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따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부디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딸은 아버지를 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E여대에서 시청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함께할 사람도 목회자의 길이니, 군인의 길과는 너무 다르네요.” 정중했지만, 세상 그 어떤 거절보다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학교로 돌아온 나는 미련한 결심을 했다. 그녀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리라. 별을 보며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키우던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두꺼운 성경책을 펼쳐 들었다. 그러나 신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겉돌기만 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게는 나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성경책을 덮고, 다시 조종사의 길로 매진했다. 창공을 가르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다.그리고 지금, 하얗게 머리가 센 노인이 되어 다시 서빙고역을 지난다. 일주일에 한 번, 지평정원으로 향하는 이 길 위에서 나는 어김없이 1963년의 소년으로 돌아간다. 전철은 속도를 내어 서빙고역을 멀리하지만, 내 마음의 기차는 여전히 그곳에 멈춰 서 있다. 수줍게 편지를 건네던 소년과, 단호하게 고개를 젓던 소녀.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은 녹슬지 않는 훈장처럼 가슴에 박혀, 지날 때마다 저릿한 통증과 아련한 그리움을 동시에 안겨준다. 서빙고역은 내게 단순한 역이 아니라, 영원히 가닿을 수 없는 그리움의 이정표다.

3. 그리운 원덕, 흑천의 속삭임

아, 원덕이여!
그 이름 한 번만 속삭여도 가슴에 스며드는 옛 물소리가, 안개처럼 조용히 피어오른다. 1956년 3월, 세상이 아직 부드럽고 모든 것이 꿈처럼 새로웠던 그 봄날, 나는 경기도 양평군 원덕국민학교 문턱을 넘었다. 1학년의 작은 손으로 교실 문을 밀던 그 순간부터, 1960년 2월 말 까지 흘러간 네 해는 내 영혼에 새겨진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의 한 장이었다.

학교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피어나던 미소, 친구들의 손길이 스치던 운동장, 그리고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던 흑천의 검은 물결 –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슴속에 영원한 별빛처럼 빛난다. 5학년이 되던 해, 나는 더 넓은 하늘을 꿈꾸며 영등포 우신국민학교로 떠났다. 도시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랐지만, 원덕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들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전철을 타고 양평군 지평면의 나의 소락원(小樂園)[노을정원]으로 향할 때, 원덕역이 스치듯 다가오면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리움에 눈물이 고인다.전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적 드문 승강장에 느릿하게 멈춰 설 때, 나는 그 적막한 공기를 타고 6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그 역은 단순한 정거장이 아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친구들과 장난치던 손끝의 따스함, 방학 때 흑천에서 그물을 치며 느껴지던 물의 차가운 포옹 – 모든 것이 그곳에 녹아든, 귀한 보물상자다.

학교 앞 흑천은 우리에게 꿈의 강줄기였다. 수업이 끝나면 책가방을 내려놓고, 맨발로 달려 나가 독골보(독골 물막이 보)를 넘어 상류의 깊은 늪으로 향했다.그곳, '용여무리'라 불리는 신비로운 늪은 전설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용마가 주인을 찾아 헤매다 이 늪에 스며들어 영원히 머물렀다'는 그 이야기처럼, '용여무리' 안개 낀 물결 위에는 늘 은은한 용의 여운이 느껴졌고 보 안에는 물이 고여 수심이 어른 키를 훨씬 넘을 만큼 깊었으며, 검은 물빛 아래로 '불러지'와 '쏘가리' 등의 민물고기가 은빛 떼로 넘쳐흐르던 그곳.

낚싯줄을 드리우면 물보라가 일며 황금 반점으로 반짝이는 '불러지'가 부드럽게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길쭉한 '쏘가리'가 은은한 빛줄기를 그리며 스치며 낚싯대를 가볍게 흔들었다. 손에 잡히는 만큼 끝없이 차오르는 그 은빛 무리는, 가난한 날들의 작은 기적, 마음을 채워주던 따뜻한 선물이었다. 늪 가장자리 물풀 사이에서 터지는 웃음소리, 바구니 가득 담아 마을로 돌아오던 그 길목의 풀내음 – 아직도 코끝에 스며들어 가슴을 저리게 한다.

학교의 나날들은 그런 자연의 품 안에서 피어났다. 하교 후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 '나머지 공부'를 나누던 시간들. 이해가 서툰 친구들을 모아 책을 펼치고,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흉내 내며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은, 나에게도 잊지 못할 선물이었다. 봄이면 운동장 옆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달콤한 속삭임을 던지고, 삠비기(삘기)를 따먹으며 봄바람의 부드러움을 맛보았으며, 가을이면 대운동회의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기마전 속에서 먼지와 땀이 뒤섞인 그 열기, 친구들의 손이 맞잡히던 그 순간 – 우리는 모두 영웅이었고, 세상은 우리 발아래 펼쳐진 꿈이었다.

추석 바람 솔솔 불어오던 그때, 원해룡, 김창수, 변영재 친구들과 함께 원덕역 북쪽 돌산 덤바위산(157m) 오를때, 도토리나무 빽빽한 주위엔 가을빛 물들고, 송편 나눠 먹고, 과일 밤 까먹고. '가을' 노래 부르며, 현제명 선율 타고 :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 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 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그 그리움, 가슴에 스며든 붉은 치마처럼...

그리고 4학년 때, 반장이 된 나에게 권진용 담임선생님은 출석부를 조용히 건네시며 "너의 목소리로 나 대신 출석을 불러봐라!" 그 부드러운 말씀에,

친구들의 이름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권창규, 김치근, 김원근, 김연근, 변종백, 이병택, 이복동, 이덕진, 이후연, 조병호, 조용숙…!" 그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교실에 피어나던 미소의 꽃잎이, 지금도 가슴을 간질인다.

흑천을 따라 고개를 들면, 동편에 우뚝 솟은 칠읍산(추읍산, 583m)이 포근히 안아주듯 서 있다. 돌고래 형상의 그 산 정상에서, 맑은 날이면 칠읍(七邑)의 지평선이 펼쳐진다고 했다. 양근(양평읍), 지평(지평면), 여주, 이천, 양주, 광주, 장호원 – 일곱 읍의 속삭임 너머에 이상향, 샹그릴라가 기다린다고 믿었던 어린 마음. 산을 넘어가면 그곳에 닿을 테니, 우리는 흑천 물소리에 그 꿈을 실어 보냈다. 그 산은 우리에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다.

어쩌면 그 시절의 풋풋한 흙냄새, 풀잎의 속삭임, 그리고 칙칙폭폭 증기기관차가 내뿜던 그 따뜻한 증기 냄새까지도, 원덕역을 지날 때마다 되살아나는 건 그리움의 마법 때문일까? 전철이 그 역을 스치며 속삭일 때, 가슴에 차오르는 감정은 안개처럼 부드럽고, 눈물처럼 깊다. 그 역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어린 시절을 조용히 안아주는 증인이다. '원덕'이여, '덤바위'여 '흑천'이여, '독골보'여, '용여무리'여 – 그 모든 것이 나의 뿌리, 가슴속에 영원히 피고 지지않는 꽃잎이다..



나의 친구, 스티브 잡스

26기 | 은진기

중학생 때로 기억된다. 자유로운 사고와 약간의 반항으로 점철된 시절. 현실이 불만스러웠고, 무언가 새로운 반등을 은연중에 기다리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평범한 성적 통지표를 보신 부친이 한 말씀 하신다. 동네의 누구는 항상 모범적이고 성적도 우수해서 부럽단다. 왜 너는 그만큼 하지 못하냐는 얘기. 그 당시 부친의 연세가 사십 대 초반. 기실 부친도 하던 일이 신통치 않아 실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다. 갑자기 눌려있던 반항기가 스프링 튀듯 올라왔다.

"아버지와 동갑인 김일 선수는 지금도 현역으로 레슬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하고 계세요?"
프로 레슬링이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고, 김일 선수가 나오는 레슬링은 만화방에서 단체로 구경하던 시기였다. 부친은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작스런 대응에 기가 막히셨을게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빠져나왔다. 물론 그 뒤에 후유증은 대단했다. 부친의 날 향한 눈빛이 달라졌고, 모친께도 많은 야단을 맞았다. 부친이 영면하는 추모관에 가면 그때의 철없던 시절의 행동이 생각나서 민망한 웃음을 짓곤 한다.

가정이 꾸려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며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큰 관심으로 다가왔다. 나름 괜찮은 부모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낀다. 갑자기 예전의 김일 선수 에피소드가 생각났다. 나의 동갑은 누가 있을까?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마이크로 소프트를 창업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 그는 창업과 재벌로 유명할 뿐 아니라 자선사업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물이다. "말콤 글래드 웰"이 쓴 "아웃라이어"란 책에서 "일만 시간의 법칙"이 나온다. 그가 예로든 사람 중 한 명이 빌 게이츠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 컴퓨터 실습장에서 밤늦

게까지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여 소위 컴퓨터 달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일만 시간은 하루에 세 시간씩 10년간 계속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미다. 엄청난 노력과 집념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법칙이다.

다음으로 찾은 동갑내기가 "스티브 잡스"다. 젊은 나이에 창업하여 휴대폰의 개념을 스마트 폰으로 바꾼 사람. 개인용 컴퓨터 "매킨토시"의 서막을 연 사람. 한때 젊은이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던 "에어팟"을 만들어 음악계에 선풍을 일으킨 사람. 안주하지 않고 항상 혁신을 꿈꾸던 사람. 아이들이 이런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난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 이렇게 하여 나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생이다. 대학원생이던 모친은 시리아에서 유학 온 학생과 사랑에 빠져 잡스를 임신한다. 유학생과 결별한 그녀는 그를 출산하고 입양 보내기로 결심한다. 아들의 미래를 고민하여 양부모는 대학을 졸업한 변호사 가정으로 정했다. 하지만 남아를 출산하자 여아를 원했던 변호사 가정은 돌연 입양을 취소한다. 대기 리스트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입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양부모가 될 사람은 모친이 고교 졸업, 부친은 중학교를 졸업한 수준이었고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가정이었다. 생모는 그 집으로의 입양을 반대하여 난관에 빠졌다.

다른 희망자가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양부모가 입양아를 반드시 대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입양이 결정된다. 생모로서는 직접 키울 형편은 아니지만, 아이의 장래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잡스는 그 가정에서 성장



하여 "리드"대학에 진학한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학비는 엄청나게 비쌌고 노동으로 은퇴자금을 모았던 양부모는 그 돈을 학비로 충당하게 된다. 사실을 직시한 잡스는 과연 이렇게까지 하여 학업을 계속할 것 인가에 회의를 느껴 6개월 만에 자퇴한다.

하지만 서체 디자인에 강점을 보인 그 대학에 청강생으로 남아 18개월간 강의를 듣는다. 후에 잡스는 그때의 수강이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서체가 탄생한 비결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양부모의 차고에서 애플사를 창업한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4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킨토시"라는 혁신적인 개인용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로 성장시킨다.회사가 번창하고 경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영입한다. 특히 코카콜라의 차기 CEO로 꼽히던 "존 스컬리"라는 잡스보다

16년이나 연상인 경영자를 1년 반 동안 설득한 끝에 CEO로 영입한다. 회사가 커지면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한다. 혁신을 주장한 잡스와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진의 이견이었다. 결국 이사회에서는 영입한 CEO의 손을 들어줬고,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를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자"라고 평했다. 회사를 나온 잡스의 상실감은 대단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퇴출된 잡스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너무 절망하여 한동안 아무것에도 의욕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잡스는 달랐다. 한동안의 칩거 후 끓어오르는 열정을 모아 다시 재기를 시도한다.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에게서 "PIXAR"란 회사를 인수한다. 그리고는 그의 장점을 살려 컴퓨터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를 만든다.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고 속편과 더불어 "니모를 찾아서"도 제작하여 흥행에 성공한다. 한편으로는 컴퓨터의 핵심 OS를 제작하는 "NEXT"사를 창업한다. 그동안 애플사는 경영난에 빠지고 결국 잡스를 다시 영입하기로 결정한다. 그간 잡스가 창업한 "PIXAR"와 "NEXT"는 당연히 애플의 계열사로 편입된다.

애플에 복귀한 잡스의 첫 캠페인은 "Think Differnt" 즉 "다르게 생각하라" 이다. 혁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잡스다운 캠페인이다. 잡스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은 계속된다. 일본 "소니"의 "워크맨"이 장악하고 있던 음악 플레이어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iPad"을 출시한다. "iPad"에는 전원 스위치가 없고 배터리의 교환도 불가하게 만들었다. 심플을 극대화한 "버리는 기술"을 적용한 결과다. 비싸기만 한 음악 플레이어라는 혹평을 뒤로하고 시장에서는 무려 2억 대가 판매된다.

그 후에 전자책 시장에 진출하여 "iPad"을 출시하는 등 그의 혁신과 열정은 계속된다. 후에 그는 애플에서 해고된 동기가 자신을 다시 발전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해고는 그에게 독하고 쓰디쓴 약이었고, 인생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린 일이었지만 본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잡스는 40대 말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처음에는 수술이 가능한 부분에 종양이 생겨서 치료되었다. 하지만 재발하여 오랫동안 투병해야 했다. 잡스는 완치를 위해 갖은 애를 썼다. 특히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위하여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잡스는 PPT의 천재였다. 청바지에 검은 터틀넥을 상징적으로 입고 간결하고 강렬한 PPT를 구사했다. 그의 PPT 비법은 "복잡한 내용을 얼마나 간단하게 전달하는가"이다. 다른 또 하나의

숨어있는 비법은 "철저한 연습"이다. "훌륭한 배우는 자신의 대사만 외우지 않고 대본 전체를 외운다" 라는 전제하에 요점을 정리하여 청중을 사로잡는 기법을 보였다. 그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는 아직도 회자될 정도의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도 기업에서 경영자가 직원에게 강조하는 명언을 남겼다.

"Stay Hungry" 안주하지 말고 항상 갈망하라.

"Stay Foolish" 언제나 우직하게 나아가라.

천재는 명이 짧은 모양이다. 평생 열정을 가지고 혁신을 이루었던 천재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 폰, 음악용 플레이어, 등을 발명하여 세상을 바꾸고 그는 떠났다. 잡스와 동갑인 내게 아들이 그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한마디는 해야겠지.

"스티브 잡스는 비행기 조종할 줄 안다니?"

stay hungry
stay foolish



총동창회 운영 현황 (32차 연도 12월 기준)

회원현황

· • 임관 총 인원 : 11,238명
• 현재 인원 : 10,136명
• 예비역 인원 : 5,918명

적립기금 결산 (평생회비)

구 분		수 입	비 고
인수 기금		1,625,129,534	31차 연도
32차 증식	평생회비	67,790,000	
	예금이자	43,308,080	평생회비 기금으로 적립
적립 총액		1,736,227,614	

적립기금 결산 (발전기금)

구 분		수 입	비 고
인수 기금		2,500,000	31차 연도
32차 증식	발전기금	87,000,000	
	예금이자	696,000	발전기금으로 적립
적립 총액		90,196,000	

성무 장학기금 결산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인수 기금		230,346,807		31차 연도
32차 증식	모금	31,582,900		
	예금이자	4,756,293		
2025년 장학금 지급액			31,000,000	총 27명 지급
합 계		266,686,000	31,000,000	잔액 : 235,686,000

주요 추진사업

1. 청운보육원 후원('25.2.4.)
2. 73기 졸업생도 축하 : 특강 및 총동창회장상 시상, 졸업선물 전달('25.2.21.)
3. 간담회 : 자문위원('25.3.13.), 순조회('25.6.12.), 공사발전후원회('25.9.11.)
4. 성무 장학금 전달 ('25.6.24.)
5. (사)성무안보연구소 제5회 안보학술세미나 개최('25.7.24.)
6. 총동창회 대·내외 활동영역 확장
   - 공군 주요 작전시 작전요원 격려금 전달 (Desert Flag, Red Flag)
   - ADEX 공군부스 내 공사총동창회 홍보 배너 설치('25.10.20.~10.24.)
7. 졸업 및 임관기념 행사('25.10.25.) : 23, 33, 43, 53, 63기
8. 5~10년차 전역 동문(56~67기) 간담회 ('25.11.14.)
9. 친목행사 : 테니스대회('25.5.22.), 자전거 라이딩 행사('25.4.26./9.20.), 바둑대회('25.6.18.), 당구대회('25.8.21), 걷기행사('25.10.30.)
10. 성무지(54호) 발간('25.11.14.) 및 전자문서화 작업
11. 민항 동문의 총동창회 활동 참여 제고 및 격려('25.5.29./12.5.)

제33차 연도 총동창회 운영 임원

- 회장 : 황성진
- 감사 : 김동욱, 최근영
- 선임부회장 : 조광제
- 부회장 : 공평원, 김상훈, 김형곤, 송택환, 신윤홍, 오두원, 이광수, 장경식2, 전용성, 정연수, 정영철
- 상임위원 : 곽은석, 김석빈, 김영권, 김재오, 박길수, 박수철, 백종찬, 송경선, 송영훈, 신동주, 신용인, 신항균, 엄기성, 유준종, 이병권, 이병재, 장경식5,장석철, 정영진, 조성호, 최현국, 한상오, 홍익표, 홍재기
- 사무총장 : 위강복
- 후원 : 공사 33기 사관 일동



총동창회 평생 회비 납부 안내

평생 회비 입금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국민은행 485501-01-34342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평생 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적립 기금으로써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 분담하는 회비이며 1인당 20만원입니다.
납부한 회비는 총동창회 연간 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 기금의 연간 이자도 평생 회비로 원금과 함께 계속 적립하여 향후 총동창회관 건립에 사용할 예정으로 미납 회원들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 회비 납부현황

평생 회비 완납기수

1~35기, 52기, 57기, 59기, 61기, 63기, 64기, 65기, 66기, 69기, 70기, 72기, 73기



제33차 연도 평생 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5.10.1.~'26.9. 28.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36	253	141	112	
37	255	158	97	권종필
38	233	120	113	이경수
39	220	123	97	김영관, 김영삼, 김홍철, 문근식, 신종천, 이경민, 이달훈, 이철희, 최창익
40	241	47	194	정선규
41	242	107	135	김갑수, 김병훈, 김봉석, 김사균, 문원형, 박 영, 박종후, 서재명, 안영준, 여종원, 유종근, 이동섭, 이일용, 이태호, 장정환, 전준식, 정광섭, 정진환,정하백, 한병철,
42	275	78	197	
43	271	116	155	고승문, 권태형, 권효곤, 김경남, 김광준, 김기우, 김대석, 김석호, 김원섭,김인환, 김진희, 김회균, 나형돈, 남기호, 류제광, 류종락, 모상민, 모수원,박상일, 박상준, 박순한, 박용재, 박재영, 박종욱, 박주철, 박주형, 박중근,서민권, 서영환, 손삼용, 손윤오, 신봉득, 신용석, 안의재, 안효민, 원권수,유진이, 윤경식, 윤상진, 윤재민, 윤종식, 이광제, 이규택, 이기준, 이문식,이승홍, 이정호, 임석호, 장명희, 전영배, 정승기, 주만종, 주해용, 최범석,최영식
44	221	67	154	김용선
45	220	30	190	
46	227	26	201	김인선
47	201	69	132	
48	192	126	65	이경태
49	200	75	125	김범주
50	193	54	139	
51	203	78	125	
53	125	6	205	
54	192	15	177	강용근, 채형식
55	186	34	152	
56	155	35	120	
58	134	8	126	
60	148	26	122	
62	147	44	103	219만원 분납 (30.5% 납부)
66	136	135	1	
67	148	2	146	
68	158	3	155	
71	188	101	87	
74	176	0	176	
계	현재인원 : 10,604		납부인원 : 6,816	미납인원 : 3,612

총동창회 발전 기금 기부 안내

발전 기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485501-01-377192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발전 기금 기부현황

총동창회 발전 기금 신설 (회칙에 반영) : 2024. 7. 16.
기금 납부 : 본 회 회원이나 회원 기수 또는
본 회의 취지와 사업목적에 동참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자원하여 참여 가능

관리 : 총동창회 평생회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관리함

발전 기금 기부현황 (개인 : 50명, 단체 : 4, 총계 : 1억 2,160만원)

2026. 9. 28. 기준 (단위 : 만원)

기수	인원	성명 (기부 금액)
5	1	정재식(10)
18	1	이봉길(20)
23	31	감흥조(100), 권오봉(100), 김경순(100), 김동명(100), 김선양(100), 김성호(100), 김용이(100), 김재용(500), 김종현(100), 김진궐(100), 박성순(1,000), 유연도(100), 윤재원(500), 이계훈(500), 이동호(100), 이영덕(100), 이인기(1,000), 이정욱(500), 임연택(300), 장석원(500), 장옥상(100), 장창연(500), 정대주(500), 정희진(100), 조영일(100), 조원건(500), 최무홍(300), 최종창(100), 최진수(100), 하창호(50), 故황동민가족(100)
25	2	서병권(10), 유홍규(100)
26	1	박성보(50)
30	2	강구영(10), 심인태(10)
31	2	고종봉(10), 조승균(20)
32	5	박정호(10), 신익현(10), 원인철(100), 윤석준(10), 정광선(10)
33	1	고성필(10)
41	1	차준선(10)
42	1	이태규(10)
44	1	고준기(10)
단체	4	22기 동기회(200), 31기 동기회(200), 32기 동기회(3,000), 공사동창회 미서부지회(80)
일반	1	손재일(10)



(사)성무안보연구소 탐방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설
성무안보연구소를 소개합니다.

설립배경/위치

성무안보연구소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국방역량 증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소의 위치는 공군항공안전단 내 태성관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립경과

성무안보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을 열망하는 공군사관학교 동문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며 설립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7월, 제28차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첨단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력 건설을 위해 연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설립 이유는 '성무장학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든든한 기금 조성의 염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는 사회 공헌 활동을 연구소 설립의 한축으로 삼았습니다.

- 2021년 6월 4일, 국방부 기본정책과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공식적인 법인으로서 공신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 2021년 7월 12일, 국방부의 허가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역사인 출발을 하였습니다.
  - 1대 소장 : 김주언 ('21.7 ~ '22.6)
  - 2대 소장 : 조보근 ('22.7 ~ '24.6)
  - 3대 소장 : 이종선 ('24.7 ~ '26.12)
  - 4대 소장 예정자 : 강병철 ('27.1 ~ '28.12)

- 2023년 10월 4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졌으며, 2026년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어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성무안보연구소는 국방분야 연구와 함께 사회와 국가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병력 구조, 첨단 무기체계 도입, 예산 운용 등 다양한 정책들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의 위협을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하여 지속 가능한 국방력 발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 **군사전략과 군사외교에 관한 연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한 최적의 군사전략을 모색합니다.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적 군사외교 방안을 연구합니다.

- **한반도 안보정세와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다양한 국제 관계 속에서 북한이 취하는 정책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 및 전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 **군사력 건설과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전장의 변화에 맞춘 군사력 건설 방안과 함께 장병들의 교육훈련 방안도 연구하여 전투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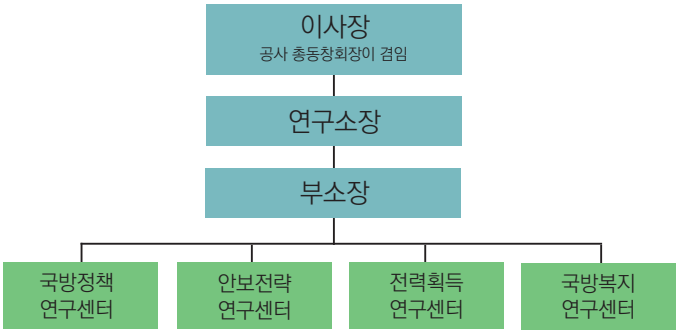


-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사업**
  군복무를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과정'으로 느끼도록 고민합니다.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전역 후 사회 복귀를 돕고 군의 인식 확산에 기여합니다.

- **사회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재능기부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유자녀와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인재의 육성과 안보의식 함양에 노력합니다.

조직구성 및 임무



- **국방정책연구센터**

  국방정책, 군사정책, 군사외교를 연구하여 국방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병역 자원 확보,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 개혁,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공합니다.

- **안보전략연구센터**

  안보환경, 군사력 건설, 군사전략을 연구합니다. 분쟁 지역 동향, 군사전략 변화, 신흥 위협 등을 식별하여 최적의 안보 전략과 군사력 운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 **전력획득연구센터**

  필요한 무기체계의 효율적/경제적 획득 방안을 연구합니다. 방산기술과 연계하여 연구 개발, 생산, 도입, 운용에 이르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력 획득 전략을 수립토록 합니다.

- **국방복지연구센터**

  다양한 복지 현안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국방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인의 사기 진작과 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의사결정기구 운영

- **총회(매년 2월 정기소집)**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서는 지난해 업무보고와 예산 결산을 검토 승인하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최종 확정합니다. 연구소의 정관 변경이나 법인 해산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등 중대한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 **이사회 (정기 연 2회, 필요시 임시 소집)**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총회에 상정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활동

- **안보학술세미나(연 1회)**

2021년

대한민국 국방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전과 항공우주력
창립 세미나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항공우주력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안보 역량 강화 방안을 통찰하였습니다.

2022년

한국 공군력 발전 전략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 기술 도입,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증진 등을 포함한 미래 공군력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2023년

걸프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제언
걸프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 분석하여 현대전의 특징, 전략의 변화,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2024년

유·무인 항공우주무기체계 국내·외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유·무인기가 공존하는 미래 항공우주무기의 개발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항공우주기술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

『항공우주무기체계 중심』 K-방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
항공우주무기체계 중심의 방위산업의 상생 협력 방안으로 공군, 정부부처, 연구소, 기업 간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

AI, 공군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공군의 전략·조직·비행·정비 분야에 가져올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 공군 운영체계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성무 장학사업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 2021년 : 총 20명 대상 18,700,000원
- 2022년 : 총 20명 대상 17,800,000원
- 2023년 : 총 28명 대상 31,000,000원
- 2024년 : 총 28명 대상 29,300,000원
- 2025년 : 총 27명 대상 31,000,000원
- 2026년 : 총 23명 대상 30,400,000원

성무 장학사업 안내

목적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가운데 군복무 중 또는 전역 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한 유자녀를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부모님 희생의 의미를 소중히 간직하고 긍지 및 자긍심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대상

공사 총동창회 회원 유자녀 (초, 중, 고, 대학생)

※ 공본 '하늘사랑 장학재단' 수혜자 제외

금액

대학생(200만원), 고등학생(100만원), 중학생(70만원), 초등학생(50만원)

기금적립

성무지 광고 수입비, 총동창회 운영 사업의 절약예산, 평생회비의 당해 연도 발생 이자 및 성무장학사업에 지정 기부된 후원금으로 적립

성무 장학금 신청 방법

- 관련 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afaaa.or.kr 〉 성무장학기금)

- 보낼 곳
  - 우편: 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태성관 3층 공사총동창회
  - 이메일: 04airfa@daum.net (추후 관련 서류 원본은 우편 제출)

  ※ 각 기생회장/총무는 해당인원 여부 파악 및 안내 요망

성무 장학기금 기탁 하신 분

- 개인 : 250명, 단체 : 9, 총계 : 23,833만원

2026. 9. 28. 기준 (단위 : 만원)

기수	인원	성명 (금액)
2	1	박재성(100)
3	1	백낙승(100)
4	1	온성철(10)
6		6기 동기회(200)
7	1	한주석(100)

10	13	이달호(10), 10기 산우회(300) : 강위훈, 권영락, 김완수, 김윤제, 김태석, 김한용, 서진규, 송중호, 이헌재, 임승옥, 장풍길, 한정복
11	2	이광학(100), 정지수(10)
12	3	나광수(100), 박춘택(100), 배기준(10)
13	1	김준언(100)
14	20	김길상(10), 김부곤(10), 김수기(10), 김 현(50), 류조형(10), 민신웅(10), 박종선(100), 박평우(20), 신동열(20), 안택순(20), 육도석(10), 윤갑수(10), 이건일(10), 이억수(100), 이용석(10), 이우덕(20), 임길순(10), 정병호(50), 정재성(10), 전창배(10)
15	2	김덕훈(100), 김주식(10)
16	3	김익래(110), 김회동(20), 임정빈(10)
17	6	강희간(100), 고영섭(30), 김익창(10) ,이문호(10), 이한호(100), 장호근(10)
19	4	민주동(20), 박창용(6), 정성진(20), 정하섭(20)
20	5	김성일(100), 김정기(30), 손준영(30), 이재명(100), 한광성(30)
21	9	금기연(10), 김창욱(350), 김태욱B(100), 배민섭(10), 배창식(30), 신문식(30), 유근국(10), 이광영(30), 정한철(30)
22	5	김은기(100), 민형기(10), 오원용(20), 이영하(20), 정 양(20)
23	6	23기 동기회(200), 김광정(300), 김병오(10), 이계훈(50), 유연도(10), 이정욱(20), 장창연(10)
24	8	24기 동기회(1,000), 강임구(10), 김득환(50), 이영종(10), 이준우(20), 임호순(30), 최재희(30), 최종용(30), 황원동(30)
25	15	김용전(10), 김찬환(30), 김홍진(30), 류홍규(10), 손명환(10), 송명진(20), 윤상주(10), 윤학수(20), 이귀형(10), 이성재(50), 임종호(20), 장희태(20), 최미락(30), 하왕규(10), 이승구(100)
26	7	권영한(190), 박기순(20), 박성보(10), 배충영(50), 송길수(10), 오중기(70), 하대용(20)
27	7	김수은(10), 백흥종(50), 이덕대(10), 이희명(20), 한경표(10), 한정열(30), 황태익(50)
28	14	강영철(5), 김도호(100), 김주언(30), 김학수(30), 안재모(30), 유길형(100), 윤 우(20), 이상욱(10), 이석원(30), 임종춘(20), 지윤규(10), 최병주(30), 최차규(90), 홍성표(50)
29	16	김철우(30), 김홍온(100), 남승우(30), 박성기(30), 박재복(50), 서부종(30), 안준기(30), 양철환(150), 이경달(40), 조병호(100), 조평현(50), 차종환(60), 최용준(50), 최정근(100), 한봉완(50), 문병규(30)
30	24	강구영(50), 고영문(66), 김광희(100), 김기일(10), 김성용(114), 김정근(3), 박성희(3), 서교선(10), 신효재(3), 심인태(165), 심재천(3), 우정규(13), 이권우(3), 이용곤(98), 이학주(118), 장조원(110), 정경두(485), 정명환(3), 정의길(3), 정중구(220), 조보근(160), 조영봉(20), 최영훈(20), 황기영(3

31	11	강경한(100), 고종봉(71), 권희붕(10), 박재준(1,000), 박양기(100), 이상호(50), 이선호(65), 이왕근(50), 정석환(150), 조승균(90), 채관석(20)
32	11	김영수(150), 김연환(20), 남동우(20), 박동성(120), 박승룡(10), 신익현(100), 원인철(110), 이성형(10), 이형걸(20), 최환종(10), 허창회(40)
33	5	김동욱(30), 박광필(10), 이병권(10), 정영철(40), 최현국(30)
34	2	김학준(10), 김훈(10)
36	4	김보현(500), 남영진(110), 박영준(10), 박문덕(90)
37	1	정장용(20)
38	4	김정한(30), 김종규(85), 조준원(10), 최재혁(30)
39	3	공승배(10), 김승규(10), 김재권(49)
41	2	박기완(40), 정진광(106)
42	4	김태우(53), 김현준(55), 백도석(55), 조관행(10)
43	2	정재식(10), 최성근(20)
44	3	고준기(236), 곽병창(10), 최영호(10)
45	1	45기 동기회(1,000), 이형섭(10)
46	4	고휘석(275), 박지청(10), 서정민(10), 한천희(10)
47	1	박형준(36)
49	3	권광수(102), 김선태(3), 박지원(10)
52	1	황헌모(5)
55	1	김소영(10)
56	1	최현욱(10)
59	1	오병준(200)
62	1	이후인(10)
72	1	강전영(10)
기업 단체	5	공군전우회 LA지회(91), 공사동창회 미서부지회(60), 롤스로이스(350), 록히드마틴(3,003), 보잉(4,171)
명예 일반	5	명예회원 이범욱(120), 김종필(20), 윤종호(70), 이봉근(20), 이상률(20)

성무 장학기금 기탁 계좌

국민은행 485501-01-349902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국민은행 485537-01-005489 (사)성무안보연구소

※ (사)성무안보연구소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써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가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성무안보연구소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 바랍니다.

성무안보연구소
발전기금 기부 안내

발전기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485501-01-373053
(예금주 : 성무안보연구소)
※ (사)성무안보연구소 지정 기부금 계좌

발전기금 기부현황

• 성무안보연구소 발전기금 신설

※ 2025. 12. 30. 성무안보연구소장 이종선의
500만원 기부금을 토대로 발전기금을 신설하여
규정에 반영 추진예정

• 기금 납부

본회 회원이나 회원 기수 또는
본회의 취지와 사업목적에 동참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자원하여 참여 가능

• 성무안보연구소 발전기금 기부현황

- '25. 12. 30. 32기 이종선 500만원
- '26. 5. 11. 32기 신익현 500만원

※ (사)성무안보연구소 발전기금은
연구소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되며,
해당 지정 기부금 계좌로 기부 시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편집후기_ 성무지 제55호



성무대 공군사관학교를 거쳐간 동문들의 이야기 성무지 제55호를 발간합니다. 이번 제55호는 제54호의 목차와 구성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만들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성무지인데 매번 목차와 디자인 및 내용구성이 대폭 바뀐다면 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따뜻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성무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원고 모집, 교정과 편집작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부터, 전선에서 은퇴하여 성찰과 고백의 삶을 사는 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문들이 귀중한 원고를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무대라는 한 울타리, 성무인이라는 한 공동체, 그 속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성무지를 통해 동문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또한 지난 7개월간 성무지 제55호 편집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33기 공평원, 김상훈, 김영권, 박수철, 신항균, 위강복, 장경식, 정연수, 조성호 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표지소개

공군사관학교의 혼과 상징인 '성무탑'은 우리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영혼의 기지임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책 표지나 시각 매체 중앙에 배치된 'ㅅ'과 'ㅁ'은 성무의 초성 닿소리로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뭉치는 성무인들의 굳건한 결속과 변함없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ㅅㅁ' 모티브를 시각 디자인 요소로 일관성 있게 확장·적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성무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그 이름의 무게와 가치를 깊이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기고안내

성무지는 연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필, 여행기, 체험기, 취미활동, 그리고 회원들과 나누거나 전하고 싶은 유익한 내용 등 다양한 글 들을 보내주십시오. 제56호 성무지 원고는 2027년 6월 마감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6.10.30
발행인 황성진
편집인 공평원,김상훈,김영권,박수철,신항균
위강복,장경식,정연수,조성호
발행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 성무안보연구소
주소 (우) 0694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연락처 02-823-1091
이메일 04airfa@hanmail.net
홈페이지 www.kafaaa.or.kr
편집.제작 에즈비아트 (as:be Art) 010-9917-5297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누가 지켜갈까?

POONGSAN

우리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탄약을 자체 개발 · 생산하는 풍산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관생산시스템을 갖춘 종합탄약 생산기업
풍산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POONGSA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TEL : 02)3406-5114 FAX : 02)3406-5400

ROLLS ROY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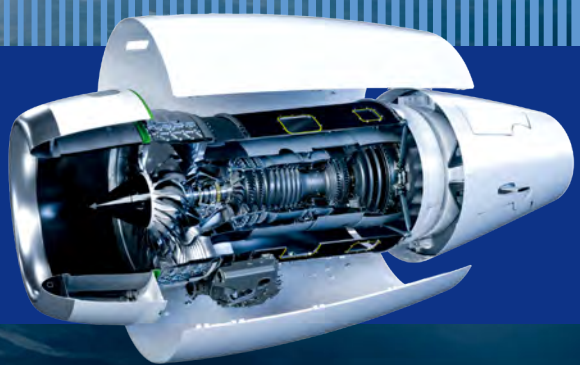
Pearl® 15

Innovative Power for Next Generation Special Mission Aircraft



L3Harris Proprietary

The Pearl 15 engine combines exceptional design with advanced technologies to deliver greater power and efficiency - flying your missions faster and fur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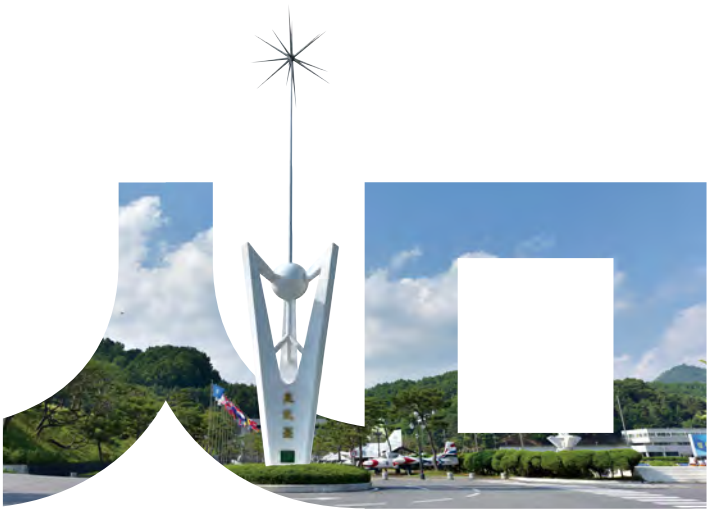


www.rolls-royce.com

빙그레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R.O.K Airforce Alumni Association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